

시로 읽는 성보순례
무위사 극락보전
국보 제13호
전남 강진, 조선시대 ▶2면

현대불교

성내는 마음을 없애면 안온하고
성내는 마음을 없애면 후회가 없다.
성냄을 없애면 근심이
없어진다. 〈대지도론〉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2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878호 2012년 3월 7일 수요일

공생은 탈핵에서 부터

脫核

불교생명윤리협회 창립 세미나서 한목소리
공동대표 법응 스님 "원전은 자살폭탄과 같아"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 진도 9.0의 강진이 덮쳤다. 강한 쓰나미가 발생했다. 원전이 폭발했다. 그리고 1년, 원전 주변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주위에 널린 쓰레기들도 강한 방사선으로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3월 23~24일 서울에서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 행사는 9 · 11 사태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nuclear security) 강화가 이슈로 떠올랐다.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50여 개국 정상이 모여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 건설은 화석에너지 고갈 대비 등의 이유로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척 · 영덕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건설이 추진 중이다. 원자력은 과연 안전할까?

이런 가운데 원전 등 핵에너지 사용은 인류가 스스로 설치한 자살폭탄과 같다. 일단 가동을 시작하면 인간 노력으로 해체할 수 없는 '끌 수 없는 불'이라며 탈핵(脫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커지고 있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 박광서)는 3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대표로 추대된 법응 스님은 학술대회에서 "문명의 이기가 일순간에 인간과 동식물은 물론, 생명체의 터전인 대지와 물 공기를 오염시키고 죽음의 땅으로 만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에너지로서의 핵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일본 동북부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이 잉태하고 있는 위험과 방사능 공포를 전 세계에 확인시켜줬다"며 "인간의 탐욕을 줄여 환경파괴를 막고 청정국토 화엄세계를 장엄하는 일에 생명살림의 지혜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백산생명환경연대 갈수 스님은 축사를 통해 "민족의 명운과 인류 장래를 위한 지중한 에너지 개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길이냐 경제적 이익의 길이냐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감히 불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법응 스님은 주제발표 '탈원자력과 불교생명관'에서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방사능 유출이 국경과 생명종에 차별 없이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자각의 '알아차림'을 지닌 인간이 깨여있는 정신으로 생명의 위기를 바로 보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생명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

원자력발전 일단 가동하면
'끌 수 없는 불'로 생명 위협
원전 폐쇄 · 대체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감은 공생·자비의 길

에 더욱 귀한 것"이라며 "생명의 영원성은 없으며 모두 서로가 인연(因緣)할 뿐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에너지는 인간의 탐심의 산물이며, 독(毒)이라고 지적했다.

법응 스님은 "세계의 원자력발전 의존도는 매우 높다. 원전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사고도 늘어날 것"이라며 "모든 생명체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대체에너지 투자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환경재단 기획위원은 주제발표 '脫원전 독일을 가다'를 통해 독일의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핵위기를 벗어나자고 제안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 무(無)원자력발전소 시대'를 외치며 가장 먼저 '탈원전'을 실천하고 있다.

박 기획위원은 "독일의 결정은 '원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민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14일 독일 전국에서 11만명이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25만명으로 확산됐고 선거결과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

박란희 위원은 독일의 脫원전 선언 배경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독일 남서부 징엔(Singen)의 한 마을을 예로 들며 태양광 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와 우드칩(wood chip)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교체를 설명했다.

박 위원은 "독일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독일정부의 확신과 일관된 정책, 내가 지금 1000원을 더 내더라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롤모델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탈핵을 주장했다. 정호영 교수(충북대)는 "핵발전과 핵폭탄이 동일한 연료주기, 동일 과정을 통해 생산 · 제조된다"며 "불교는 핵무기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핵발전을 폐기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도 한반도 탈핵 운동을 전개 중이다. 인드라망은 2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핵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 2012년 주요사업을 심의했다.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도 핵 산업을 녹색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핵에 대한 공부와 연대 사업에 참여해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생명존중이 아니다. 생명과 존재에 대한 외경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존재와 존재 상호간 원만한 관계를 이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탈핵은 그 노력의 하나로 모두를 살리는 자비행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그날의 외침을…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3월 1일, 93주년 3.1절을 맞아 복지센터와 종로 일대에서 '1 · 3세대가 함께 하는 3 · 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어르신과 청소년, 코이카(KOICA • 국제협력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독립운동 재현 거리행진,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거리행진에 동참한 참여자들이 그날의 외침을 재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경주 황룡사 2027년까지 복원

경주시 · 국립문화재硏 포럼서 복원계획 공개

경주 황룡사 9층 목탑과 장육존상(丈六尊像)이 2027년까지 33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복원된다. 경주시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월 28~29일 경주보문단지에서 황룡사 복원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2006년부터 진행한 황룡사 관련 기초연구성과를 공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반연구, 복원고증연구, 정비및활용, 종합계획으로 나눠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조인성 경희대 교수, 주수완 고려대 외대교수,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덕문 학예연구관의 주제발표 '황룡사 복원정비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은 2005년부터 실시한 황룡사 복원 마스터플랜 수집을 마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복원설계 및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황룡사 건축물 복원에 앞서 담장 · 중문 등 사역지 경계구조물의 설계 및 복원이 진행된다. 또, 목탑 설계와 연구센터 건립 등도 실시된다.

이어 2027년까지는 '황룡사 건축물 복원'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황룡사 9층 목탑과 금당이 복원된다. 황룡사 9층 목탑은 80m 높이로 지어져 신라 왕경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게 된다. 황룡사 9층 목탑과 함께 신라 3대 보물로 알려진 장육존상(5m70cm)과 금당도 조성된다.

2035년까지 진행되는 '역사 · 문화환경정비' 단계에서는 동 · 서강당, 동 · 서승방, 남회랑 등 부속건물을 비롯해 인근 역사 · 문화환경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황룡사 동쪽 일대의 왕경유적지에는 스님들의 거주시설과 템플스테이와 명상센터, 불교미술공예관 등이 들어서고, 쇼핑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얼문화유산연구 양윤식 원장은 "황룡사의 종교적 경건함을 훼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통합선거법 3월 종회서 꼭 제정을"

호법분과위 검토 결정에, '실승' 비판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가 금권선거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3월 종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가 징계 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제정안 검토 의지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초격)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스님들은 "선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든다. 투표를 위해 찾아 온 스님에게 여비를 주거나 선원 등에 대중공양을 올리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돈선거 옹호 발언도 있었다. 이날 호법분과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승)는 28일 "종단 통합선거법 제정을 지지하며 일부 중앙종회의원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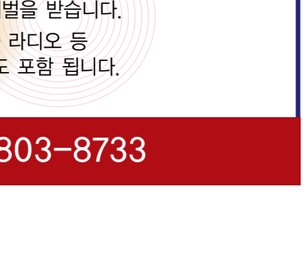
실승은 "종단의 선거 폐단은 감출 수 없는 공공연한 사실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끄러운 종단의 치부이다. 승단 고유의 여비 문화를 빙자한 매표와 매관매직 등 각종 폐해로 인해 종단의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승가 고유의 공의를 모아 반드시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 선거법이 제 · 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878호 CONTENTS

종단 2
학교폭력해법 교법사에게 듣는다

종합 3
전국비구니회 토론회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출가 · 열반절 법문

시방세계 5
3 · 1절 불교계 행사



대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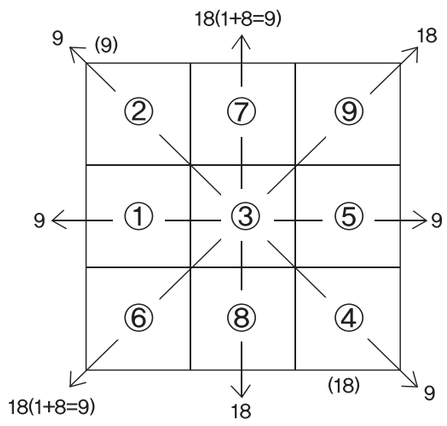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만세력 없이도 일생을
꿰뚫어 보는 비술

집중 5일 완성
저자 : 법화 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천왕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창시자



[구단구궁 원리도]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교육전문도량 불교대학 천왕사에서는
전국 학인을 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단구궁법 창시자
법화종헌스님의 직강으로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쉽게 접할수 있는
학문입니다. 구단 구궁법의 많은 관심과
스님, 일반인 분들의 문의가 쇄도한 바
경기 의왕 천왕사에서 개강하게 되었사오니
동참 문의 부탁드립니다.

도성 합장

• 구궁법 창시자 법화종헌스님 외에 강의 및 인쇄물, 저작물 등을 배포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 인터넷 · TV ·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도 포함 됩니다.

교육전문도량 불교대학 천왕사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20번지 교무접수처 ☎ 031)421-1268 / 010-7415-0803 / 010-4803-8733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3호 무위사 극락보전



무위사 극락보전

김 선 태

성속의 울타리가 없는
무위사 앞마당에 극락보전 있네
해탈문을 지나자마자
정면으로 중생들을 맞이하고 있네.

주심포에 맞배지붕을 얹은 모습이
어찌나 세련되고 기품이 있는지
앞에서 보면
단아하고 검소한 선비 같고
옆에서 보면
고깔을 쓴 비구 스님 같기도 하네.

그러나 이곳은 극락정토의 주인이시자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라
그 엄숙함이 여전히 살아 있네
게다가 명품 벽화들까지 품고 있으니
진정 조선 제일의 극락보전이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절간인
무위사 앞마당에 극락보전 계시네
멀리 월출산 능선을 바라보며 계시네
가까운 죽전 마을을 굽어보고 계시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김선태 시인은… 1960년 전남 강진 출생.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199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간이역〉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

학교폭력 해법, 교법사에게 듣는다

연기 통한 생명존중 가르침이 '약'

緣起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종립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 종립학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하는 교법사들로부터 그 비결과 해법을 들어본다.

정리=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현익채 前 금정중 교장



학교폭력은 성적위주 경쟁으로 인한 학생 인성지도가 부족한 탓이다. 부모들의 맞벌이로 가족간 대화가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가정에서 인성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도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없어졌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견제할 수 있는 상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 문제학생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요구된다.

명상교육도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불교계에서는 주5일제를 활용한 템플스테이, 방과 후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명상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하다.

학생의 다양성 인정을 통한 소통의 확대를 통해서만이 교사가 신뢰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선후배간 친척맺기 추천

신병훤 교법사(대전 보문고)



다른 아이들을 따리고 아프게 하는 것은 연기사상을 몰이해한 탓이다.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것은 성적지향적 학교교육의 탓도 크다.

아이들끼리 자유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 효과가 좋았다. 아이들은 노는 시간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웃고 즐기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친구들을 이해하게 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교복 · 참고서 나눠주기 등을 통해 선후배간 친척맺기도 해볼만하다. 선후배간 유대관계 강화는 세상에 나 외의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한 방편이다.

사찰 · 불교계도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음악 · 명상 등을 통해 동적인 아이들의 관심을 잠시 자신 내면으로 돌려줄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왜 저럴까"라는 접근 중요

이학주 교법사(동대부여중)



아이들을 대할 때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반항기 있는 학생이라 생각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 아이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문제다"라는 시각보다는 "왜 행동을 나쁘게 할까"라는 접근이 중요하다. 욕을 하는 아이라도 욕하는 것을 나무라기에 앞서, "얼마나 불안하면(아프면) 욕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불행 · 불안 · 불만족한 상태를 살펴 무엇을 채워줘야 하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공감을 통해 보람 · 행복을 느끼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장을 만들어주면 해결될 수 있다. 템플스테이를 하더라도 감성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아에 문제 부모 있다

권진영 교법사(동대부여고)



학교폭력은 전부터 있어왔다. 언론이 나서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이들의 뇌 발육은 전두엽이 미발달해 있다. 아이들의 문제는 인격 문제라기보다 뇌발달 과정에서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발달한 결과이다. 학교폭력도 같은 원인이다. 전염병이 아닌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문제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 문제아이에게는 반드시 문제부모가 있다.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과 직결된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아이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도 특별한 아이들은 별도로 케어하면 된다.

정서안정 · 인성교육 필수

이욱태 교법사(부산 해동중 · 동명대 외래교수)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핵가족화로 조부모 등에게 받던 정서안정의 기회가 줄어든 것도 이유일 수 있겠다. 종립학교에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인성교육의 기회가 잦다. 사립이다보니 남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도 학생지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아이들의 정서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의 정서에는 다도, 붓글씨 등 전통예절 문화체험이 도움이 된다. 명상도 중요하다.

이에 앞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區별 협의회 통해 수도권 포교 박차

자승 스님, 직할교구종회서 밝혀

서울시 25개구의 조계종 사찰 연합기구가 4월 만들어진다.

조계종 직할교구종회(의장 자승 총무원장)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2년 제1차 교구종회 이를 골자로 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직할교구는 서울지역 포교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서울시내 18개구에 협의기구를 발족했다. 4월까지 나머지 7개구에 협의기구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직할교구 종회의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에서 "직할교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지역단위로 주지 협의회를 구성해 사찰간 연계된 사업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협의회를 통해 종단과 불교의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복지 ·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자승 스님은 폐회사에서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법회가 최우선이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답보중인) 이대로라면 10년, 20년 후 종단은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소임을 소홀히 하더라도 어린이 법회를 열심히 하면 인사고과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역주민이 사찰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찰이 지역에서 복지와 문화 분야를 철저히 한다면 이 역시 높이 평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직할교구종회에서는 2012년도 교구예산 4억1952만원을 확정했다. **조동섭 기자**

환경위원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조계종 환경위원회 회의서, 환경위원회령 개정 논의

조계종 환경자문기구인 환경위원회 관련 종령이 조직 역량 강화와 사업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환경위원회령은 환경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환경 정책연구 등 환경위원회가 종령상 의결기구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위원회는 불교수목원 특성별 사례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 불교 및 우리나라 고유 식생 보존을 위한 전통식생 분야도 연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불교환경의제 21'의 지속 진행을 위한 실천지침서 발간, 실천사찰 지정 등 실천운동도 펼친다. 케이블카(삭도)로부터 자연 ·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현재 케이블카는 지리산 구례 · 남원 · 산청 · 함양, 설악산 양양, 월출산 영암, 한려해상 사천 등에서 관할 지자체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환경위원회는 케이블카 건설이 사찰 및 문화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중이다. 이를 종합해 3월 중 환경위원회의 삭도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삼론종 제 4세 종정 각몽당 석혜승 대종사 추대법회에 대한 감사말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3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제4세 종정 석혜승 대종사 추대법회'**를 성대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큰스님들과 제방 여러스님,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종도 여러분, 화환과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먼저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대법회를 통해 대한불교삼론종은 **제4세 종정 석혜승 대종사님**을 모시고 일치단결하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56(2012)년 3월 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석진봉 · 종도일동

자성과 쇄신…비구니 참종권 확대부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일동 토론회

2011년 조계종 분한신고에 등록한 스님은 1만2185명이다. 이 가운데 수계를 받은 비구스님은 5237명, 비구니스님은 4989명이다. 비구니스님들은 조계종 승가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중앙종회의원수는 81명 가운데 10명뿐이다.

이런 가운데, 비구니참종권 확대 등을 통해 종단 내 비구니승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는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역할'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한국불교가 민족종교로서 자긍심을 되찾고 사회와 함께하는 국민불교로서 다시 서는 계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구니승가 역시 종단 결사에 적극 동참해 사부대중과의 소통과 화합, 자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종단 차원의 결사가 진행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부승가의 한축인 비구니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함은 결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의 미래는 (이번 토론과 같은) 비구니스님들의 적극적 · 주체적인 대중공사를 통한 자성과 쇄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일운 스님(중앙종회 비구니회장)이 '한국불교와 비구니승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을 기조발제 했다. 또, 탁연 스님(중앙종회의원)이 '교단내 비구니승가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를, 효탄 스님(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이 '자성과 쇄신결사가 비구니 승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를, 옥복연 소장(종교와젠더연구소)이 '성평등한 교단을 위한 비구니승가의 역할기대' 를 주제발표 했다.

기조발제자 일운 스님을 비롯한 주제발표자들은 종단 내 비구 · 비구니 불평등이 성문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성과 쇄신을 위한 불교중흥을 위해서는 비구니참종권 확대가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운 스님은 기조발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 전문영역에로의 활발한 진입 등 남녀평등적인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비구니 위상과 역할 확대에 장애가 되는 종단 내 비구니 차별적인 법 · 제도와 관습을 바로 잡고 현대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와 함께 하는 종교로 쇄신하자"고 말했다.

초대 총무원 문화부장을 역임한 탁연 스님은 주제발제를 통해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비구니승가의 교단내 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했다.

탁연 스님은 "개혁종단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구니 종단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상 명시된 비구니 위상에 하등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라며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종헌종법상 법으로 명시된 비구 · 비구니차별을 예로 들었다.

탁연 스님이 종헌종법상 비구 · 비구니 차별 조항이라 지적한 것은 종정 · 원로의원 · 총무원장 · 교육원장 · 호계원장 · 법규위원 자격을 비구로 제한한 것(종헌 제20 · 26 · 53조 등)이다. 스님은 종헌종법상 문제조항의 '비구' 를 '승려' 로, '비구계' 를 '구족계' 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탁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정혜도량이 결성되면서 앞선 스님들이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해 부단히 애썼음에도 답보하는 이유는 비구 중심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낙후된 보수 관념이 문제는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은 1994년 이후 별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자포자기하며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해버린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탄 스님도 주제발표를 통해 "개신교 성직자가 조계종 승려수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현실에서 비구 · 비구니를 가르고 참종권을 막아서는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출가자 335명과 재가자 15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옥 소장은 "남 · 여 응답자 79.6%가 '비구니스님도 총무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한다' 는데 찬성했다"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서울대)는 토론문에서 "일반사회에서도 집단 내 남녀 비율을 반영한다. 종단 구성에 있어서 비구니스님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적극 지지한다"며 "차이를 차별로 보지 않아야 할 승가가 전근대적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처님 가르침과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2월 28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비구니 위상 제고를 위한 담론이 오갔다.

비구니, 전체 승려 대비 절반
차별법 · 제도 · 관습 바로 잡아야
비구를 승려로 비구계를 구족계로
'비구니 총무원장 79.6%' 설문 응답



동국대, 신공학관 및 남산학사 준공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2월 28일 남산학사 1층에서 기숙사 '남산학사' 와 신공학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산학사는 연면적 1만4262㎡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져, 2인 1실로 751명이 거주할 수 있다. 체력단련실과 식당, 정보화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준공식에서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왼쪽에서 세번째)과 김희옥 총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법인 이사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조동섭 기자**

NGO단체, 종회 모니터링감시단 발족

조계종 입법 ·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역할과 활동의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가 발족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 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종회 NGO모니터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NGO모니터단의 집행위원장은 모니터단 참여 4개 단체 대표가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초대 집행위원장은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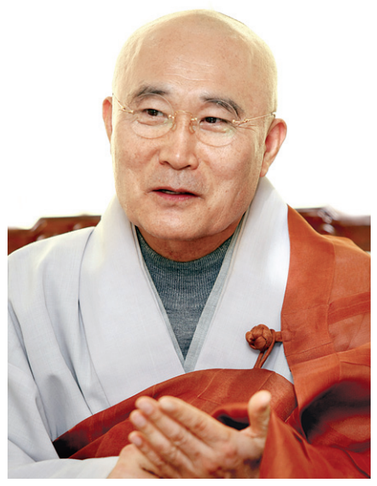
모니터단은 3월 종회부터 종단 결사 실천, 입법 활동, 시민사회 활동, 인권 · 성평등 실태, 종단 예 · 결산 활동과 의원출결 현황 등 중앙종회 기구 및 의원 활동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모니터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 사부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종회와 종도, 출가자와 재가자의 소통 확대를 통한 실천적 대안 모색에 힘쓸 예정이다.

발족식에 앞서서는 모니터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는 손혁재 교수(경기대)가 '민주주의와 인권, 대의제도' 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중앙종회의 역할과 위상' 을, 옥복연 소장이 '중앙종회 모니터링의 실제' 를 강연했다. **조동섭 기자**

法대로 살아야 法대로 간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출가 · 열반절 법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월 29일 출가절을 맞아 조계사에서 법문을 했다. 그 내용을 갖추려 싣는다.



5대결사 '불교적인 삶' 원력
출가는 무상진리 · 연기적 삶 실천
열반은 번뇌 여읜 대자대비행

음력 2월 8일은 우리 불자들에게 매우 뜻 깊고 소중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를 과감히 물리치고 출가(出家)의 원력을 실천에 옮긴 출가재일이기 때문입니다. 1주일 뒤인 음력 2월 15일은 대자대비심으로 평생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천하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와 인연을 놓은 열반재일입니다.

불자 여러분. 출가재일인 오늘부터 열반재일까지 여러분께서 불교와 인연 맺은 공덕을 귀하게 여기면서 부단히 수행 정진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으면 합니다. 종단에서도 앞으로 1주일간을 출가열반절 행사기간으로 정해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법회와 기도를 진행하는 한편 승보공양운동(僧寶供養運動)을 전개합니다. 우리 절 또한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출가열반절과 승보공양운동에 흔쾌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는 우리 종단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불교적인 삶' 을 살겠다는 원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출가의 뜻과 열반의 의미, 스님들의 출가 초심(初心)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재가불자들도 출가열반절을 계기로 종단에서 추진하는 결사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출가의 의미

출가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광명의 세계에서 대자유인이 되겠다는 원력을 실천에 옮긴 것이 출가의 바른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기전의 싯다르타 태자 입장에서 '집을 나온것은 왜일까요. 싯다르타가 향유할 수 있었던 세속적 가치의 '집착과 무명' 의 인연을 끊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괴로움을 멸(滅)하고 다른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의 원을 실천하신 것은 바로 '무상한 삶' 을 관찰하고 영원한 대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상하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상한 삶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대자유의 깨달음을 성취하며, 동시에 나보다는 남,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연기적 삶을 살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아가 열반적정(涅槃寂靜)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가정신입니다.

열반의 의미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을 두고 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세수80에 사바세계와 인연을 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바세계와 인연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法)을 설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법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신다고 슬퍼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셨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바세계에 머무실 때에도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대자대비심을 한없이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동안에도 모든 번뇌를 여의고, 불법(佛法)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살아생전에 잘 실천해야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육신' 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대자유의 마음' 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열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전에 불법(佛法)대로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도 불법(佛法)대로 갈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임진년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신생아 작명

세상 만물이 난조(暖燥) 및 한습(寒濕)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듯이 인간도 자연의 조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표현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3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www.8259.co.kr 국내외 우편발송
작명보시금 20만원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 국 민 속 철 학 연 구 소 가담 방 필 석 법사

특강 철학강의(무료)
눈은 떴지만 바로 못보고
귀는 있지만 바로 듣지 못하네
길은 있지만 갈팡질팡 헤매네
길을 아는 분이 보명사에 있다하여
도처에서 찾아 오네!

사기위인(捨己爲人)이라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니라!
관심있는 분 문자로 성명 생년월일시(음력) 보내주세요!
■문자보낼 번호 : 010-5474-8497
※일반전화 통화는 사절 양해바람

개명 · 아호 · 상호
역학개인지도
♬ 잘될사람 오는 집 ♬

일주문



문수원 및 금강선원, BBS 1000만원 후원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은 2월 28일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에게 BBS 우수 포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월정사 한암 스님 61주기 추모다례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6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한암 스님 6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033)339-6600



동화사 49일 생전예수재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4월 1일 동화사 통일약사기원대전에서 49일 생전예수재를 입재한다. (053)982-0101



조계사 화엄성중 111일 기도 입재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화엄성중 111일 기도를 입재한다. (02)732-2183



대흥사 호국성사 서산대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16일 대흥사에서 호국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061)534-5502



선운사 선명상 체험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3월 23일 명상 지도사 이경남 씨 초청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63)561-1422



파계사 니르바나 대법회

대구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은 3월 7일까지 파계사 설법전에서 '제4회 니르바나 대법회'를 봉행한다. (053)984-4550

이헌재 前 부총리 등 금강대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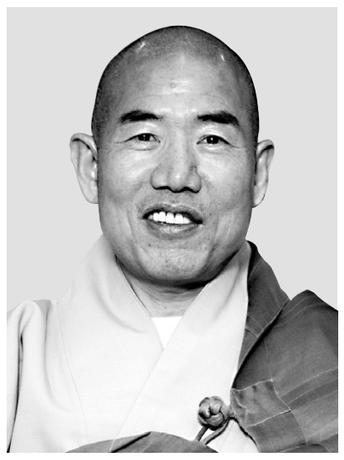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데미언 키온(Damien Keown) 前 런던대(University of London) 교수, 이헌재 前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사진), 김형식 서울국제교육재단 이사장(서울국제학교 SIS 총교장)을 3월 1일자로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금강대는 불교학부 불교학과에 선진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석사, 김해 봉화산 정토원장), 송병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를, 응용불교학과에 이혜숙 교수(동국대 한국불교학과 박사)를 객원교수로 임용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공존·상생 정신을 사회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보선 스님



"공존과 상생 정신이 실현되는 경제정의 실천에 일조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1989년 시민운동의 첫 신호탄으로 설립된 경실련은 그동안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시민단체의 맏형으로서 활동해왔다.

보선 스님(사진)은 2월 29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년간 공동대표로서 포부를 밝혔다.

보선 스님은 먼저 "경제에 대해 아는바 없는 수행산승에게 무거운 책무가 맡겨져 무거움이 막중하다"고 공동대표로서 책임감을 말했다.

이어 보선 스님은 "종교계의 경실련 참여는 경제전문가들이 경제 정의에 대한 논의와 실천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는 오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의 편향과 왜곡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경제 정의는 사회의 재화와 이익들이 뭇사람들 모두에게 비교적 평등하게 유통되고 교환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식적이고 명백한 목적을 위해 참신한 문제제기와 폭넓은 논의들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선 스님은 경제정의실현의 이념적 기반 제공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바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의를 실천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고 그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며 〈잡아함경〉의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잡아함경〉에 재물을 부지런히 모으되 모은 재물은 4등분하여 보시와 저축 그리고 운영과 사업에 쓰라 하셨다. 이는 재물은 법답게 모을 뿐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복을 쌓으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하다는 함께 사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선 스님은 1966년 용암사에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보선 스님은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주지, 14대 후반기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업인의 도덕성 불교에서 배워"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지승동 제2대 회장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경제인불자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지난 2월 10일 신년하례법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회장에 지승동 대명종합건설 회장(사진)을 선출했다. 지승동 회장은 1972년 부터 40여 년간 건설업계의 성공신화를 이뤄 온 인물이다.

지 회장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영철학에 녹여 기업을 이끌어 왔다. 지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순리해 입각해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지승동 회장의 불교인연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지 회장의 어머님은 항상 영주 흑석사에 다니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지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어머님과 부처님을 떠올렸다. 그래서 항상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다"며 "불교는 나에게 기업인으로 사회적 도덕성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지승동 회장은 누구보다 사회적 도덕성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때문에 지 회장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승동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벤처기업 지원 빌딩을 건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지승동 회장은 "불자 경영인들은 남을 위하기 전에 자신부터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자연스레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 회장은 "한국불교가 사회의 중심으로 서기위해서는 불자 경제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인 불자들은 하나가 돼 경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처님의 자비정신 바탕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인불자연합회는 제2기 회장단에 수석부회장에 류병선 영도벨벳 회장을, 명예회장에 구자선 초대회장을 추대했다. 이은정 기자

한글염불지도교수 위촉

한글염불을 교육하기 위한 지도교수 스님들이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한글염불의례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한글염불지도교수' 위촉식을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글염불지도교수로 위촉된 스님은 법경·용하·대광·선훈·보천 스님(이상 비구 5명), 성운·일각·금강 스님(이상 비구니 3명)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수목원 홍보부터"

이영경 교수, 불교수목원 설립위한 2차 토론회서



불교수목원에 대한 불자 및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불교수목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불교수목원 추진과 별도로 관련 홍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와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수목원 설립에 관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사진)는 주제발표 '불교수목원 계획 원칙 및 지침'에서 불자들의 불교수목원 관련 인식을 설문조사해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월 4~16일 사부대중 579명을 대상으로 불교수목원의 필요성과 조성원칙, 계획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조사결과 불자 및 일반인들 모두 불교수목원 설립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40.8%인 236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매우 시급하다'는 대답은 17.1%인 99명이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는 필요성은 3.67, 시급성은 3.38로 분석됐다.

이영경 교수는 "불교수목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거나 시급하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스님들 중에서도 선방스님들의 평가가 낮았다"고 말했다.

불교수목원 조성원칙으로는 기존 사찰림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전통사찰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4.3 이상)

사부대중은 불교수목원에 '건강을 위한 명상 및 치유기능'을 가장 크게 기대했다.(39.8%) 또, '불교적 수행활동과 연계된 사색기능(38.5%)'과 '일반적 식물관상(5.1%)' 등도 원했다.

이 교수는 "불교수목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교계 내부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성원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불교수목원의 차별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날 토론결과를 토대로 3월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불교수목원 조성지침과 원칙을 정리할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효일당 범행 스님 49재 봉행

보은 법주사 조실 효일당 범행 스님의 49재가 3월 3일 수원 팔달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등 500여 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031)241-1005 노덕현 기자

전통범음·범패연구원 설립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은 '전통 범음, 범패 연구원'(원장 호산)을 설립했다. 연구원은 안정불교대학 강주 상진 스님을 강주로 초빙했다.

호산 스님은 "질서 없이 이루어지는 불교의식은 불보살님 뿐 만 아니라 재가불자들에게도 업보를 짓는 것"이라며 "불교 전통의식 회복을 통해 수행 기초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율종)불교조계종 동안거 해제

율종)불교조계종은 2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해인율원에서 동안거 해제 및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자정기의(自淨其意), 자기를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부처의 마음으로 이는 일체 우주의 불성이다"며 "부처님 경계에는 우주도 작은 것이고 우주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찰나라고 말씀하셨다. 스님들은 진정한 수행자로 열심히 정진하여야 한다"고 법문했다. 노덕현 기자





광동고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법회에 참석한 불교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삼일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스님들의 나라사랑 배우렵니다

의정부 광동고 용성 · 만해 · 운허 · 태허 스님 추모법회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의요, 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93주년 3 · 1절을 맞은 3월 1일 의정부 광동고교 5층 법당 자비원에서는 삼일절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의정부광동고등학교(학교장 박병선)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홍)가 3 · 1절 기념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과 다짐이 묻어 나왔다.

의정부사암연합회는 31년 전인 1981년부터 3 · 1절에 용성 스님, 만해 스님 추모법회를 열어왔다. 이번 3 · 1절에는 독립운동가인 태허 스님과 운허 스님을 기리는 법회도 겸해 확대돼 열렸다.

이날 불교계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스님들을 기리는 추모법회에는 의정부사암연합회장 대홍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들과 박병선 광동고 교장을 비롯한 광동고 불교회 소속 학생 50여 명,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등 관련단체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삼귀의, 국민의례, 묵념, 분향 및 헌화 등 추모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일동은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선사들의 뜻을 조용히 기렸다.

박병선 광동고 교장은 이날 발원문 낭독을 통해 "호국불교정신으로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나서는 한편 한문불경의 한글화, 사학 설립 등 민족의 발전 초석을 다진 선사들의 뜻을 이어받고자 한다"며 "3 · 1 정신을 발현해 남과 북이 동질성 회복과 자주 독립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어 신용철 운허사상연구소장(경희대 명예교수)의 용성 만해 태허 운허 스님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광동고 불교회 이준혁 학생은 "3 · 1 운동을 비롯해 수많은 스님들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고 광동학원 설립 등으로 이어져 광동고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은철 학생도 "설명 중 운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민족 독립과 더불어 민족정신 배양을 위해 교육에 힘썼다는 사실에서 학생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광동학원이사장 화범 스님은 "3 · 1절 행사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다보니 중요성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광동학원은 67년 민족사학으로 종립정신을 기리고자 지역사회와 행사를 해오고 있지만 광동학원 설립자인 운허 스님과 태허 스님이 빠져 있어 확대 개최하게 됐다"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내년부터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분들 외에도 운경 스님을 비롯해 독립운동을 돕다 옥고를 치른 스님들을 계속 발굴해 기리는 법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동고 추모법회 4인 선사는?



용성 스님



만해 스님



운허 스님



태허 스님

용성 스님(1864~1940)은 16세 때인 1879년 해인사로 출가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여하고 1920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만해 스님(1879~1944)은 1905년 백담사로 출가, 1910년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했다. 불교대전을 간행하고 불교잡지 〈유심〉을 발간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1919년 3 · 1운동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2년 뒤 석방돼 민족의식 고취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운허 스님(1892~1980)은 1912년 배일단체인 대동청년단에 가입했고, 5년 뒤 배달학교를 설립, 교포 아동교육에 매진했다. 1919년 봉천에서 독립군정기관지인 〈한족신보〉 사장에 취임하고 다음해 광한단을 조직했다. 이후 봉선사 강원과 광동중학교를 설립하교 봉선사 주지를 거쳐 동국역경원을 설립한다.

태허 스님(1898~1969)은 1916년 용문사에서 출가,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 만주로 떠났다. 1919년 3 · 1운동에 참여, 서대문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조선의열단 등에 가담하고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한다. 1942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도 취임했다.



대불청은 3 · 1절을 맞아 만해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서강고 선민혁 군이 만해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3·1절 맞아 불교계 행사 다채

93주년 3 · 1절을 맞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불교계 기념행사가 잇따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3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백일장에는 만해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 돼 전년에 비해 400여 명 늘어난 2200여 명의 학생 · 일반인들이 참가했다.

이번 만해백일장 대통령상은 광주 서강고 선민혁(19) 군이 수필 '씨앗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선민혁 군은 "어린 시절 가게를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씨앗을 팔던 모습을 떠올려 글을 썼다"며 "글을 쓰는 제게 항상 용기를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만해백일장은 단순히 글재주를 뽐내는 자리가 아닌 대아(大我)를 추구했던 만해 선사의 높을 뜻을 기리기 위한 자리다"며 "만해 스님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8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자승 스님은 추모비에 헌화한 뒤 법당 등을 참배했다. 관련기사 6면

또 3 · 1절 기념 **민족공동행사위원회**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3 · 1절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열고 독립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진혼제를 봉행했다. 한국대승불교중앙회를 비롯해 문화예술, 민족운동단체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한국대승불교중앙회 종정 법진 스님과 총무원장 탄월 스님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밖에 불교계가 수탁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3월 1일 200여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합창단의 3 · 1절 노래제창,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등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 자원봉사단과 함께 탑골공원까지 종로 일대를 만세행진을 재현했다.

용성 스님 법을 이은 도문 스님 주석처인 **장수 죽림정사**에서는 '3 · 1절 기념법회'가 개최됐다. 법회에는 정토회 법륜 스님이 은사인 도문 스님을 모시고 참석해 '3 · 1 독립정신과 민족통일'을 주제로 기념강연을 열었으며 방송인 김병조 씨의 사회 하에 민족대표 33인을 기리는 헌화,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만해백일장 2200여 명 참가
진관사 등 관련사찰 기념법회
독립열사 조명 서적도 나와

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태극기가 발견된 **진관사**(주지 계호)도 2월 28일 진관동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나무 식수식을 갖고 태극기 장식, 만세삼창 등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3 · 1정신을 기리는 불교계 서적 발간도 줄이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3월 1일 운암 스님이 1964년 쓴 친필 일기를 편역한 〈혁명일기〉를 발간했다. 이 일기는 중국에 있는 운암 스님의 세 아들이 보관하던 것으로, 친손자 김덕천 씨가 2008년 여러 문건과 함께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또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최근 〈대각사상 제16집〉을 펴내고 '백용성의 민족운동과 연변불교문화' 특집논문에서 허명철 김광식 김석주 이관복 박사 등의 용성 스님 독립운동 연구 및 연변지역 불교계의 독립운동 조사 결과를 담았다.

노덕현 · 이은정 기자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청빈한 삶과 서릿발같은 수행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신
우리 시대의 부처 퇴옹당 성철스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 지 100주년을 맞습니다.

퇴옹당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다례

퇴옹당 성철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큰스님 탄신일에 맞추어 다례를 봉행합니다.

일 시 | 불기 2556(2012)년 3월 11일(음 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주 최 | 성철스님문도회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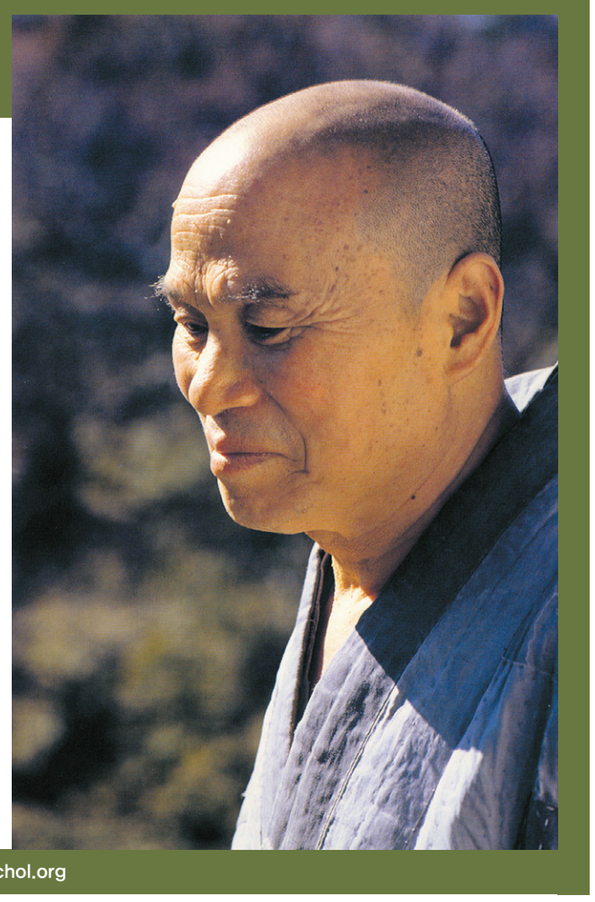
(다례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오후 1시부터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관람 안내를 합니다.)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출범 50주년과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개최합니다.

전시일정 | 2012년 3월 9일(금) ~ 2012년 6월 3일(일) 매주 월요일 휴관
개막행사 | 2012년 3월 8일(목) 오후 3시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재)백련불교문화재단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불교신문, 현대불교, 법보신문, 불교텔레비전(BTN), 불교방송(BBS)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성철스님문도회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1232호 / 02) 2198-5100 / kosa21@daum.net / www.sungchol.org

“위안부 문제 종단적 노력 계속할 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나눔의 집 찾아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3 · 1운동 93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을 방문했다. 자승 스님은 나눔의집에 도착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다 작고한 7분 할머니의 위패가 봉안된 추모비에 헌화하고 법당을 참배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생활관에서 김군자(87), 이옥선(86), 김순옥(91), 박옥선(89), 배춘희(88) 할머니들을 만나 위문하고 차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그동안 배상에 대해서 정부도 종단도 노력했으나 좋은 결과가 못나와 안타깝다”며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시길 기원한다. 내년에도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종무에 바쁘신데 두 번씩이나 방문해 주신 원장스님께 감사드린다. 할머니들께서 연세가 많으셔 건강이 염려된다. 할머니들을 건강히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군자 할머니는 “올해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다. 아직 정부가 힘이 없는 중국에서 60년을 살다 돌아왔다. 빨리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순옥 할머니도 “우리가 나눔의 집에 들어온 지도 10년이다.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 주셔서 우리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고 빨리 일본이 배상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세분 할머니가 10대에 위안부로 끌려 가 60년 동안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신지 10년 밖에 안 돼 말씀이 서툴다. 지금도 중국에 10여 분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다”며 현황을 소개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은 전국에 63분이 생존해 있다. 이 가운데 8분이 나눔의집에서 생활 중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옥선 할머니의 “봄 나들이를 꼭 하고 싶다”는 부탁에 “3월 이후 할머니들이 제주도 나들이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종단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역사관에 60인치 TV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의 방문에는 사회부장 혜경 스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등이 함께 했다. 나눔의 집 원장 원행 스님과 부원장 호련 스님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3 · 1운동 93주년 앞두고
자승 스님 5대결사 나눔 행보
“봄나들이 하고 싶다’는 요청에
“할머니들 제주 나들이 준비” 지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월 28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사진은 자승 스님에게 위안부 할머니가 손수 만든 작품을 선물하는 모습

소외된 이웃 지원활동에 주력

불교여성개발원 연간 사업 발표

불교여성개발원이 2012년 여성 불자의 역량 결집을 통해 수행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올 한해 여성 불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지난해부터 모연해왔던 불교여성광장 건립 추진을 중심으로 여성 수행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우선 불교여성개발원은 성남시 고등동 종합복지관을 수탁해 운영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주력한다. 특히 명상 ·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고봉중고등학교(서울 소년원) 청소년 심성교육, 군 상담, 다문화가정지원 등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또한 불교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들의 수행을 고려한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신모델의 불교리더십을 개발해 여성 불자의 공동체문화 확산에 힘 쏟을 예정이다.

이밖에 불교여성개발원은 지금까지 이어온 〈승만경〉 대중화 사업을 비롯해 사찰 음식의 대중화,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불교문화 창조, 차세대 여성지도자 발굴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나를 찾으면 행복이 보인다

풍경소리, 행복프로그램 시작

명상, 글쓰기 등을 통해 ‘참나’를 찾아 행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좋은벗풍경소리는 3월 7일부터 프로그램별 순차적으로 ‘나를 찾는 학교’를 연다고 최근 발표했다.

‘나를 찾는 학교’에서는 ▷솔개교실 ▷글쓰기 명상 교실 ▷마음 그리기 교실 ▷어린이 생태문화체험교실이 진행된다.

솔개교실은 중년 대상의 명상 · 심리학 · 요가 기반의 청춘 재생 프로그램이다. 4주씩 3차 과정으로 수 · 금요일 오전반(오전 10시) 오후반(오후 2시) 저녁반(오후 7시)으로 나눠 진행된다. 3월 7 · 9 · 14 · 16일 공개강좌가 열린다.

글쓰기 명상 교실은 12주 과정의 글쓰기를 통해 나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두차례 열린다. 3월 20일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마음 그리기 교실은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종이 위에 옮기는 그림명상이다. 12주 동안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차례씩 진행된다. 3월 8일 공개강좌를 연다.

어린이 생태문화체험 교실은 고궁, 박물관, 미술관에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서울 나들이 프로그램이다. 월 1회씩 6개월 과정으로 둘째 · 넷째 토요일반이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열린다. 개강은 10 · 24일이다. (02)736-5583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어르신 농부양성 한다

개관 5주년 맞은 종로노인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개관 5주년과 재수탁 심사를 앞두고 인문학 아카데미, 어르신 농부양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월 27일 간담회를 열고 2012년 문화 · 지역 · 재가복지 분야로 나눈 사업안을 발표했다.

문화복지팀은 음악을 통한 인문학아카데미 ‘찐한인생사’를 7~8월에 진행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회고함으로써 자아통합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문화복지팀은 ‘상상클럽데이’를 운영해 어르신들이 밴드 라이브연주, 댄스타임에 참여하는 등 사교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의 유명한 장날을 찾아다니며 문화체험을 하는 ‘장터유랑단’을 비롯해 ‘바른자세 걷기운동 교실’ ‘골목길 해설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복지팀은 농부양성 프로젝트인 ‘도시(都市) 락(樂)’을 진행한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공모해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농사를 짓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100여 평의 복지관 옥상에 텃밭을 가꾸고 재배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게 된다. 지역복지팀은 이 밖에 종로구 내 노인복지시설 이용어르신 2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서비스를 실시한다.

정관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은 올해 재수탁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종로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농부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불교스카우트 발대에 주력”

어린이청소년위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과정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어린이포교 활성화와 불교의 국제화를 위해 불교스카우트 창단에 주력한다.

이에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어린이법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3월 1~3일 고양시 한국스카우트 중앙훈련원에서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자 훈련에는 한마음선원, 국제선센터 등 전국 23개의 사찰에서 스님 · 재가자 41명이 지도자 훈련에 참가했다. 이들은 스카우트 조직과 운영, 기능, 활동의 특징, 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해 초 · 중급 과정의 이론과 실습과정을 교육받았다.

유진상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청소년팀장은 “이번 지도자 훈련에 참가한 각 사찰들은 빠르면 4월 이내로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을 마칠 예정이다. 부산 범어사는 3월 17일 발대식을 진행키로 했다”며 “현재 조계사와 경국사 등에서도 불교스카우트 발대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찰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교귀농학교 모집

인드라망생명공동체(대표 도법)가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제30기 불교귀농학교 모집생을 모집한다.

이번 불교귀농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 ‘조화로운 사회’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주제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텃밭 가꾸기, 귀농 살림, 귀농선배의 만남 등 이론과 현장실습으로 기초교육이 진행된다.

강의는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량에서 3월 27일~5월 24일 매주 화,목 오후 7시 30분 실시되며, 귀농을 준비하거나 꿈꾸는 이들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2) 576-1886

이은정 기자

진각복지재단 헌혈증 130장 전달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정사)은 2월 24일 서울교대 에듀윌센터에서 헌혈증 130 여 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헌혈증은 복지재단이 지난 2월 설립 14주년을 맞아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진행해 모은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혜정 정사는 “추후 헌혈행사 진행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지속적인 헌혈증 기증할 것이며 협회와 상호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중도란 무엇인가

4월 3일부터 제따나와 특별법회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이자 최후의 가르침인 중도란 무엇일까.

서울 제따나와선원(선원장 일묵)은 4월 3일~6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13회에 걸쳐 ‘중도 마음의 균형잡기’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선원장 일묵 스님은 “중도는 편견이 없고 균형 잡힌 마음을 뜻한다. 중도를 이해하면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바른 수행법을 터득할 수 있고, 불교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갖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는 저녁반 외에 동영상통신반도 운영한다. (02)595-5115

조동섭 기자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완전 형태 통일신라 금석문 발견

불교문화재硏, 사찰문화재 일체조사 중 용주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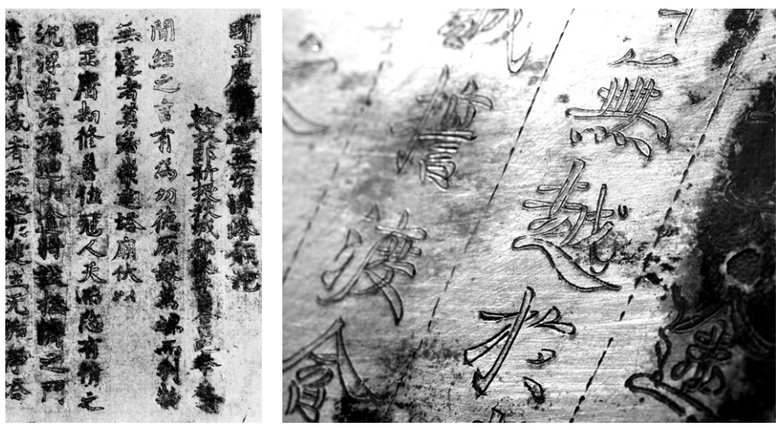
통일신라 제46대 문성왕(839~857)이 대중 3년(855)에 경주 남산 창림사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탑 안에는 탑 건립 배경과 발원내용, 조탑에 관여한 인물을 기록한 금동판(22.4cm*38.2cm) 형태의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가 봉안됐다. 경응은 문성왕의 휘이고, 무구정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뜻한다.

천년이 지난 1824년 석공이 창림사 삼층석탑을 도괴했다. 그때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가 발견됐다. 금석학에 조예가 깊던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이 금동판을 모사해 두었다. 김정희는 이것을 돈독한 우정을 나누던 벗 김유근에게 전했다. 김유근은 이를 집안(안동 김씨)의 원찰이던 이천 영원사에 봉안케 했다.

1968년 이천 영원사 대웅전 해체 과정에서 대웅전 진단구로 기단에 매납됐던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가 발견됐다. 이후 발원문은 영원사에 보관되다 2011년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기탁했다. 그러는 동안 김정희의 모사본은 〈慶州南山の佛蹟〉(1940)에 수록됐지만 원판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한국의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진행 중 이천 영원사에서 기탁해 수원 용주사 효행박물관이 소장 중이던 금동판을 발견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 이하 연구소)는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사 김정희가 모사한 창림사 삼층석탑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이하 탑원기)' 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문성왕 3년 남산 창림사탑 봉안
1824년 탑 도괴때 추사가 모사
붕우 김유근에 전달…영원사로
용주사 효행博 소장된 것 발견



1940년 〈경주 남산의 불적〉에 수록된 추사 김정희의 모사본(왼쪽)과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견한 탑원기 원본

탑원기는 제작연대와 발원자가 있는 완벽한 형태의 통일신라 금석문으로 국보급으로 추정된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 불교사, 미술사, 서예사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탑원기의 금속성분, 서체, 금속 제작기법 등을 관련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순동(Cu), 금(Au), 수은(Hg) 등이 검출돼 탑원기가 아말감수은기법에 의해 제작됐음이 증명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전문가 자문 결과 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품과 추사가 말한 창림사 삼층석탑 발원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서체면에서는 탑원기와 김정희의 모사본이 자간(字間), 결구(結構) 등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탑원기에서 보이는 필획이 보다 더 정밀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결구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탑원기에 사용된 글자 새김 기법은 글자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쌍구법(雙鉤法)이다. 쌍구법은 '염거화상탑지' (844), '황룡사구층목탑 찰주본기' (872), '중화3년명 경통' (883) 등 통일신라 동판에 글씨를 새길 때 즐겨 사용됐던 기법이다.

미등 스님은 "금동판의 고른 연마와 도금을 한 후 작은 망치로 정(釘)을 쪼아 글자를 새기는 방식 등에서 매우 숙련된 장인이 제작 기술을 살필 수 있고, 표면의 불규칙한 크랙(crack)은 현대 금속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탑원기의 조사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기복신앙 · 내세추복 등 조선왕실 원당은 '유·불' 접점

한국학중앙硏 탁효정 박사 학위청구논문서 규명



억불숭유 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였지만 왕실만은 예외였다. 왕실은 왕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꾸준히 불교신앙을 이어나갔다. 원당(願堂)을 통한 내세추복(來世追福) 의식은 유교의 효(孝) 사상과도 연관돼 쉽게 폐지될 수 없었다.

최근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는 최근 박사학위청구논문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를 통해 조선시대 왕실원당이 어떤 형태로 유지됐고, 그것이 조선시대 불교계 운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했다. 또, 왕실원당이 설치된 이유를 분석해 조선시대 불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신앙적 특징을 규명했다.

탁 박사는 "원당은 조선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세신앙과 천도의례, 효사상, 기복신앙의 접점에 위치한 대상물이다"라고 말했다.

왕실에서 원당을 설치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선왕 · 선후의 명복을 발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당은 불교적 시설물임에도 유교에서 중시하는 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선왕을 위한 일이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원당 혁파를 주장하는 관료들의 청을 물리친 기록도 있다.

탁효정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왕실과 원당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수혜관계에 가까웠다. 왕실에서 특정 사찰을 조성 · 지원함으로써 원당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분들을 부담했고, 왕실의 특권 또한 이들 사찰에 부여해 정치적 보호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선후기에는 왕비 · 후궁이 득남발원 후 왕자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당이 늘어났다. 특히 조선시대에 연로한 문신(文臣)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명예기구인 기로소(耆老所)와 원당이 결합돼 기로소원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원당이 고운사 · 송광사 등에 설치됐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원당이 갖던 추천(追薦) · 추복(追福)의 성격이 약해지고, 유교적 의례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탁효정 박사는 조선시대 왕실원당의 특징을 ①왕실원당은 유교 · 불교의 접점에 위치한 시설물이었다. ②불교식 국가의례의 폐지에 따라 왕실의 기복행위가 원당으로 집중됐다. ③왕실원당이 왕권강화 내지 왕실 권위의 대외적 표명 수단으로 활용됐다. ④조선후기로 갈수록 유학자

억불숭유 정책 속 왕실은 불교신앙
선왕 · 선후 명복 기림 孝사상 일치
조선후기, 구도 아닌 기복 치중
500년간 불교전통 이어진 근간

관료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이단 시비가 사라지고 불교 시설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 ⑤조선후기 왕실 불교신앙은 구도가 아닌 기복에 치중됐다. ⑥조선후기에는 왕실원당이 궁방의 재정원으로 활용됐다. ⑦조선후기에는 왕실원당도 막대한 잡역에 시달렸다. ⑧조선후기 왕실 능묘나 진전을 관리하는 사찰을 지칭하는 조포사(造泡寺)라는 새로운 형태의 원당이 등장했다고 분류했다.

탁 박사는 "현재 한국불교가 지닌 기복신앙, 내세추복적 성격은 조선시대 불교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왕실원당이 조선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대구 청계사 불상 문화재적 가치 있어"

문명대 소장, '강좌 미술사' 게재논문서 주장

대구 청계사는 대구스타디움 뒤 계속에 자리한 고찰터에 중창한 사찰이다. 이곳에 봉안된 석불은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비로자나불 입상으로는 드문 지권인을 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미술사연구소 문명대 소장은 최근 〈강좌 미술사〉 제35호에 게재한 주제논문 '대구 청계사 고려 석비로자나불입상의 고찰' 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계사 석비로자나불입상은 불상과 광배가 한 돌로 조성됐다. 현재에는 누군가 눈을 파버려 얼굴에 손상이 있고, 광배 상단 좌우가 깨어져 나갔으며, 대좌가 소실된 상태이지만 불상 자체는 잘 보존돼 있다. 이 불상은 광배 뒷면에 명문이 새겨진 패(牌)형 부조를 갖고 있다. 특히 고려불상으로 왼손을 배에 들어 주먹을 쥐고 검지를 곧추 세운 끝마디를 오른손 주먹으로 감싸 쥔 지권인을 짓고 있고, 보기 드문 석비로자나불입상이다.

문명대 소장은 "지권인을 짓고 있는 비로자나불상은 〈80화엄경〉을 바탕한 신화엄종에서 밀교의 비로자나불신관을 대담하게 수용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은 석남암사 비로자나불(766)에서 발견되며, 9세기에는 신라 전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다.

문 소장은 "청계사 석비로자나불입상은 11~12세기 조성돼 당시 화엄종 사찰에서 주존불로 모셔졌을 것이다. 당시의 화엄종 신앙과 비로자나불상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청계사 석비로자나불입상 같은 불형(佛形)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입상은 국립경주박물관,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품 등 극소수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청계사 석비로자나불입상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으로는 희귀한 예로 중요시되며 더구나 돌로 된 석지권인 비로자나불입상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귀중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구 청계사 석비로자나불 입상. 청계사 주지 설정 스님은 대구시에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조동섭 기자

응용불교 논문 공모

불광硏, 전법학연구 학술상 제정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광덕 큰스님의 전법행을 계승해 전법(傳法)과 교화(教化)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전법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불교학을 개척하기 위해 '전법학 연구 학술상' 을 제정한다"고 2월 28일 발표했다.

'전법학 연구 학술상' 은 ▷전법교화에 대한 불교사상 연구 분석 ▷전법교화의 역사적 사례와 전개과정 연구 ▷전법교화의 현대적 방법론 제시 ▷전법교화의 모범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전법교화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전법론 분석 등 관련 주제로 공모된다.

학술상 공모일정은 3월 1일~4월 30일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 혹은 종무원, 포교사 등 불교기관 종사자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접수받고, 9월 30일까지 완성된 논문을 접수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02)941-3537

조동섭 기자

지장보살 신앙 연구 등 눈길 위덕대 박사학위 청구 논문

임동주 위덕대 박사는 '신라불교 윤리사상 연구' 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불교를 바탕으로 한 윤리관과 실천이 있었음을 고찰했다.

혜담 정사의 '진각종 교학의 형성과정 연구' 는 진각종 교학의 형성과정을 참회원, 심인불교, 진각종 등 교명(教名) 개칭과 관련해 고찰해 진각종의 시기별 교학체계를 밝혔다.

무통 스님도 위덕대 박사학위청구논문 '지장보살신앙 연구' 를 통해 위경의 논란에서 벗어난 지장보살 관련 경전인 〈대방광십륜경〉 〈대방등대집경〉 〈대승대집지장십륜경〉의 다양한 전거를 들어 지장보살의 원류적 신앙성과 다라니의 유용성을 고찰했다.

조동섭 기자

용문선원(龍門禪院)기공수련 안내

本 院은 中國 道家 全眞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께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16-328-3974(유재용)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3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3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박람회를 한국불교계 공동행사로

2012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주역 박철희 대표

호남 대표사찰 홍보부스 마련
시민체험 공간 확대 개최
지역불교 활성화 위해 NGO 도움
홍콩 · 티벳 등과 교류 발전

빛고을 광주에서 한국불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박람회가 개최된다.

올해 3회째 개최되는 2012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는 3월 16~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를 준비 중인 박철희 대표(엑스퍼트)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의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불교관련 상품을 전시 · 판매하는 문화산업박람회로 한국의 불교사와 호남불교의 대표적 사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철희 대표는 전시관 중앙에 호남 대표사찰인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금산사 선운사 홍보부스와 체험관을 마련해 일반인들이 사찰체험을 도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열리는 세계불교도대회를 미리 둘러볼 수 있는 홍보관도 마련된다.

"한국불교는 1600여 년 긴 시간동안 민족의 삶 속에 뿌리깊이 내린 민족의 종교이자 문화 역사 사회입니다. 근대 들어 이런 역사적 뿌리가 흔들리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불교박람회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불교의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불교의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가 열세인 호남에서 불교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특히 사찰과 불교단체가 많지 않은 호남지역은 불교박람회를 개최하기에 물적 인적 자원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환경에도 그는 3회째 박람회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그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송광사 영조 스님을 비롯해 6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 큰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 사찰과 신도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박 대표는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번 박람회기간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불교NGO 단체를 위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일반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번 불교박람회에는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한국 외에도 아시아불교국가들의 다양한 용품과 문화를 교류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지난해에도 홍콩불교박람회와 파키스탄, 티벳 등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엑스터트 박철희 대표

"앞으로 불교박람회가 호남뿐 아니라, 한국불교계의 큰 공동행사로 발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후손에 돈보다 환경 물려줘야

불교생명윤리협회 창립 주역 진옥 스님



불교 생명윤리 실질적 이끌어
4대종단 세미나 등 개최

3월 1일, 지구적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불교계 전문 단체인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 박광서, 이하 생명윤리협)가 창립됐다.

생명윤리협의 대표격인 위원장은 진옥 스님이 내정돼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창립 당일 병환을 이유로 위원장직을 고사했다. 행사 전까지 생명윤리협 창립을 주도한 진옥 스님을 여수 석천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진옥 스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유한한 지구의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욕망은 도리어 인간과 다른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이성적으로 자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학술활동과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창립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태평양지역에 방사능이 평소 기준치의 1000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한번 누출된 원전 방사능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그 피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공멸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반도 또한 원자력 사고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원전 사고의 원인을 인간의 과도한 욕망에서 찾고 있다. 즉,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석탄과 석유에 한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원자력까지 이용하게 되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진옥 스님은 "자본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자원을 대량으로 사용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며, "석유와 석탄 외에 풍력, 태양력, 조력 같은 대안에너지만으로는 지금의 소비활동을 감당할 수 없으며, 결국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주의는 인간과 모든 생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스님은 자본주의 가치관의 현실적 대안으로 '불교의 무소유와 연기적 가치관'을 꼽았다.

생명윤리협은 향후 이 같은 현실 인식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학술적 결과물을 만들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출발이 정기적 세미나 개최이다. 첫 번째 세미나는 1일 창립식에 이어 '탈핵과 생명'을 주제로 개최한다. 생명윤리협은 1일 창립세미나에 이어 3월 26에도 '생명과 탈핵'을 주제로 개신교 가톨릭 등 4대종단 합동세미나도 개최한다.

특히, 생명윤리협은 "1개 사찰을 기업과 연대해 독립에너지로 생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또, 대기업과 국가 단체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일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살기위해 후손들이 쓰레기더미 위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후손에게 돈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4-H연합회 나눔실천

고창군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550kg) 전달

전북 고창군4-H연합회(회장 김대환)는 2월 24일 선운사가 위탁운영 중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고창군노인복지센터 등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을 방문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사랑의 쌀(550kg)'를 전달하고 식사배식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대환 회장은 "오늘 전달한 쌀이 복지관을 찾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4-H연합회는 지난 2011년 6월, 사랑의 쌀 550Kg 후원을 시작으로



복지관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날 전달된 쌀은 복지관을 이용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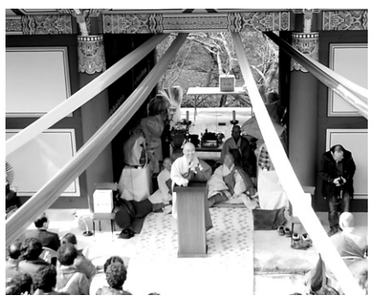
무등산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광주시민과 불교를 수호하기 위한 사천왕이 무등산에 모셔졌다.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2월 24일 사천왕문 복원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영조 스님(前 송광사 주지),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해 신도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증심사 사천왕문은 1609년에 중창한 정문누각 취백루 1층에 자리했지만 6 · 25 전쟁때 화재로 소실됐다.

한편, 증심사는 28일 연광 스님이 새 주지로 부임했다. 스님은 송광사 총무, 화엄사 승가대 학감 등을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불련 전북지부 리더연수 개최

대학생불자연합회 전북지부(지부장 최경선, 전북대 2)는 2월 25~26일 군산 동국사에서 2012년 리더연수를 겸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불련 전북지부 소속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대불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학생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증진과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시작될 새학기를 맞아 새내기 포교활동을 위한 전략 마련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리더연수에 참여한 대불련 임원들은 법회운영에 대한 교육과 목탁실수, 발우공양 습의, 108참회, 사찰 전각에 대한 이해등의 연수과목을 통해 청년불자들의 최일선에서 활동할수 있는 자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입재식에서 동국사 종걸 스님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은 대불련이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 청년불교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불련 중앙회장을 역임한 이인근 학생은 "지역 대불련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불교발전에 대불련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주 길조암 지장노천대불 점안

성주 길조암(주지 보현)은 2월 25일 노천 지장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땅을 버텨주시는 묘한 깃발의 끝없는 그 마음'을 간직한 노천 지장대불의 점안법회에는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생활불교 조계종 원로원장 법령스님을 증명법사로 봉안됐다.

길조암 주지 보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금 할 일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해 준 대중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경찰청장 취임축하 기원법회

대구지방경찰청장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가 2월 28일 대구경찰청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경승단과 법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경승실장 활중 스님, 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불자 경찰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성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김인택 청장이 우리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평안하고 안락한 지역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878호 '대한불교조계종종정협의회'를 '대한불교종정협의회'로 바로잡습니다.

2012학년도 전통범음 · 범패연구원 **신입생 모집안내**

불교의식은 불교학문과 더불어 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법한 불교의식이 곧 수행의 연속이라는 걸 불제자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의식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본 전통범음 · 범패연구원의 설립목표는 부처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으며 한국불교의 얼이 담겨져 있는 불교전통의식을 기초부터 상주권공(범음 · 범패)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의 신입생 모집은 각종 불교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승, 속, 종단, 종파에 관계없이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고 또 불 · 보살님 전에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음성공양인 범음 · 범패와 작법무, 각종 불공, 천도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입 학 안 내 ❖

1. **모집과정 :** 범음 · 범패 과정(상주권공)
2. **입학대상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3. **교육기간 :** 2년 과정(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4.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 전남 종무원
5. **연 락 처 :** 총 무 010-2073-5070 / 062-365-5000
   종무원 062-375-1820 / 062-381-0944
6.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번지
7.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이상 본 연구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8. **접수기간 :** 불기 2556년 (2012) 2월 1일(음 1. 10) 수요일부터
   3월 3일(음 2. 11) 토요일까지
   (청강생,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9.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12년 3월 9일(음 2. 17) 금요일 오후 12시

※강 주 : 상진 스님 (前 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 現 안정불교대학 범패학과 강주)
※강 사 : 혜광 스님 · 도원 스님

❖ 강 의 내 용 ❖

	1학기	2학기
1학년	◈ 기초 과정 ◈ 기 초 : 목탁잡고 치는 법, 요령흔드는 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전통범음)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 불 공 : 삼보통청의식 축원 시 식 :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상주권공 : 초할향, 등게, 합장게, 개계, 쇄수게, 복청게 ※ 막바라(요잡바라 기본과정)	상주권공 :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헌좌게 작 법 : 천수바라, 착복(나비춤), 요잡바라 등 ◈ 천도의식 본 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2학년	◈ 천도의식 본 과정 ◈ 봉송, 회향, 공덕게 ▶ 관욕태징,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다게작법, 천수바라, 사다리니바라, 욕건이(소리춤), 운심게(소리춤), 가지게(소리), 화청, 축원화청	◈ 시현회 준비 ◈ 〈재채비, 사물다루는 과정〉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징, 북) 2. 작법 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등 작법실습) 3. 특 강 : 재학생들의 요구 사항 및 점안의식, 생전예수 생칠일재등에 관한 의식실기 및 설명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 전남 종무원
전통범음범패연구원 원장 호 산 강주 상 진

정혜결사는 계정혜 제대로 공부하자는 운동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⑧

계정혜(戒定慧)

자성정혜

자성정혜에서 정혜는 '계정혜(戒定慧)'의 준말이다. 계정혜 삼학(三學)은 불교의 대표적인 교설이다. 그만큼 초기불교 이후 아비담마 불교, 대승불교, 선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논의되어 왔다. 보조지눌의 정혜결사도 따지고 보면 계정혜 삼학을 제대로 공부하자는 수행 공동체 운동이다. 인간의 정신적 건강에 정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에서 발생된 교육학이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정의(知情意)란 개념이 있다. 지(知)는 인지나 지적인 측면을 말하고, 정(情)는 인간의 가슴과 관련된 정서의 측면이라면, 의(意)는 동기와 의지의 측면을 가리킨다. 의지는 계(戒)와 연결된다. 계란 인간이 지켜야할 윤리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의도와 의지로서 지켜할 부분으로서 생활의 일부이다. 정(定)은 마음의 평정으로서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된다.

계는 잘못 막고 악 그친다는 뜻
정은 이치에 맞춰 산란심 거둠
혜는 미혹을 깨뜨린다는 의미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과 불안과 같은 감정에 휩쓸리면 고통스럽다. 마음의 고요는 정서적인 안정이나 조화로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혜(慧)는 지혜이지 결코 지적인 측면은 아니다. 반면에 심리학에서 지(知)는 인지적인 측면에 속한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지만, 혜가 보다 깊은 내적 본성에 연결된 개념이다.

우리는 지적으로 어리석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삶의 질서는 무너져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은 명상수행에서 계정혜 삼학을 강조하고, 교육자나 심리학은 지정의의 계발을 강조해 왔다.

전통적인 의미

정혜에 대한 논의는 불교학뿐만 아니라 선불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다. 정혜결사를 주창한 보조지눌의 경우도 계정혜를 강조하고, 선불교에서 정혜에 대한 해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통적인 계정혜에 대한 개념을 〈익진기(翼眞記)〉를 인용하면서 제시한다.

"계(戒)는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친다는 뜻으로서 삼학도(三惡道)에 떨어짐을 면하게 한다. 정(定)이란 이치에 맞추어 산란한 생각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으로 욕심을 뛰어넘는다. 혜(慧)란 법을 가리어 공(空)을 관한다는 뜻으로 생사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기서 보듯이 〈익진기〉의 관점은 계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봉해하는 것을 말하고, 정이란 마음의 산란을 거두어들이는 수행이고, 혜는 미혹을 깨뜨린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해석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비달마적 의미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비달마의 논서인 〈아비달마집이문족론(阿毘達磨集異門足論)〉에서 보면, 지(止, samatha)을 '산란함을 거두어들여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一境]에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관(觀, vipassan?)에 대해서는 '법을 잘 간택(揀擇)하여 지혜로서 관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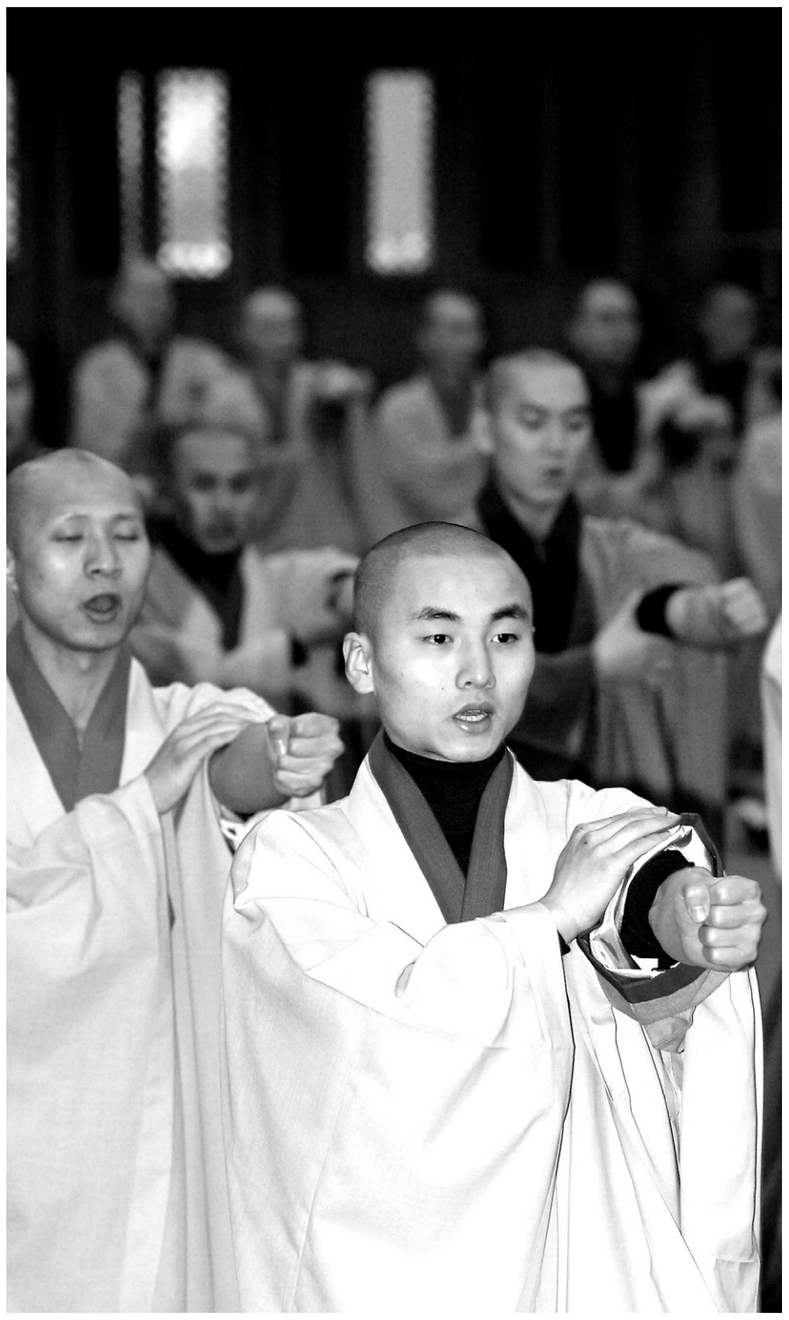
사마타는 처음 선정을 닦는 때를 말하고, 위빠사나는 지혜의 출발이다. 처음 명상 수행할 때는 지관이라 하고, 지관(止觀)이 좀 더 성숙하고 깊어진 상태가 되면 정혜(定慧)라고 부른다. 지관과 정혜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계열의 술어로서 그 깊이에 따라서 달리 이름을 할 뿐이다. 명상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름과 개념 정의는 마음의 계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점을 함축한다. 곧 계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봉행하는 것이요, 정이란 산란함을 고요함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라면, 혜는 어리석음을 깨뜨려서 지혜를 계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의 정혜는 과정이 있고 점진적인 모양이 있고 일정한 정도의 노력이 요청되고 일상에서의 경험이 함께 작용한다.

선불교에서의 이해

계정혜의 삼학이란 주제는 역시 선불교에서도 핵심된 과제이다. 이런 논의는 선불교의 대표적인 어록인 〈육조단경〉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 〈육조단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수와 혜능의 대립된 게송은 바로 정혜와 관련된 수행에 대한 해석이다. 주지하다시피 신수의 게송은 마음이란 거울에 때가 끼어있기에 매일 닦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혜능의 게송은 본래 마음의 거울이 없어서 닦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번뇌가 존재하는가 하는 여부이다. 번뇌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혜능의 돈오(頓悟)이고, 번뇌가 존재하기에 점차로 닦음에 의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신수의 점수(漸修)이다. 양자를 통합하는 방식이 바로 보조의 돈오점수(頓悟漸修)이다. 보조는 일단은 먼저 남종선의 돈오사상을 먼저 계승한다. 그러면서 정혜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이치에 들어가는 문[頓悟]은 선정과 지혜가 서로 다름이 없다. 그 요점은 자성의 바탕과 작용의 두 가지 뜻이다. 이는 공적영지(空寂靈知)가 바로 그것이다. 선정은 바탕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바탕의 작용이 지혜이니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작용하는 바탕이니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이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선정이기에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삶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계정혜 삼학의 수행정진은 필요하다.

선정과 정혜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곧 근본적인 마음의 정혜등지(定慧等持)이다. 정혜가 같은 내용이라는 말은 바로 마음의 본질은 결국 공적하고 영지이기 때문이다. 공적은 선정이요, 영지는 지혜이다. 이런 점에서 〈수심결〉에서는 정혜등지(定慧等持)라 하고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에서는 정혜쌍수(定慧雙修)란 표현을 사용한다. 초기불교 전통에서는 선정과 지혜는 별도로 논의가 되기도 하고, 함께 논의하기도 한다.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분명하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보조국사는 이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양자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고, 양자를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심리학적인 기반은 바로 대승의 불성, 자성, 영성사상이다. 선정과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고 본성의 긍정적인 자질이라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육조단경〉에서 분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마음에 잘못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은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은 자성의 혜이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계정혜 삼학은 계발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면에 갖추어진 자질이다.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

禪의 자성 견지에서는 마음에 잘못없음이 계, 산란없음이 정 어리석음이 없음이 혜라고 설명

견해야할 대상이다. 이렇게 정혜는 이미 우리의 본성, 자성에 갖추어진 까닭에 '자성정혜(自性定慧)'라고 부른다. 〈육조단경〉의 관점은 마음의 자성에는 제거하거나 수정해야할 악, 산란, 미혹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텅 비어 신령스럽다. 이것이 자성에 기반한 돈오적 명상수행이다.

북종 신수(神秀)의 관점은 더렵혀진 마음을 인정하고 점차로 깨끗한 근본 마음으로 전환시켜가는 관점이라면, 남종의 ??육조단경??은 처음부터 곧장 깨끗한 자성에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이를 계승한 보조국사는 마음의 자성은 본래 고요하고[心性本定], 번뇌는 본래 존재하지 않음[煩惱本空]의 자각, 돈오에 의지한 수행이 참된 수행[眞修行]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고 번뇌는 공한 줄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수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악을 끊으면서도 끊은 바가 없고, 선을 닦으면서도 닦는 바가 없어야 참된 닦음과 끊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조국사는 〈육조단경〉의 경우처럼 점수를 철저하게 묵살시키거나 잘못된 수행으로 배제시키지 않는다. 초보자에게나, 전문 수행자에게도 여전히 방편적이고 치료적인 대치의 뜻[方便對治義]이 있음을 인정한다. 보조국사는 언제나 자성에 기초한 돈오에 기초하여 제대로 수행하여야 잘못된 병통이 없음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번뇌가 오랜 습기에 말미암아서 금방 제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까닭에 점수적인 방편을 놓을 수가 없음을 말한다. 자성정혜는 돈오적인 입장이고, 수상정혜는 점수적인 이해이다. 수상정혜(隨相定慧)는 '이치에 맞추어 산란을 거두고 현상을 선택하여 공(空)을 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가는' 방식의 수행법인데 반하여, 자성정혜는 자성에 근간을 둔 정혜로서 돈오적인 입장이다. 결국 〈수심결〉의 돈오점수는 자성정혜의 입장에서 수상정혜를 수용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돈오와 점수를 함께 인정함으로써 논리적으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보조국사는 오히려 논리보다는 현실적인 근거에 보다 충실한 입장을 선택한다. 자성정혜는 혼침과 산란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수상정혜는 오랜 습기에 의한 혼침과 산란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수심결〉에서는 근기와 자성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한다. 돈오에도 뛰어난 근기와 이 보다는 낮은 보통의 근기가 있다고 본다. 근기가 낮은 이는 깨달은 이후에도 '점차적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의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하더라도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공함을 먼저 깨달았으므로, 점수의 낮은 근기의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자성정혜의 돈오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성품은 그 자체로 공적한 영지(靈知)이므로 비록 수상의 대치방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이나 의혹이 없어 물들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설사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번뇌와 산란이 존재하는 대치적인 의미는 다시 그것에서 의혹과 집착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상수행은 깨달음의 돈오에 의지한 수행이여야 참된 수행이라고 말한다. 〈끝〉


명상상담연구원장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 욕건이
-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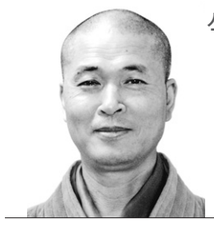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느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서 그 소식을 들었느냐?"

問 如何是西來意 師云 什麼處得者消息來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달마가 서쪽 인도에서 올 때 가지고 온 부처님의 뜻을 말한다. 본 〈조주록〉에 이 질문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선객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도에 근접한 선사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오는 사람에게 매번 다 똑같은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르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활조의 지시이다.

나는 예전에 통도사 조실을 참방한 적이 있었다. 당시 조실스님께 "왜 요즘 우리나라 선사들은 옛사람의 공안만 똑같이 줍니까?"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조실스님은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서 그러는 거야"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조실스님이 내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알게 되었다.

화두는 어떤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답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릇에 맞게 활용할 뿐이다. 조주 스님은 '조사서래의'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대답했다. 이번 질문도 "도대체 어디에서 그따위 소리를 들었느냐?"고 되물음으로써 학승에게 뭔가 가르쳐주려고 했다. 이 조주 스님의 뜻을 내게 묻는다면, 나는 주장자 1방을 내리겠다. 이제 알아듣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세속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염전(茶 · 塩 · 錢)을 보시해 주려고 오네."

問 如何是塵中人 師云 布施茶鹽錢來

불교는 평등을 말하는 종교이다. 그런데 평등이라 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평등은 다름 속에 평등이다.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살고, 동물은 동물의 생을 사는 것이 평등이다.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되는 것은 평등한 일이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 또한 평등한 일이다. 도예가가 그릇을 굽는 것이 평등이고, 스님은 탁발해서 먹고 사는 것이 평등이다. 만일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사람이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만, 평등하게 대접하고 평등하게 존중받는 정신이 불교의 평등 정신이다. 설사 누가 청소부의 일을 한다고 낮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종정이 되었다고 높은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이라고 위대하고, 중생이라고 하찮다고 생각하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가 누구이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평등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존중하는 정신이 평등정신이다.

학인이 무엇이 '세속에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다. 조주 선사는 "그들은 차나, 소금이나, 돈을 보시하려고 오는 사람일뿐"이라고 간단히 대답해버렸다. 그렇다. 세속인은 승려들에게 다염전을 보시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세속인이 승려에게 할 일이다. 세속인은 승려를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공양을 올린다. 그리고 승려는 세속인을 위하여 모범되는 행동과 좋은 법문을 들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평등이다.

학승이 물었다.
"대이 삼장이 세 번씩이나 국사(國師)의 소재를 알려고 했으나 결국 알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도대체 국사는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삼장의 콧구멍 속에 있어."

問 大耳三藏第三度覓國師不見 未審國師在什麼處 師云 在三藏鼻孔裡

여기서 국사는 남양 혜충(南陽 慧忠) 국사를 말한다. 대이 삼장(大耳 三藏)은 인도에서 온 삼장법사였다. 대이 삼장은 타심통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세 번씩이나 혜충 국사를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학인이 이 이야기를 들고 조주 스님에게 도대체 국사가 어디에 있었기에 찾을 수 없었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삼장의 콧구멍 속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뜻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대이 삼장은 숨 쉬는 곳에 있다"고 말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4〉

苦에서 벗어나 해탈로 가는 네가지 진리

붓다 최초 설법 사성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이 사성제(四聖諦)이다. 각자(覺者)가 된 부처님 법문이 처음으로 세상에 울려 퍼진 것이다. 최초의 가르침인 만큼 중요한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사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고(苦) · 집(集) · 멸(滅) · 도(道)를 가리킨다. 당시 인도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병의 상태, 병의 원인, 회복, 치료방법의 네 단계로 나누어 진단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의학적 체계를 적용해 사성제를 설명했다. 즉, '고(苦)'는 병자가 몸에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과 같고, '집(集)'은 병의 원인 이며, 멸(滅)은 병이 치료된 상태이고, '도(道)'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네 가지는 부처님에 의해 진리로 선언됐다. 진리는 사성제의 '제(諦)'에 해당되며 산스크리트어 사트야(satya)의 한역이다. 사트야는 '어떠한 것도 반드시 실현되는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은 현실 세계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苦諦],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애착이라는 진리[集諦], 괴로움을 극복한 해탈이 존재한다는 진리[滅諦], 해탈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道諦] 이렇게 네 가지 진실이 현실세계에서 실현되고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진리가 인과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설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통찰해야만 네 가지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제는 인간이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태를 바르게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괴로움을 판단할 때도 있고, 타인의 괴로움을 진단할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던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괴로움을 괴로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고뇌하는 것은 바르게 괴로움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간파하는 것을 말한다. 괴로움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이 외부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마음속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또 그 괴로움의 원인은 '욕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멸제는 괴로움이 사라진 이상적인 상태를 뜻한다. 즉 열반의 상태이다. 열반의 상태는 고제와 집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멸제로 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이다.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인 '집(集)'을 제거함과 동시에 고와 집을 일으키지 않는 환경과 심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론이 바로 정견(正見)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념(正念) · 정정(正定) · 정사유(正思惟) · 정정진(正精進)의 팔정도(八正道)이다.

팔정도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수행방법이다. 팔정도의 수행은 괴로움을 없애가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폐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단지 결핵균만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에도 영양을 보충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⑨



자유로울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장로니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작가의 책이던가?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말, 그렇다. 나는 무엇을 사는가? 우리 이웃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삶의 원동력에 대한 이 화두를 다시 되새겨봄 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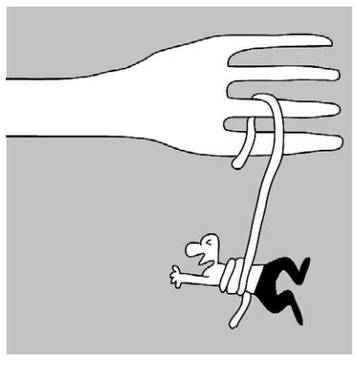
돈? 명예? 권력? 사랑? 혹은 자기실현? 저 옛날 인도의 성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다섯 겹으로 된 양파껍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제일 밖에 있는 껍질은 음식(anna)이다. 먹는 것은 물질이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단계에 속하리라. 다섯 번 째 껍질을 벗기고 나면 남는 것은 바로 기쁨(ānanda)이다. 가장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 즉 진실한 자기(ātman)를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본 것이리라.

〈우파니샤드〉라는 책을 남긴 사람들의 사고가 그랬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 자유! 자유라고 말한다. 의외가 아닌가? 우리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기만 한다면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쉽게 생각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외적 조건이 잘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

〈비구니의 고백(Therigātha)〉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여인이 있었다. 이미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다. 친정에 와 있는 딸이 안쓰러웠던 아버지, 오죽 답답했을까. 탁발을 온 한 수행자를 포섭한다. "당신이 내 사위가 되어 주십시오. 누더기와 발우는 버리시고." 이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에 공감되었던 것일까, 신부지참금에 현혹된 것일까, 아니면 미모의 여인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일까. 이 탁발수행자는 누더기와 발우를 버렸다. 그 불행한 여인의 세 번째 남편이 되어준다.

그런데 이 탁발 수행자는 오래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 겨우 반달이나 지났을까. 장인에게 말한다. "저의 누더기와 발우, 물병을 돌려주십시오. 먼저처럼 탁발생활을 하겠습니다."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로서도 그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리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여인의 아버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우리가 자네를 위해 해주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항변하기도 하고, "자네를 위해 더 할 일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주게"라며 사위를 붙들고자 했다.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의 대답이었다. 다른 것은 다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 자유만은 공급해 주지 못한 여인의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수행자를 잡지 못하였다. 그뿐이던가. 딸마저 그 자유를 향하여 떠나려고 한다. 이미 그 여인은 세 번이나 결혼을 실패하지 않았던가. 남자, 라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세우려는 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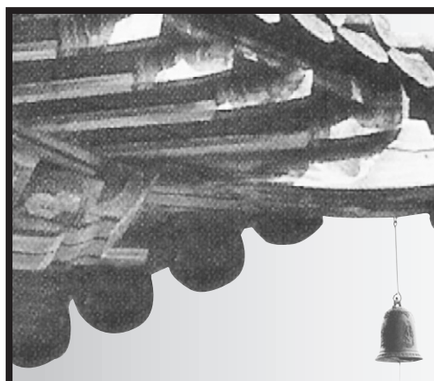


실패임이 분명해 졌다. 독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분이 바로 이시다시 비구니이다. 스님은 "출가한 지 7일 만에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었다."

〈비구니의 고백〉(민족사, 297쪽)을 읽으면서, 나는 이시다시 스님의 이야기보다도 탁발수행자였던 남편이 다시 길을 나서면서 외친 이 절규에 더 오래 붙들려 있었다. 그 절규가 내 마음을 쳤다. 그가 추구한 자유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을 뜻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게는 또 다르게 읽혔다. 즉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 중에 음식 등의 물질적 조건과 자유라는 이름의 정신적 조건이 다 필요하다는 것. 아니, 아무리 물질적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조건인 자유가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외부적 조건으로만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는 것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불국사 영지에는 아사달·아사녀의 슬픈 전설이…

영지(2)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는 영지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야기인즉슨 불국사에 석가탑을 만들고 있는 아사달을 찾아 온 아사녀가 불국사 스님이 일러준 대로 못에서 탑의 그림자가 비치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아 못에 몸을 던져 죽었고, 탑 조성을 마친 아사달 역시 아사녀를 따라 못에 빠져 죽었다는 애달픈 사연이다.

경주사람들은 불국사가 자리 잡은 토함산이 멀리 보이는 방어리와 괘릉리에 걸쳐 있는 영지못을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를 간직한 영지로 보고 있다. 영지주변에는 아사달이 아사녀를 그리며 조각했다는 석불좌상도 있다. 그러나 이 영지는 불국사 석가탑의 그림자를 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불국사 구품연지를 영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구품연지는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발굴당시 유구에 고인 빗물에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특히 구품연지 상단에 지은 건축물이 범영루(泛影樓)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구품연지에 범영루의 그림자가 투영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불국사구품연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감흥을 기록한 글을 보면 구품연지가 영지로서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먼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쓴 '불국사'라는 시에는 "돌 다듬어 만든 계단 작은 연못 누르듯, 높고 낮은 누각들 잔잔히 아롱지네"라는 구절이 있다. 초의 선사가 1817년에 쓴 〈불국사회고〉에 실린 시에도 "승천교 밖의 구련지에, 칠보누대 아롱지고, 무영탑의 그림자를 보노라니, 아사녀가 와서 보는 듯하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보면 구품연지가 연지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영지로서의 기능도 더불어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으로 볼 때, 불국사 구품연지는 탑영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사달 조성 석탑있는 방어리 보다
구품연지가 설화 간직한 못 일수도
김시습·초의 스님 글 가능성 보여
구품연지 복원하면 탑 비출 듯

멀리 지리산 칠불사에도 영지가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하동지'에는 칠불사에 대하여 "칠불암(七佛庵)'은 삼신동(三神洞)에 있는데, 옛 이름은 운상원(雲上院)이다. 또 진금륜(眞金輪)이라고도 부른다"고 적고 있다. 칠불사 영지는 절 앞마당에서 150m 정도 아래 길가에 있는데, 둥근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한때는 연못가에 호랑이가 출몰하기도 할 정도로 갈대가 무성했었다고 하며 6·25전쟁 이후에는 매몰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곳은 허황옥(許黃玉: 김수로왕의 왕비)이 절에서 수도하고 있는 일곱 아들이 보고 싶어 운상원을 자주 찾았지만 오빠 장유화상이 "왕자들의 불심을 어지럽힌다"고 하여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네 아들들이 성불(成佛)했으니 만나 보라"며 이 못을 가리키자, 황금빛 가사를 걸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곱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설화의 내용대로라면 칠불사 영지는 창건당시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역사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단지 〈하동부읍지〉에 "칠불암 앞에 영지가 있다"고 적고 있어 칠불사 영지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존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둥근형태가 원형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없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원형의 못은 통도사 영산전 앞에 있는 원형지가 있으나 이 못 역시 통도사에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칠불사에는 요사채 앞에 새로 만든 원도방지형(圓島方池形) 못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만든 것이다.



칠불사 경내에 새로 만든 원도방지형 못



구품연지 발굴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하동부읍지에 전해지는 원형으로 만든 칠불사 영지



아사달이 아사녀를 그리며 만들었다는 석불좌상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는 영지



구품연지 발굴당시의 사진

무병장수의 꿈 마침내 현실화!!

명의(名醫), 부활하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전통천연물의학大백과–



2012년 최신간

권혁세(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저/ 전3권/ 4×6배판/ 컬러판/ 양장본/ 3,600쪽/ 통케이스/
출간홍보 보급가 32만원(정가 40만원)/ 현금할부 11만원×3회/ 신용카드 가능

세상 수많은 질병에 대한
천혜의 해법, 모두 찾았다!

어쩌면 밟고 지나쳤을 작고 소박한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놀랍도록 절묘한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해(圖解)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다양한 이용법 등
전통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이 응축된 경탄할 치유력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손쉽게 가용(家用)토록 함은 물론
한계를 넘는 또 다른 생명과학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한
우리 시대 가장 가치 있는 기념비적 위업의 하나!

곁에 두는, 가장 지혜로운 주치의!
난치·불치의 벽을 혁파해온 위대한 명의!!

1권 약초 편
그 자체로 혹은 응용으로, 수많은 치료법 및 신약의 획기적 질료가 되어온 1천 종류 약초의 사진 및 생태·특징·채취취급요령·효능·성미·독성·사용량·사용부위·범위·용법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 정리, 완성도 높은 본초학 도감으로 꾸몄으며 각 권과 연계 활용케 함.

2권 처방 편
각 질병의 원인·증상 설명과 함께 의료문명의 지향점에 이미 놀라우리만치 닿아있는 이상적 치료법으로 구명(究明)되며 마침내 인류의학의 희망으로 부활한 전통민간요법 질병치유사상 최고의 처방을 약재별로 제시(1천여 질병, 22,600여 처방), 택해 쓰도록 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성을 아울러 꾀함.

3권 조제 편
양생 및 병리 연구의 선각자들을 비롯 민가, 의가(醫家), 사찰 등에 비전되며 체험자에게 균형잡힌 건강장수를 실현시켜온 각종 주침(약술)·탕전·약차·식이 요법 등, 재료별 약리성에 근거한 정교한 생리활성 과학이었던 다양한 응용 치유법의 진수 2,600여종 조제법 및 비방 총망라.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세요. 천금으로도 살수 없는 가치를 발합니다"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국내 최초의 제대로 된 방대한 본초학 교본이자 한의사들이 토종약초를 이용해 난치병 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실상부한 전통약초요법대전으로서 민간이나 학계에서 그 활용가치가 지대할 것이다"
–장일무(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 ·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방방곡곡을 도는 끝없는 채집 기록 비교분석 검증…한 연구가의 60여년에 걸친 비범한 집념과 공력의 산물인 본 대전은 인류 숙원인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이라 할 만 하며, 향후 또 다른 질병치료 및 신약·기능식품 등의 개발에 매우 요긴한 단초가 될 것" –김남훈(한국의약신문 발행인)–
▶"생명을 낳고 문명을 기른 자연과 전통이란 근원에서 해법 또한 찾아낸 괄목할 모범사례로서, 약용 동·식물·광물 등 주변의 천연소재에 내재된 각각의 독특한 약리성을 이용한 뛰어난 예방·치료법을 일반 가정에서도 폭넓게 공유토록한 점, 정밀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해진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인류가 보완을 거듭해 도출한 최선안에 이미 선착(先着)한 점단적 의료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전통 천연물요법들이 한 불굴의 정신에 의해 정립됨으로써 작금의 현대의학이 처한 난제(難題)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대체보완의학 연구 등에 기여도가 클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 널리 이로울 성과물" –조호현(출판인)–
▶"고도의 면밀함을 요하는 참으로 지난했을 대역사(大役事), 아마도 이후 어떤 노작(勞作)도 이에 미치기는 힘들 것" –김형석(약초연구가)–
▶"쉽고 간단한 처방이면서도 경이로운 치유력을 보이는 천혜(天惠)의 의술, 그 소박한 그러나 위대한 생명활성 지혜들을 완전 복원해냄에 따라 건강 장수하는 이상적인 삶의 보편화를 우리 당대로 앞당기는 일대 전기가 될 것" –전통의학신문–
▶"천하의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 –권혁세(저자)–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검토 후 송금하시면 됨.('알라딘'에서도 판매 중)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오래된 이름 오래된 그리움과 만날 수 있다

26 순창 구암사(龜巖寺)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새소리 바람소리도 가파르게 들려온다. 산길과 친해질 때 쯤 작은 부도밭을 만났다. 낙엽 위에 서있는 이름은 '정관', '설파', '백파.' 아! 그 이름들이 거기 있었다. 돌담 하나 두르지 않은 부도 3기의 부도밭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부도밭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발길을 잊은 '숲'이었다. 도량이 보인다. 구암사다.

주지(지공) 스님이 방문을 연다. 작은 도량. 객이 하나 왔을 뿐인데. 도량은 금방 태가 난다. 법당 하나. 지붕 위로 구름 하나. 오늘은 객이 하나. 찻잔 앞에 앉았다. "스님, 구암사에 오래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히 구암사에 계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스님이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침묵이 차 한 잔을 마셨다. 빈 찻잔에 다시 차를 채운 스님은 먼 시선 끝에다 말을 붙였다. "뭐, 갈 곳이라는 게, 살 곳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요…."

구암사는 고창 선운사의 말사로 623년(백제 무왕 24) 숭제 스님이 창건했다. 1392년(조선 태조 1)에 구곡 스님과 각운 스님이 중창했고, 태종 때 구암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세가 점점 번창했으나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됐다. 구암사가 사세를 다시 일으킨 것은 영조 때 설파 스님과 상언 스님이 머물면서부터다. 백파·정관·설두·유형·설유·처명·학명 그리고 석전과 운기 스님까지. 구암사는 인재로 넘치는 도량이었다. 특히 석전(박한영) 스님은 출가와 재가를 아울러 많은 인재를 길렀다. 이광수 최남선 신석정 조지훈 서경보 청담 그리고 운허까지. 종교를 떠나 한 시대의 지성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도량은 다시 소실됐다. 1973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침묵 사이를 오가던 스님의 이야기가 어느새 설파에서 시작해서 운허까지, '구암사'를 쓰고 있었다. 스님의 언간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구암사와 스승들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다.

인재로 넘쳐나고 살림도 지금 같지 않았던 도량은 객이 하나만 들어도 표시가 나는 작은 도량이 되어 있었다. 찻잔을 비운 스님은 방을 나와 마당을 거닐었다. 툇마루에 앉은 객은 마당을 걷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석전도 만나고 추사와 청담, 운허까지 만난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만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그리움과도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말없이 마당을 거니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잊혀진 구암사를 볼 수 있었고, 스님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도량 끝에 선 스님은 부도밭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립고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구암사에 가볼 일이다. 도량 끝에 선 스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오래된 이름과 훨씬 더 오래된 그리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립고 부르고 싶은 이름과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산길을 내려간다. 다시 만난 부도의 이름은 이제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침묵이 차를 마시듯 누군가의 그리움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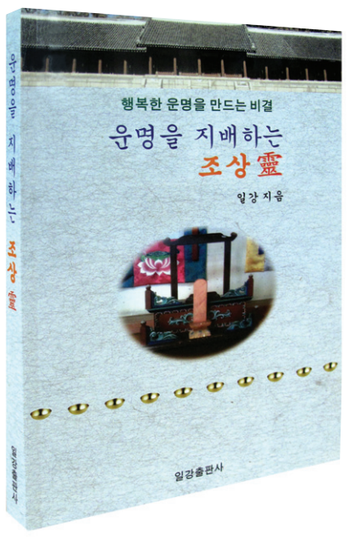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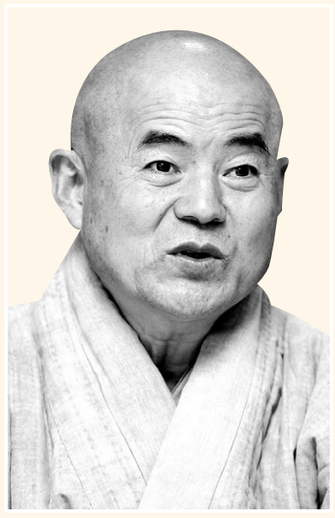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⑦ 대불련의 내일을 위한 제언

포교방향 재정립 '관심과 지원'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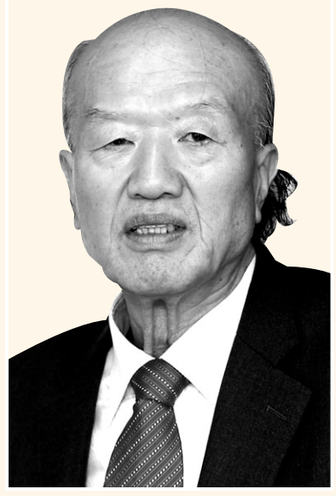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지성화에 기여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은 대학생 포교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밑거름임에 틀림없다. 대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특단의 대책과 묘안을 찾기 위해 대불련 중앙지도법사 혜국 스님,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신호철 대불련 초대회장에게 대불련의 발전 방향 등 애정 어린 의견을 들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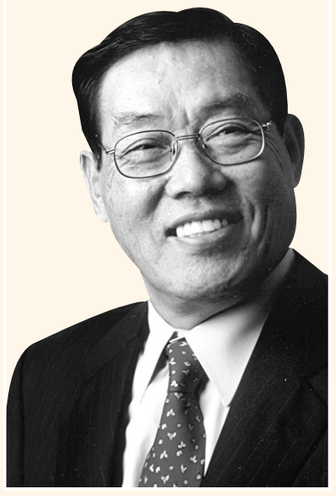
혜국 스님

대불련에 종단 초월한 관심 애정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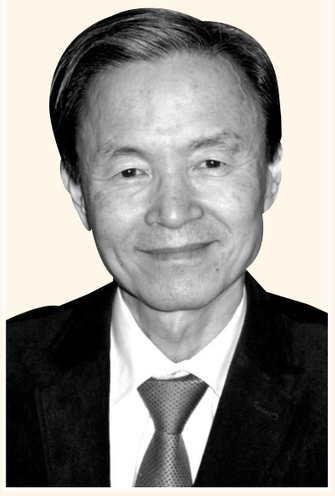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총동문회서 주요대학 결연 교불련도 책임법사 파견을



신호철 초대회장

젊은 불자 콘서트, 불교트위터 등 포교 다각화해야



윤재철 총동문회 회장

젊은 불자 육성대회 개최 후견인 역할 보다 충실할 것

Q: 현재 대불련은 각 대학 불교동아리의 활동이 쇠퇴하는 등 위기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의 미래인 청년 불자들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불련이 창립 당시의 활발한 활동과 같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신호철 대불련 초대회장 = 대불련이 위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 모임이 평균 10명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취업준비에 돌입하는 등 졸업 후 먹고 살 궁리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정신적인 자아완성을 지향하는 불교의 고차원적인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대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대학 불교학생회 활동을 범불교계에서 적극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모두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혜국 스님 = 대불련 위기는 대불련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세기 이후 물질문명이 정신문화를 앞질러 가는데 따른 총체적인 인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대불련에 대한 관심 부족 요인이 큽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따라야 합니다.

고준환 교수 = 한국불교가 중흥하려면 조계종과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비약적 발전이 요청됩니다. 대학생 불자연합체인 대불련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과 종립대학간 연계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대불련은 회장과 사무총장 등 구심력 역할을 할 사람들이 혁명적 결심으로 역량을 모아 전심전력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Q: 대불련은 90년대 이후 불교계의 크고 많은 사태를 겪으며 수차례 사무실 이전하는 등 조직 구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직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 = 최근 조계종에서 대불련이 산하단체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종단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활동이 모두 위축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생들이 종교 이념 활동 보다 취업준비에 더 바쁘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은 하는데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불련 활동이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혜국 스님 = 종단을 넘어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심도 깊은 고민을 할 때입니다. 대불련은 불교의 미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돌아오는 오늘'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준환 교수 = 조계종을 비롯한 제종단이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주요대학들과 결연을 맺고 자금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와야 합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각 대학생불교회에 교수불자를 책임지는 법사로 파견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신호철 초대회장 = 종단의 훌륭하신 스승님들과 각 대학 지도교수단, 대불련 출신 선배단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각 대학에 정기적으로 불교사상강좌 또는 젊은 불자 콘서트를 개최해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고민을 상담하여 확고한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학가가 최근 개학을 했습니다. 대불련이 신세대 불교에 성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포교를 진행해야 할까요?

고준환 교수 = 신세대가 부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사를 초월하는 깨달음을 제시한 분입니다. 실제적인 깨달음을 불교생활 운동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불교는 최첨단 현대과학을 2600년 전부터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닐스보어의 상보성 원리 등이 부처님 가르침에 녹아 있습니다. 불교가 실질적으로 생사해탈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포교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호철 초대회장 = 대학생들은 불교를 너무 고답적이고 어려운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인생살이가 곧 불교이며 누구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상구보리) 더불어 잘사는 것이(하화중생) 불교라는 심플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불교적 인생관을 갖도록 젊은 불자육성, 장학사업, 템플스테이 명산대찰, 순례행사, 젊은 불자콘서트, 수련대회, 불교 트위터 조직들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불련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교단체활동을 떠나지 않도록 조직화하고 이들이 후배 대학생불자를 지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혜국 스님 = 먼저 신세대와 부처님 가르침이 소통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포교원과 대불련이 노력해 만들어야 합니다. 포교원에서 최근 대학생 전법단을 발족했습니다. 기존의 대학생 조직을 갖춘 대불련과 대학생 전법단이 유기적인 역할을 해 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Q: 대불련이 불교계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불련이 나서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고준환 교수 = 자체조직 강화와 함께 초·중·고교 불교학생회 육성에도 나서야 합니다. 대불련은 청년 불자로서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보살정신으로 나서고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세계로 눈을 돌려 불교국가 대학생들의 모임 등을 통해 교류하는 한편 종교 갈등을 막고, 평화세계가 되도록 하는 청년 특유의 힘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신호철 초대회장 =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인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을 실천할 때 해결됩니다. 이런 사회구현에 대불련이 이바지할 것을 빌어 의심치 않습니다.

혜국 스님 =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은 오직 바다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대불련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연기법으로 승화 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갈 때 대불련은 이 사회에 앞서가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Q: 대불련은 임원들이 바쁜 학업 생활 중에도 임원기간 동안 휴학을 하고 대불련 활동에 매진하는 등 원력과 신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대불련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남기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국 스님 = 대불련의 문제는 대불련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발심수행으로 회향하고 그 회향이 사회로 다시 회향 되도록 노력합시다.

고준환 교수 = 21세기 인류의 삶은 녹녹치 않습니다. 부처님은 3난득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성불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난득을 얻었으니 대학생 불자들은 늘 감사하고 겸허하며 당당하게 정진해 3난득을 모두 얻길 기원합니다.

신호철 초대회장 = 대학생 불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를 택하고 자기수련을 열심히 하고 불교활동을 해나가는데 너무나 노고가 많을 줄 알며 사랑합니다. 선배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도와주고 격려해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불교를 택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 자성불을 확고하게 붙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 불교계와 대한민국을 리드할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온갖 꽃들이 온 산하에 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고 아름다운 중중무진한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확고한 우주관과 인생관을 확립하여 대불련이 한국불교발전에 첨병이 되어 대한민국을 가장 행복하고 잘사는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중심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 = 대불련 학생들은 최근 조계종 지원 지원 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용기와 신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욱 정진하여 장래 이 나라를 불교적 이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획연재 끝〉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 3층 목각탑
높이 85cm
가로, 세로 35cm
가격 5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세로 20cm
가격 35만원

- 黑龍의 해, 흑룡족자로 만사대길 -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에 집안 및 사업장 벽면에 흑룡족자를 걸어놓으면
힘찬 용의 기운으로 사업번창, 소원성취, 건강기원, 삼재소멸(쥐띠,용띠,원숭이띠)



⇒



용 확대사진

▣ 흑룡족자 : 폭 60cm 길이 93cm
재질 : 비단천 / 가격 3만원



▣ 오색 매듭팔찌 / 가격 2,500원
윤달이 드는 해에 다섯가지 실로 매듭한
팔찌를 합장하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 해상용왕 높이 82cm
문수동자 높이 70cm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좌우협시불)
재질 : 마블(특수불)
가격 70만원
(해상용왕, 문수동자 1set)



▣ 독성나반존자
높이 74cm
재질 : 마블(특수불)
가격 50만원

고 전 상 사

주문 문의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치는 골프 입문서 인기

저자 에드 바레인 "찰나에 지금을 선택해야…" 강조

골프는 절대적인 멘탈(정신) 스포츠이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타이거 우즈도 멘탈이 무너지니 그대로 추락하지 않는가. 골프를 칠 때 아주 조그만 요소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진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면 무섭게 잘 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골퍼들은 멘탈의 힘을 키우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 훈련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한다.

아마추어 골퍼이자 요가연구가 에드 바레인(Ed Balain, 美) 박사가 펴낸 골프 입문서 〈Buddha Play 18〉가 미국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온라인 매체 Coast News(thecoastnews.com, 이하 '코스트뉴스')는 "각 장의 서두마다 등장하는 불교 삽화와 책 전체에 걸쳐 '마음 다루기'를 강조하고 있는 〈Buddha Play 18〉이 골프 입문서 이전에 불교입문서로 각광받고 있다"고 1월 27일 보도했다.

코스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레인 박사는 "골프 팁(Tip)이며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조언을 위주로 보자면 이 책은 손에 꽉 차는 실용서이겠지만, 골프를 통해 불교는 구체적인 몸을 얻고, 불교를 통해 골프는 그 몸에 걸맞는 마음을 얻는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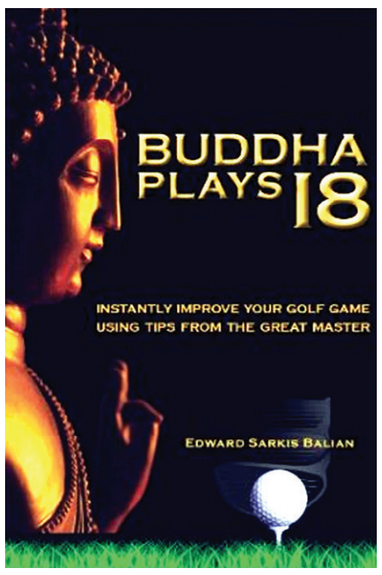
바레인은 "타이거 우즈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은 단지 재능과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마음 다루기를 소홀히 생각해 온 서구문화의 맹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와 불교는 본질적으로 '찰라'에 '지금'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따라서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다잡는 것 역시 불교와 골프 모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에드 바레인

이에 따라 코스트뉴스는 〈Buddha Play 18〉이 불교를 배우고 싶은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nongolfers)'의 불교 입문서도 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코스트뉴스는 "이 책은 골프의 기술을 소개하며 골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공부와 관련한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불교적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Buddha Play 18〉 표지

"지진 아픔을 함께"

요시오카 스님, 비정기 간행물에 핵 재난 담아

2011년 5월 핵 재앙을 당했던 후쿠시마 현의 실상을 알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근심 달래기 위해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한 스님이 화제다.

요미우리신문(yomiuri.co.jp)은 "후쿠시마 소재 엔츄지사(Entsuji temple, 円通寺)의 주지 도켄 요시오카(Token Yoshioka, 64) 스님이 지난해 가을부터 부정기 간행물을 배포, 핵 재난을 당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2월 28일 보도했다.

요시오카 스님은 지난해 가을 '핵 재앙이 없었다면, 무엇이 현존하고 있었을까?'를 제호 첫 번째 간행물을 배포하고, 후쿠시마 원전 인근 주민들, 특히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 농산물과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고난을 알렸다.

1월 1일 '칸지(kanji)'를 제호로 발간한 두 번째 간행물에서는 핵발전의 허상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Co.)을 고발하고 나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피해자들의 삶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고, 그들의 깊은 슬픔을 이제야 공감하게 되었다"는 일본인부터 "핵 재난의 위험을 감춘 채, 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구 정부의 허상을 알리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외국인까지, 비정기 간행물에 쏟는 일본 열도의 관심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엔츄지사(Entsuji temple, 円通寺)의 주지 도켄 요시오카(Token Yoshioka, 64) 스님

첫 번째 호는 4천장 발간에 그쳤지만, 두 번째 호는 1만2000장 발간됐다는 점도, 그런 관심을 가늠하게 한다.

"지난해 8월 친척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도쿄에 3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현의 핵 재앙이 왜곡되어 알려지고, 후쿠시마와 무관한 일본인들이 얼마나 무관심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후쿠시마 핵 재앙에 대해 무지에 가까운 그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일깨우기로 했습니다."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 요시오카 스님은 "오는 5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맞아 세 번째 간행물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하나 둘 문을 닫고 떠나가는 후쿠시마 소재 유치원, 10분의 1로 떨어진 후쿠시마 소재 리조트와 호텔 등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헝가리, 불교 포교 합법화 될까

'양심과 교회, 종교에 대한 법률' 의회 의결 남아

불교가 헝가리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포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

온라인 매체 보스톤닷컴(articles.boston.com)이 "헝가리 연합정부가 내주 5곳의 불교단체와 감리교, 여호와증인교, 이슬람교 등을 포함한 14~32개의 '공인 종교단체'를 확정한다"고 2월 27일 보도했다.

'공인 종교단체'는 정부의 세금 혜택을 물론 종교 헌금(기부)을 받을 수 있고 교도소와 병원 등에서 공개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헝가리 정부는 '교회법률(church law)'에 근거, 기독교와 유대교만이 법원에 등록한 후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유럽의회로부터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노골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헝가리 기업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등록하는 사례가 400여 차례나 발각되자, 헝가리 정부는 2011년 7월 '교회 법률'을 철폐하고, '양심과 교회, 종교에 대한 법률'을 재정, '공인 종교단체'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심과 교회, 종교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교단과 교회는 모두 당국에 재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등록 과정에서 등록이 불허되면 종교단체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일정 규모 이하의 교단이란 헝가리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기록이 있고, 1천 명 이상의 신도가 확보되어 있는 종파를 의미한다.

오종욱 편집위원

캄보디아, 소 바비큐 사진 게제 금지

불교계 "불법 거스르는 폭력적 그림" 반발

캄보디아 정부가 음식점이나 공개 장소에서 '소 바비큐' 관련 간판을 걸거나 세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 싱가포르 온라인 매체 ST(straitstimes.com)는 "캄보디아 훈센(Hun Sen) 수상이 '잔인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소 바비큐 관련 모든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영라디오방송을 통해 밝혔다"고 27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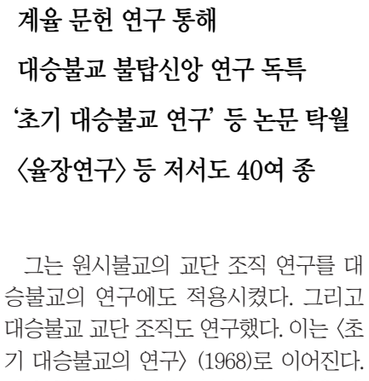
이에 앞서 캄보디아 불교계는 "소 바비큐 관련 이미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거스르는 폭력적인 그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소 바비큐 관련 이미지 사용을 금지시킨 것.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소 바비큐를 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동북아 불교교류의 가교를 놓다

세계의 불교학자(9)

히라카와 아키라 平川彰; 1915~2002



대승불교 기원의 조명은 근대 일본 불교학의 조류 가운데 하나였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1915~2002)는 불탑신앙(佛塔信仰)과 관련한 참신한 견해를 발표해 학계에 충격을 준 학자이다. 히라카와는 이 같은 견해를 방대한 계율 문헌의 연구를 통한 교단사(教團史) 연구라는 관점을 통해 도출해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1915년 아이치(愛知)현에서 출생했다. 그는 제8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대학 문학부 인도철학 범문학과에 입학했다. 히라카와는 학부에서 원시불교를 연구하고 '아함(阿含)의 핵심사상에 대하여'로 졸업논문을 작성했다. 논문은 작성됐으나 그에게 〈아함경〉의 교리는 난해하기만 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대학원에 진학해 아비달마 불교를 연구했다. 대학원에서 그는 〈구사론〉 〈대비바사론〉을 공부했다. 이 때 도쿄대학 교수인 미야모토 쇼우손(宮本正尊)으로부터 계율 연구를 권유받아 공부를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학문적 토대를 이루게 됐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대학원 수료 후 조교 생활을 거쳐 1950년(36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조교수로 임용됐다. 1954년(40세) 미야모토 쇼우손의 후임으로 도쿄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이후 정년퇴직 할 때까지 도쿄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했다.

히라카와의 논문은 학술적으로 탁월한 논문들이었다. 특히 1968년(54세)에 발표한 '초기 대승불교의 연구'는 세계 학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75년에 정년퇴직 후에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교수가 되어 1985년까지 근무했다. 1993년에는 일본학사원(日本學士院) 회원이 되어 1996년부터는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國際佛教學大學院大學) 교수 및 이사장을 2002년 별세하기 전까지 역임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40권의 저술과 300편의 논문을 남겼다. 연구 분야도 원시불교 아비달마 반야 법화 화엄 정토 중관 유식 여래장부터 중국이나 일본불교까지 불교 교리를 통시적, 공간적으로 꿰고 있다. 그의 중심 저술은, 도쿄대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 〈율장(律藏)의 연구〉(1960)가 있다. 히라카와는 이 논문을 통해 종래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던 율장을 자료론(資料論)을 중심으로 연구해 이후의 연구 기초를 만들었다.

〈원시불교의 연구〉(1964)는 율장 자료에 근거해 초기 교단의 내용을 해명한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원시불교 교단 조직을 이만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계율 연구는 지도교수였던 미야모토 쇼우손으로부터 주어진 과제였다. 하지만 히라카와에게는 계율연구는 힘든 여정이었다.

히라카와 아키라는 회고하기를 "새로운 견지로부터 계율 문헌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율의 문헌은 많다.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에서는 1000페이지의 장경이 3권 있다. 그 외에 빨리(Pali)율이 있고, 범문(梵文) 율전(律典)도 있고, 티베트 역도 있다. 테마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료를 다시 읽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그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3번이나 4번이나 다시 읽고, 겨우 테마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계율 문헌 연구 통해
대승불교 불탑신앙 연구 독특
'초기 대승불교 연구' 등 논문 탁월
〈율장연구〉 등 저서도 40여 종

그는 원시불교의 교단 조직 연구를 대승불교의 연구에도 적용시켰다. 그리고 대승불교 교단 조직도 연구했다. 이는 〈초기 대승불교의 연구〉(1968)로 이어진다. 이 논문은 히라카와 아키라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논문이다. 그는 책에서 대승불교 기원에 대한 학설을 기술했다. 그 때까지 대승불교의 기원은 주로 부파불교(部派佛教) 가운데 대중부(大衆部)라고 생각해 왔다. 히라카와는 그 기원을 재가신자(在家信者)를 중심으로 하는 불탑교단(佛塔教團)이라고 지적했고, 경제적 기반을 불탑에 주어지는 보시(布施)라고 추정했다. 불탑교단 기원설은 세계 불교 연구사 중에서도 독특한 것이며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히라카와의 학문은 해박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어느 학자의 회고에 의하면 히라카와는 만년이 되어서도 어떤 문헌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것은 신수대장경 어디에 있다"고 순식간에 지적할 정도였다고 한다.

조동섭 기자

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돈과 명성에 매달릴까?
나는 무얼 얻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걸까?
무엇이 끝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의 물음이 넘칠 때,
손닿는 곳에 월간「불광」이 있다

Event
월간 불광이 궁금하세요? 총 200분께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로 지금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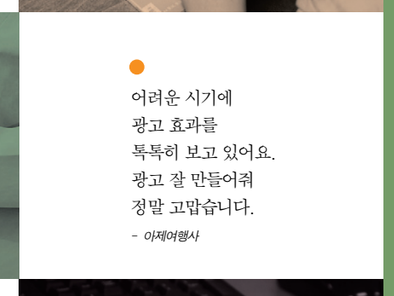
- 기간 _ 3월 2일 ~ 18일
- 트위터에서 만나기 _ @bulkwang_C의 이벤트 트윗을 RT해 주세요.
- 페이스북에서 만나기 _ 이벤트 참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www.facebook.com/bulkwang
- 이메일로 만나기 _ '월간 불광 이벤트 참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bulkwang_C@hanmail.net


매일 아침 108배를 5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던 날, 구독신청했죠. 전에도 좋았고, 새로운 모습도 더욱 좋습니다. 늘 함께하는 친구 같아요.
- 유제식 님


특집 기사가 참 좋네요. 어떤 불교 매체에서도 접하기 힘든 사진과 내용이 매달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 한지수 님




10년 넘게 구독하고 있는데, 이처럼 들뜬 마음은 처음이에요. 영원히 소장하고 싶은 잡지입니다.
- 이동연 님


어려운 시기에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광고 잘 만들어줘 정말 고맙습니다.
- 아제여행사





다 큰 자식 길들이기가 더 어려운 법인데….
너무나 멋진 변신입니다.
「불광」 덕에 불교계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 안희경 님



월간「불광」 어플리케이션 출시 _ 아이패드에서 「불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매거진 플러스(Magazine Plus)'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원하는 호수를 선택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 매호당 2.99달러)

월간「불광」 구독 문의 Tel. (02) 420-3200 www.bulkwang.co.kr
1년 정기 구독료: 60,000원 1권: 6,000원(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체 하는 것은 '나와 남' 속이는 것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⑭ 행자 관섭의 흉계

경허 스님을 모시던 관섭(寬燮)이라는 행자가 겪은 일이다. 행자 관섭은 짧은 식견이지만 경허 스님의 법문을 좋아했다. 하지만 스님의 무애행 만은 질색했다.

행자 관섭이 경허 스님의 곡차 심부름을 몹시 귀찮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다.

경허 스님이 안주를 사오라며 돈을 건넸다. 행자 관섭은 안주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몰래 비상(砒霜)을 샀다.

행자 관섭은 술심부름에 시봉에 너무나 힘들어 경허 스님이 비상을 먹고 죽었으면 하는 막된 생각으로 흉계를 꾸몄다.

행자 관섭은 비상을 빻아서 구운 닭고기 안에 골고루 뿌려 넣었다. 그리고는 곡차와 닭 안주를 경허 스님에게 천연덕스럽게 가져다 올렸다.

행자 관섭은 경허 스님이 닭 안주를 먹으려 하자 막상 겁이 덜컥 났다. 관섭은 방을 빠져 나가 뒷문에서 문구멍으로 숨을 죽이고 경허 스님의 동정을 가만히 지켜봤다.

'저걸 자시나 안자시나, 드신다면 곧 쓰러질 게 아닌가. 쓰러지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관섭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직접 확인하려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허 스님이 먼저 곡차를 한잔 쭉 따라 마시고 닭 안주를 먹기 시작했다. 경허 스님이 닭 안주를 먹는데 안에 무엇인가 버석버석 한 것이 있었다. 스님이 가만히 살펴보니 비상을 빻은 것이었다.

경허 스님은 비상 가루를 씹히는 것만 털어버리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먹었다.

비상가루를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골라 털어버린 닭안주를 모두 먹은 경허 스님은 "아, 참 잘 먹었다"며 방에서 드러누웠다.

행자는 음식에 묻은 비상을 보고서도 태연히 드신 경허 스님의 경계를 지켜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행자 관섭은 겁이 나고 무서워 이 사실을 가슴 속 깊이 숨겨두었다가 후일 만공 스님에게 고백해 참회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 전까지 경허 스님은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스승의 무애행에 질색한 행자
곡차 안주에 비상가루 뿌려
경허, 비상 털고 태연히 드신 후 함구
후일 행자는 만공에게 고백 참회

⑮ 나와 남을 속이는 무서운 도구

경허 스님이 서산 개심사 조실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개심사 주지 동은(東隱) 스님은 세간에 부자스님으로 소문나 있었다. 해마다 들어온 쌀을 조용히 모아 사찰이름으로 논을 샀기 때문이다.

경허 스님이 하루는 시자인 사미승 경환을 시켜 동은 스님이 모아놓은 쌀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소문일 뿐 확인되지 않은 쌀을 가져오라는 지시에 사미승 경환은 어리둥절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환의 질문에 경허 스님은 그저 다시 동은 스님의 방에서 쌀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뿐이었다.

경환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짓인데 어찌 그런 일을 스님께서 지시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경허 스님은 경환에게 "이놈아, 너무 정직하기만 하면 못쓰는 것이니라. 정직한 체, 청정한 체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무서운 도구가 되느니라. 알겠느냐?"고 경책했다.

경허 스님은 경환에게 다시 주지 방에 둔 쌀을 몰래 훔쳐올 것을 지시했다.

경환은 할 수 없이 쌀을 가지러 가기 위해 주지 동은 스님의 방으로 갔다.

주지스님 방에는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또 주지스님이 좀처럼 자리를 비우지 않아 쌀이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곳 근처조차 갈 수 없었다.

한 나절 동안 주지실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경환은 주지스님에게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주지스님, 실은 조실스님께서…."

그 사실을 전해들은 동은 스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크게 웃었다. 동은 스님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쌀을 내어주며 경환에게 말했다.

"조실스님의 장난은 이제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으시니, 참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어찌됐든 노스님께 갖다 올려라"

경환은 묵직한 쌀자루를 지고와 경허 스님에게 올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허 스님이 말했다.

"그 쌀을 가지고 아래 마을에 내려가 막걸리를 사오너라."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개심사 주지 부자로 소문 났으니
모아 놓은 쌀을 몰래 가져오너라"
"정직하지 못한 일을 지시하십니까"
쌀자루 올리니 '막걸리 사 오너라'





그림 · 박구원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신제품 **흑룡초**



크기 ∮7.5 × 29cm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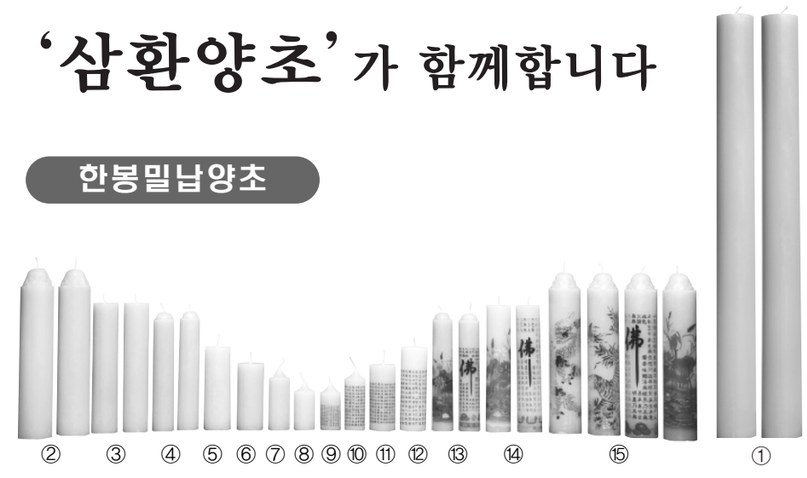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약쑥초 돈타레 5.6∮×27㎝
④ 약쑥초 밀대 4.7∮×25㎝ ⑤ 약쑥초 1호 5.9∮×18㎝ ⑥ 약쑥초 2호 5.9∮×14㎝
⑦ 약쑥초 3호 4.7∮×13㎝ ⑧ 약쑥초 4호 4.7∮×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밀납초 돈타레 5.6∮×27㎝
④ 밀납초 밀대 4.7∮×25㎝ ⑤ 밀납초 1호 5.9∮×18㎝ ⑥ 밀납초 2호 5.9∮×14㎝
⑦ 밀납초 3호 4.7∮×13㎝ ⑧ 밀납초 4호 4.7∮×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 - 삼환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나의서원 나의 신행 〈4〉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보현행원’ 삶의 지침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송석구 위원장은 … 1940년 셔울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에서 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교수를 역임했다. 동국대학교에서 중앙도서관장 의료원장 부총장 등을 거쳐 제13대와 14대 총장을 역임했다. 동덕여대 가천의대 등의 총장을 지냈고 국제신문 대표이사를 거쳐 명예회장이다.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 이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밝은사회 국제클럽한국본부 대표이사 및 총재를 지냈다. 국립키르키즈대학교에서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1997), 국제클럽 한국본부 에메랄드상(2011), 일맥문화대상 학술부분(2003), 청조근정훈장(2003) 율곡대상 학술부분(2000) 등을 수상했다.

하루는 한 생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태어남이고 저녁에 잠자기 위해 눈 감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 죽음은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삶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매일 반복되는 삶과 죽음, 그 속에서 하루를 한 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한 순간도 게으르거나 부정할 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 생처럼 사는 하루 동안 우리는 몇 번이나 자신을 향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을까? 아니, ‘잘 산다’는 기준이나 세우고 사는가?

〈증자〉는 날마다 ‘사람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충성스럽게 하였던가? 벗과 더불어 사귀되 믿음을 잃지는 않았던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힘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며 하루 3가지를 반성하라[三省]고 가르치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 송석구(宋錫球 73) 위원장은 매일 8가지를 살핀다. ▷(오늘 한번이라도) 남을 존경하였는가? ▷칭찬하였는가? ▷베풀었는가? ▷참회하였는가? ▷함께 기뻐하였는가? ▷경전을 읽었는가? ▷남의 뜻에 따랐는가? ▷남의 공덕으로 여겼는가? 등이다.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시절에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주도했던 ‘청정운동’의 실천지침이다. 송 위원장은 양복 안주머니에 이 내용이 적힌 청정운동 신행수첩을 넣고 다닌다. 퇴근길이나 저녁 식사 후 등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낱낱의 항목을 읽으며 체크를 한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세상이 깨끗하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남을, 개인 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행동에 모자람이 없어야 하고 나와 인연 지어진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실해야 합니다. 나의 안과 밖을 수시로 살피지 않으면 내 삶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이고 나의 정체(停滯)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도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은 모든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고(禮敬諸佛),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稱讚如來), 모든 부처님을 널리 공양하며(廣修供養),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懺悔業障),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며(隨喜功德), 부처님이 설법해 주기를 청하고(請轉法輪),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고(請佛住世),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常隨佛學),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하며(恒順衆生), 두루 모든 것을 가지고 회향하는 것(普皆廻向)이다.(송 위원장은 기사에 보현보살 10대원의 항목을 다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한 번 더 읽으면 좋은 것이라며.)

송 위원장에게 보현보살의 10대원은 일생의 지침이다. 그 인연은 불광법회의 법주로 도심포교의 현대적 방향을 제시한 광덕스님으로부터 비롯됐다.

“1963년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 관측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날마다 새벽 3시 30분에 기상했는데 일어나면 제일먼저 광덕 큰스님께서 만드신 책을 읽었습니다. 광덕 큰스님께서 ‘보현행원품’을 강의한 내용을 등사(謄寫)해 제본한 것이었는데 계속 반복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극미진수 제불세존을 예배하고 공경하라’ 등의 표현을 보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인데 그렇게 무수한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수없이 보현행원품을 읽었는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서 광덕 큰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량한 부처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란 뜻임을.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찬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보현보살의 10대원은 바로 일체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사는 지혜입니다. 물론 일체 생명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모든 생명, 구류중생을 다 포함한 총체적 개념이고요. 오랜 시간 품었던 화두를 깨치고 나니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50년전 광덕스님 강의 ‘보현행원품’ 만나 “일체 생명 부처님으로 공경 찬탄하라” 마음 열고 대화하면 소통과 통합 이뤄져 ‘보현행원을 국민 행복운동으로’ 발원

그로부터 송 위원장의 삶은 서원의 실천과 성취로 직조(織造)되고 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라는 서원은 금생을 두고 매진해야 할 총원이고, 당면한 소임을 수행하며 세우는 많은 목표들은 그때그때의 별원인 셈이다.

송 위원장은 어떤 목표로 정하고 나면 그 일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람들은 ‘해병대 기질’이라고 말하지만, 기질이 아니라 노력이다.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고자 하는 진지한 수행이 ‘불도저’의 이미지로 보인 것일 뿐이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32년 동안 수유리에 살면서 27년을 하루같이 새벽마다 화계사에 가서 108배를 한 것이다. 보현행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기 위해 시작한 108참회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던 것.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하기로 마음먹고 하면 되니까. 날마다 108참회문을 읽으며 절을 하고 〈금강경〉과 〈보현행원품〉을 독송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하심의 도리를 몸에 익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경계에 부닥치면 무너지기도 하지요. 1990년에 동국대 총장 투표에서 1등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이사회가 미뤄지더니 결국 이사회에서는 다른 분을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실망과 솟구치는 화를 억누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빨리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금생에 남의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은 탓으로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땅히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루리라’ 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사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전생의 죄업을 소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이었고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였습니다.”

보형행원을 서원하지 않았다면 참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지혜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지혜는 다시 서원을 세우게 했고 그 서원은 성취되었다. 1995년부터 동국대 총장을 맡았다. 제13대와 제14대 총장 소임을 맡은 8년 동안 많은 목표를 설정해 행원의 날들을 바쁘게 달렸다.

면학풍토 조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변화는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불교병원 설립과 37년에 걸친 한글대장경 완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등 숙원사업들도 마무리 했다. 물론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아침마다 화계사로 달려가 절을 했고 독경과 참회기도를 했다. 다가오는 역경(逆境)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참회기도를 통해, 보현행원의 서원을 통해 하루도 깨어 있지 않은 날이 없었다.

“보현행원의 삶은 깨어 있는 삶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은 모두가 깨어있기 운동인 겁니다. 일체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해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등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번뇌 속에서 깨어나면 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번뇌 속에 있음을 알아차릴 때 번뇌를 물리치는 힘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각(覺)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각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번뇌인지 뭔지도 모르고 헤매다 보면 영원히 미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번뇌가 번뇌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꾸준한 기도와 행원이 지혜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절을 하고 독경하고, 사경 하는 일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번뇌를 물리치고자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자세지요. 행원이 없는데 어떻게 보리가 있겠습니까?”

송 위원장은 요즘 사경삼매에 빠져있다. 2004년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고 난 뒤부터 108배를 그만 두고 사경을 한다.

〈금강경〉 〈육조단경〉 〈선가귀감〉 등을 반복해 사경한다. 〈금강경〉은 반야의 지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고 〈육조단경〉과 〈선가귀감〉은 반야를 체득하여 실천하는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 사경이 보현행원의 힘이 되는 것이다.

“총장직을 마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말하자면 ‘격하운동’이 벌어진 것인데, 뭐 그리 연연할 것은 없었지만 또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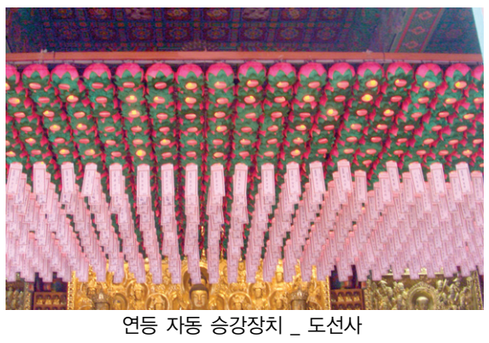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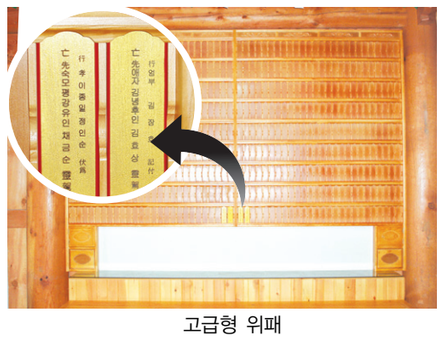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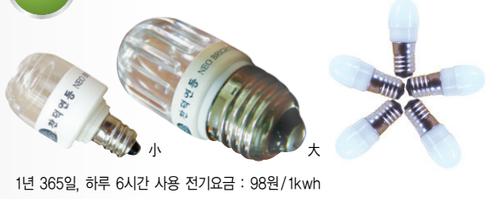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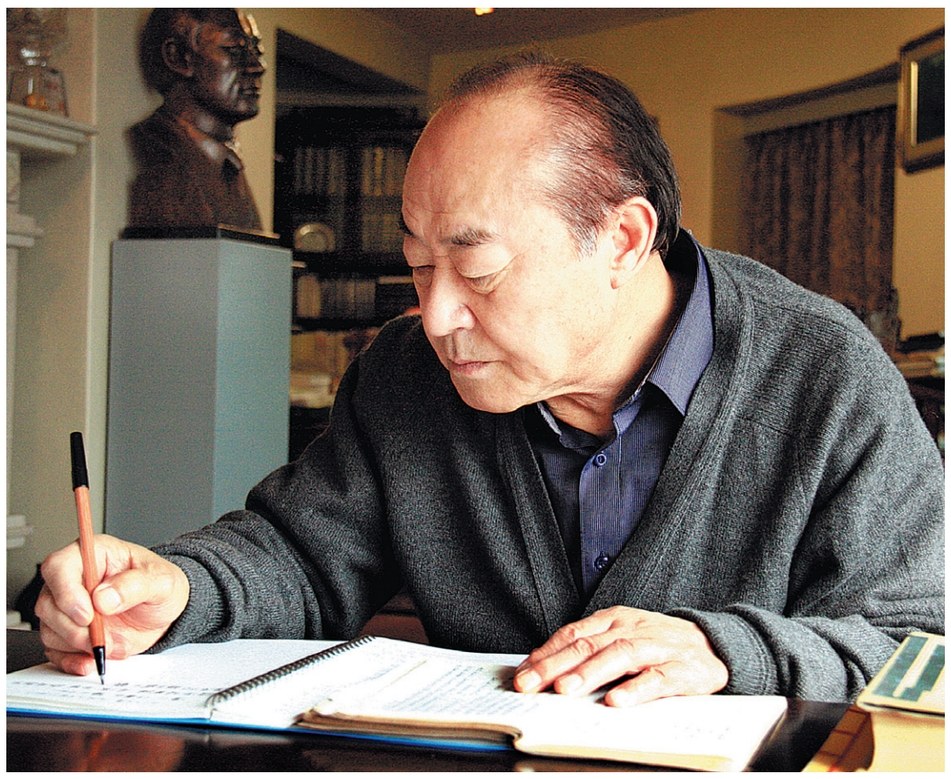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27년간 매일 새벽 화계사에 가서 108배 정진을 해온 송 위원장은 이사하면서부터 매일밤 사경을 한다. 〈금강경〉〈육조단경〉〈선가귀감〉을 반복해 쓰는데 요즘은 〈선가귀감〉에 빠져있다.

> 읽고 외우기만 하던 경전을
> 쓰면서 의미를 새기니까
> 마음도 편해지고 힘도 생겨요
> 사경은 참 좋은 수행입니다

큰 마장이 닥쳐 온 것은 분명했어요. 그러던 차에 평창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화계사를 다니기엔 좀 어려웠어요. 100일 동안 아침마다 삼성암에 다니면서 참회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주변 사람들이 사경을 하라고 권하더군요. 그 권유가 가슴에 와 닿기에 시작했어요. 읽거나 외기만 하던 경전을 손으로 쓰면서 의미를 새기니까 얼마나 깊이 와 닿는지, 신심이 나고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마음도 편해지고 새로운 힘도 생기더군요.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 사경은 참으로 좋은 수행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한 대목을 쓰고 뜻을 새기는 동안 하루의 번잡한 일들이 잠잠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구다. 우리 사회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유도하고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대 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제2대 위원장을 맡았다.

"사회통합이나 소통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사회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지요. 소통은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화쟁이고 원융의 정신 아닙니까? 굳이 불교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모두 한 바탕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소통의 근본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를 변화시켜 마음의 문을 열 때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가 있음으로 이해가 형성되고 그를 통해 사회통합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생발전(相生發展). 송 위원장은 이 단어를 사회통합위원회 제2기의 화두로 삼았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서원을 세운 것이다. 물론 보현행원이라는 실천운동 속의 별원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꾸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목표(서원)에 생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백척간두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진일보의 용기를 얻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는 끝까지 의심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힘까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목표(서원)를 세우기는 쉽지만, 꾸준한 정진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흐지부지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 성철 스님께 가서 일주일동안 3천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큰 힘을 얻었어요."



"붓끝에 마음을 모아 사경을 하면 하루가 정리되고 내일을 위한 새 힘이 생긴다"고 송 위원장은 말한다.

8가지 실천지침 매일 점검

① (오늘 한번이라도) 남을 존경하였는가
② 칭찬하였는가
③ 베풀었는가
④ 참회하였는가
⑤ 함께 기뻐하였는가
⑥ 경전을 읽었는가
⑦ 남의 뜻에 따랐는가
⑧ 남의 공덕으로 여겼는가

송 위원장은 최근 가천의대 총장직을 놓았다. 일년 후에는 사회통합위원장 소임도 놓게 될 것이다. 일에서 조금씩 멀어질 나이가 된 것인가? 그러나 7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자부한다. 오래 절을 한 내공이 육신의 건강을 끌어주고 있다.

지금의 일들을 놓은 뒤에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곧바로 답을 내놓았다.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는 것' 이란다.

"하시던 일이라고요?"

"그럼요, 하던 일이지요.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진흥원에서 청정운동을 했던 것처럼, 보현행원으로 살아가기 운동을 할 겁니다. 캠페인도 벌이고 강연도 하고 관련 모임도 만들어 확산시키고. 할 일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자는 물론 온 국민이 이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정토잖습니까? 서로 공경하고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은 종교를 떠나 행복을 만드는 지름길이니 국민운동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주객합일



동국대 선학과 교수

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후가 주는 변화,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 들끓는 심경의 변화 등 이루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는 길은 단연 인욕이 으뜸이다. 사바세계의 사바(saha)는 '참는다' 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응당 세상사를 참고 살아가는 슬기로움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정상을 정복한 묘미를 맛볼 수 있다. 가다가 중도에 그치면 시작하지 않은 것이나 결과적으로 뭐 하나 다를 바 없다.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의 경우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쉼 없이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걷고 곁눈질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소리꾼의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판소리는 조선조 중엽 이후 가곡과 함께 성행해 오늘날까지 민속악 부문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향토적인 선율을 토대로 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 등 여러가지 장단에 의해 부단히 변화를 주고 있다. 아니리와 발림으로 극적인 효과를 거두는 점은 판소리만이 갖는 특징이다.

판소리라 하면 당연히 추임새를 연상하게 된다. 추임새는 고수(鼓手)가 중간중간에 흥을 돋우기 위해 삽입하는 탄성으로서 '좋다' '으이' '얼씨구' 등을 말한다. 고수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일고수(一鼓手), 이명창(二名唱)이란 말이 통용되고 있다. 아니리는 창을 하는 중간에 장면의 변화나 정경 묘사를 위해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창이 아닌 말이다. 발림 또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 창하는 사람이 곁들이는 몸짓이나 손짓으로 너름새라고도 한다. 명창이 부채를 들고 펴기도 하고 접기도 하는 행위이다. 서양의 오페라나 오케스트라와 견줄만한 차원 높은 예술작품이라 할 만하다.

명창의 툭 트인 소리만으로 무대가 가득 채워질까. 아니다. 고수의 호흡이 깃들어 어울어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혼연일체란 객석에서의 호응이 더 할 때 가능한 일이다.

〈도회보감(圖繪寶鑑)〉에는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가 있다. 그 가운데 대숭(大崇)이란 화가의 일화가 있다. 그는 스승 한광에게서 그림을 배웠는데 재주가 없어 늘 꾸지람을 듣곤 했다. 하지만 그는 목동과 소를 잘 그려 스승도 견주지 못할 정도였다. 특히 소의 담홍색 눈을 신비롭게 그렸다고 한다. 단청(丹靑)이란 그림을 말하는데 원래 붉음(赤)과 푸름(靑)을 말했으나 그림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 색채를 잘 써서 그림의 오묘한 묘사를 하는 동작을 은유한 말로 대숭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 〈십우도〉에 대숭종차묘단청(大崇從此妙丹靑)이란 말은 '화공 대숭이 이로부터 멋진 그림을 그렸다네' 라는 말이다.

대숭은 목동이나 소가 그의 대상이 아니고, 목동이나 소는 그의 붓 끝에 녹아들어 붓 가는 대로 목동이 나오고 소가 생동했던 것이다.

시험이란 학교라는 국한된 공간에서만 치러지지 않는다. 세상 도처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시험이라야 범위가 배운데서 배운데 까지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시험범위는 무한대이다. 도시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불거져 나오기도 한다.

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시험해보고자 하면 일차적으로 먼 곳에 심부름을 보내보라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충성심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곁에 두고 일을 시켜보면 공경심이 어떠한지 살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켜보면 그의 재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술을 많이 마시게 한 후에 그의

사바세계 '사바' '참는다' 는 뜻
"참을 줄 알아야 정상 맛본다"

거동을 보면 그의 위의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살펴 볼 수 있으며,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곳에 보내 지조를 살펴 볼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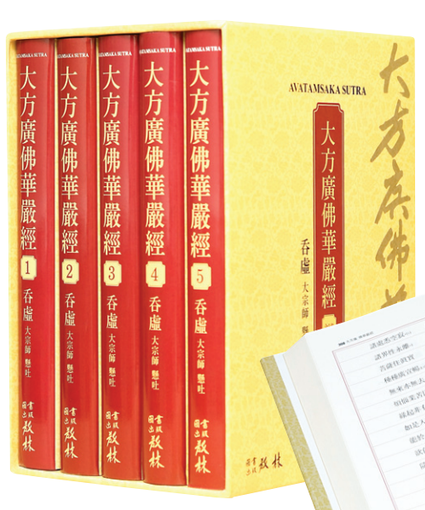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어느 조직의 보스로부터 이러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이 아닌지 자기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험이야 말로 매섭고 어려운 시험이 아니겠는가.

절기에는 춘하추동이 있고 조석의 구별도 뚜렷하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속마음을 알기는 어렵다. 인간의 마음은 원숭이가 재주부리는 것과 흡사해 가만히 있기를 거부한다. 잠시도 쉬지않고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합일이란 안정을 의미하고 편암함이다. 나와 화두가 어울림이 없이 각각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나와 화두는 주객이 아닌 합일상태에 들어간다. 간화선이란 나와 화두의 개합을 말하며 개합 없이 전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도가 터진다거나 도를 깬다는 말은 물건이 깨어지듯이 뭔가가 깨지고, 풍선이 터지듯이 뭔가가 터지는 것을 도를 깨닫는 것쯤으로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나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아마 옛선사들의 표현방식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음알이에 집착해 거기에 머무르면, 그 알음알이가 나를 망치게 된다. 알음알이를 형상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은 신기루와 같기 때문이다.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 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 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광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들이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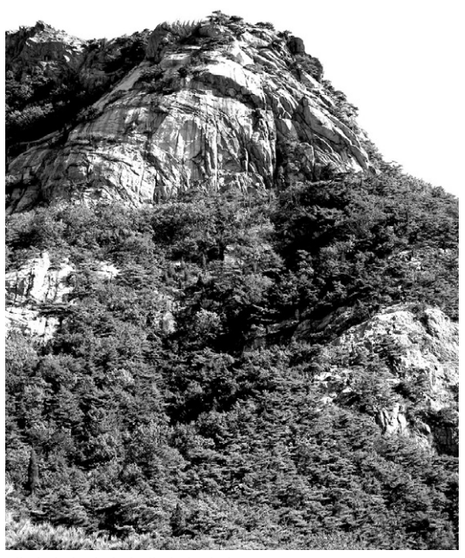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왕실의 원찰이면서 태실까지 둔 정토 도량

의숙공주의 왕생을 발원한 백련사(白蓮寺)

홍은동 백련사 옛이름 정토사
도성 서쪽 위치 극락왕생 발원
정종 피병 · 의숙공주의 원찰
유생들 독서당 이용 문제 돼


백련사가 자리한 백련산 전경


백련사는 광해군의 형 임해군에 의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기도 했으나 왕실의 태실을 둔 뒤 다시 기도처가 되었다.

종교의 역할 가운데 현실세계에서의 구원은 매우 중요하다. 타종교와 달리 불교는 자신의 수행에 의한 성불이 기본이다. 그런데 그 길은 매우 어려워 난행도(難行道)라 한다. 반면에 쉬운 방법도 있다. 부처님 명호를 칭하는 타력에 의지해서 빠르게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이행도(易行道)라 한다. 이행도의 대표적인 신앙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정토사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반대중의 대표적인 신행이었다.

극락정토는 어디에 있을까? 서쪽으로 십 만억 국토를 지나면 칠보로 장식된 세계가 나오고,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보살로 둔 아미타불이 있다. 이곳은 수행하기 최적의 조건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여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항시 법을 물어 공부할 수 있다.

이곳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부르면 이곳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살아생전 기도하고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죽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행한 수행의 공덕이 다르다. 힘들게 했으면 공덕이 많고 쉽게 했으면 공덕이 적다. 경전에도 죽을 때 마음을 내어 열 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가긴 가지만 극락의 변두리에 태어난다. 극락에는 중앙과 변두리가 있다. 당연히 수행환경도 다르다. 그리고 변두리에서 태어나 중앙으로 가는데 오백 년이 걸린다. 웬만하면 극락은 중앙에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염불하여야 한다.

첫째, 일체중생에게 항상 인자한 마음을 내고 일체중생의 행을 훼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 행을 훼방하면 끝내 왕생하지 못한다. 둘째, 일체중생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잔인하게 해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셋째, 호법심(護法心)을 발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고 일체의 법을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인욕하는 마음으로 결정심(決定心)을 내어야 한다. 다섯째, 깊고 깊은 청정한 마음으로 이양(利養)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일체종지심(一切種智心)을 일으켜 항상 생각하여 잊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일체중생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내어 아만을 버리고 말할 때마다 겸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덟째, 세간에서 하는 말에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아홉째, 깨달으려는 뜻을 두고 여러 가지 선근의 인연을 깊이 일으키고 시끄럽고 산란한 마음을 멀리 여의는 것이다. 열째, 정념(正念)으로 부처님을 관함으로써 모든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쉬운 방법 때문에 정토신앙은 일찍부터 성행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정토신앙으로 유명한 곳이 많다. 서울의 사찰 가운데 정토신앙으로 유명한 곳은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산에 있는 백련사이다. 예전의 이름은 정토사(淨土寺)였다. 도성의 서쪽에 위치한 탓에 일찍부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정토신앙이 유명하였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정토사에 다녀와야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다. 지금도 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백련사를 참배한다.

산세가 높지 않지만 숲이 좋았던 이곳에 백련사는 일찍 창건되었으나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조선 초 왕실과 인연이 맺어진 이후이다. 이곳은 도성에서 가깝고 숲이 우거져 병을 치료하기 좋았다. 태종 13년(1413) 4월 상왕인 정종이 병이 나자 이곳으로 피병을 나왔다. 보름정도 요양한 다음 판원주 목사 권완의 집으로 옮겨갔을 정도이다.

이곳이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사찰로 이름을 얻은 것은 세조의 딸 의숙공주(1442~1477)의 원찰이 되면서이다. 공주는 세조의 장녀로 이름은 세선(世宣)이었다. 영의정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에게 하가하였으나 슬하에 자식 없이 일찍 죽었다. 정현조는 이징의 딸과 결혼하여 후손을 이었지만 부마의 지위를 잃었다. 조선조 부마가 다시 결혼하면 그 자리가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백련사는 의숙공주의 제사를 지내면서 크게 중창되었다. 명종 1년(1546) 1월 6일 사헌부에서 유생들의 정거에 대한 철회를 청하는 대화 속에 "정토사는 다른 사찰에 비할 것이 아니다. 조종조로부터 공주를 위해 창립하여 제사 지낼 장소로 삼고 승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공주를 위해 크게 중창한 정토사가 명종 때 유생들의 독서당으로 이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임금은 유생의 독서는 다른 사찰이라면 본디 무방하지만 정토사는 공주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 사헌부는 유생을 정거한 명을 도로 거두고 아울러 공주를 승사(僧寺)에서 제사지내는 일도 금하라 청하였지만 임금은 윤허하지 않았다.

다음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신광한(申光漢)은 의숙 공주의 제사는 본래 정해진 처소가 있는 데도 사찰에서 행하는 것은 번독한 일이며, 유생이 조용한 곳에 가서 독서하려는 것을 정거한 것은 지나치며, 그리고 이 명이 발표되면서 사방의 선비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므로 명을 거두고 아울러 정토사에서는 공주의 제사도 행하지 말라고 청하였다.

이에 임금은 정토사는 다른 절에 비할 것이 아닌데 무뢰배들이 부산스럽게 모여 폐해를 만들고 있다. 때문에 만일 법을 어겨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정거법에 의해 처벌할 것을 지시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다만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내러 가지 못하여 인자(人子)의 예도에 있어 매우 미안하여 이를 행하려 하였으나 아뢴 뜻이 타당한 것 같아 자신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명종이 신료의 끈질긴 청에도 굴하지 않고 정토사에서 독서하는 것을 윤허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명종은 중종의 소생이다. 중종은 연산군이 왕위로 있을 때 잠저에 머물러 있을 때 의숙공주의 시양(侍養)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조모가 되기 때문에 정토사는 다른 사찰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의숙공주의 삭망을 행할 때 내수사에서 제물을 장만하였던 것이다.

이런 정토사였지만 왕실에 의한 폐해도 있었다. 광해군의 형 임해군은 원당이 모두 15곳이나 되었다. 그런데 시주하기를 좋아해서 원당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에서 시주를 받아가기 위해서 원당을 많이 두었다. 정토사 역시 도성에 가까웠던 탓으로 임해군의 요구로 산채와 동물을 그의 궁에 끊이지 않고 대어야 했다. 무척 괴로운 일이었지만 피해갈 수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임해군이 성격이 포악했기 때문이다.

임해군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은 선천적으로 포악한 면도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이 그를 더욱 포악하게 만들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명에 의하여 순화군(順和君)과 함께 김귀영, 윤탁연 등을 대동하고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함경도로 떠났다. 그러나 병사를 모집하지 못하고 오히려 9월 배반한 국경인 등에 의하여 왜장 가토(加藤清正)에게 넘겨졌다. 왕족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그는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석방되어 서울로 돌아왔지만 포로가 되었던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그 포악함은 더욱 심해졌다. 분을 발산시키기 위하여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민가에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는가 하면 일반 백성을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성격이 그러했으니 사찰인들 폐해가 없었을까.

정토사가 그런 잡역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왕실의 태실을 두면서부터이다. 인조 4년(1626) 8월 예조에서 정토사 앞 봉우리에 대전(大殿)과 왕세자의 태실을 두고 후일 그곳을 모르게 될 것을 염려하여 표시해 두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백련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극락왕생의 도량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조선조 사찰은 왕실의 원찰이 되거나 하다못해 태실이라도 두어야 유생들의 행패는 물론 각가지 잡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찰들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백련사는 왕실의 원찰이면서 태실까지 두었으니 명당은 명당인 모양이다. 아마도 이곳을 다녀가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중생들의 믿음이 생긴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특 혜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임진년 윤달
성지 순례 관음을 찾아서
임진년 흑룡의 해 윤달 맞이 성지순례를
관세음보살성지인 보타산 보제선사,
불정산 해제선사, 법우사등 3대사찰과
500나한존자가 계시는 낙가산 등
성지순례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대덕스님 및 불자님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출 발 지 : 부산 김해공항
상 해 – 보타산 –
낙가산 – 황 산
출 발 일 : 3월 19일 – 23일 (4박 5일)
마 감 일 : 3월 9일까지 여권 지참자에 한함
기타문의 : 하나투어 VIP 여행사
055)743-5001, 010-4556-9167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1)초급반 : 사물(요령, 목탁,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의식
2)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욕, 천도재(49재),
각종의식
3)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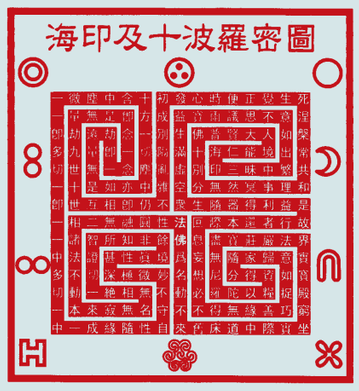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義湘大師法性偈十波羅密圖
의상대사십바라밀도

法性圖所持者
成就一切萬法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만법이 성취하고

消滅一切障碍
神鬼一切不侵
일체마장이 소멸하며
일체잡귀가 침범 못한다.

특허등록(30-0607637)



우주삼라만사 진리와 부처님 대승법이 모두가 법성도에 있습니다
수공한지에 회화나무 열매로 염색한 괴황지에 특수 제작함.
옛날부터 불경을 사경할 때 회화나무 열매로 염색
특히 염험한 부적 사경시 종이는 꼭 괴황지에 경면주사로만 사용
어떠한 부적보다 천만배 수승한 염험과 공덕이 있다.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작용 괴황지 판매합니다.

大方廣佛華嚴經
법성도십바라밀도 지극한 기도정성으로 제작
법 성 원

전 화 : 1688-7671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 : 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미 얀 마

▣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 ~ 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대구 연락처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010-9243-0113 범성스님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 대도빌딩 1605호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불가사의 氣

세계최초 ! 최장거리 ! 누구나 확인 할수 있다.

水脈100% 차단



氣 氣
氣 특허등록
氣 氣

특허등록 제 40-0824632호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저작권등록)
제1호 제 C-2008-002154호
제2호 제 C-2008-002155호
제3호 제 C-2009-002114 호

住持 : 령산 김 해봉



[황금색 6폭 오기 병풍]

※ 강력한 청정기 방출 ※

◈ 오기(五氣) 가 수맥(水脈) 100% 차단한다

● 신비(神秘)의 氣 (不可思議氣) 방출(放出)
● 청정(淸淨)기 (氣) 를 받아 활기차게 생활 할수 있다.

○ 氣 는 인체의 근본이다.
○ 본 오기(五氣)는 혼(魂)신(神)의(意)백(魄)정(精)이 있다.
○ 氣 가 왕성(旺盛)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 氣 가 왕성(旺盛)하면 학업(學業) 및 사업(事業)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 번개 = 전기 . 氣 = 전기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이다
○ 수맥이 흐르는 곳에 오래 기거 하게 되면 오대성인 병 &암이 저절로 온다.

◎ 지구상(地球上) 모든 생명체(生命體)는 기(氣)로서 이루어진 것
본 오기(五氣)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하고도 신비스러운 강력한 청정기(淸淨氣)를 방출(放出)하며 약(弱)하고 나쁜운기를 제거하고 강력한 좋은운기로 바뀌면서 가정(家庭)에 나쁜 탁기(濁氣)를 제거,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는 탁기(濁氣)를 제거하며 기(氣)를 받으면 만사형통(萬事亨通)모든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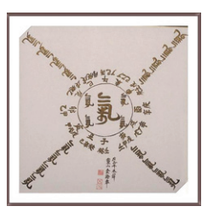
▣ 기부 사용처 ※ 수맥이 흐르면 흉(凶)가 가 된다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스님기거방, 택시회사 운전자. 기업체, 사업인, 관공서, 가정 기부 사용, 각 종교, 사회단체, 크게 성공을 원하는 업체, 좋은 운기를 크게 받아 화목, 건강, 만복을 얻으리라.


[카드 기부]


[자동차사고예방부]


[제1호]


[제2호]


[제3호]

※ 카드氣 방출거리 3M 10CM (차량, 소지카드) 황금 & 야광
※ 방출 거리는 7M 10CM (액자)
※ 청정기를 방출하며 수맥 100% 차단

주 문 문 의 처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양정 2동 135-4
직통 : 051)852-1810, FAX)867-5773 / 핸드폰 011-598-5470

부 산 천 운 사
다음카페 : 천운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글자에 담긴 힘

퇴조비(退潮碑)의 비밀

겨울바다에 내리는 눈을 보면, 그 시원함과 아름다운 파랑(波浪)과 백설(白雪)의 향연은 누구나 보고자 하는 광경일 듯 하다.

삼척시 정라동에 삼척항이 잘 보이는 육향산(六香山)이라 불리우는 작은 언덕에 전각이 서있고 그 속에 퇴조비(退潮碑)라고 불리우는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가 서 있다. 동방 전서체(篆書體)의 일인자인, 미수 허목(許穆)선생이 오석(烏石)의 비신(碑身)에 독창적인 고전자체(古篆字體)로 동해송(東海頌)을 쓴 것이다.


척주동해비 오금탁본

미로(眉老)께서 삼척부사로 재임할 당시에 심한 폭풍이 일어 바닷물이 고을까지 들어오는 큰 해일(海溢)이 있었

동방 전서체 일인자 미수 허목
동해송 쓴 척주동해비 세우자
해일 가라앉으며 바닷물 잠잠

는데, 직접 전서(篆書)로 동해를 기리는 시를 지어 비를 세웠더니, 해일이 가라앉고 바닷물이 요동쳐도 이 비석이 있는 곳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전하는 말로는 선생께서 비석이 후임 삼척부사에 의해 훼손될 것을 미리 알고, 한 개를 더 만들어 동헌마루에 묻어 감추어 놓고, 가장 나이어린 아전에게 그 사실을 은밀히 전하도록 하니, 후임 부사가 비석을 깨어 버려 다시 풍랑에 고을이 침수되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다시 꺼내어 세운 것이 지금의 비석이라 한다.

비문의 신묘함이 소문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덕을 보고자 하여,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가정의 풍파(風波)를 방비(防備)하려고 탁본(拓本)을 떠가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비각을 세워 훼손으로부터 비를 보호하고 있다.

글과 글씨의 힘으로 온갖 재화(災禍)를 방비하고자 하는 생각은 사실 보통 생각하기에는 미신에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도 글과 경(經)이 지닌 신비한 힘을 빌어 외적(外賊)을 물리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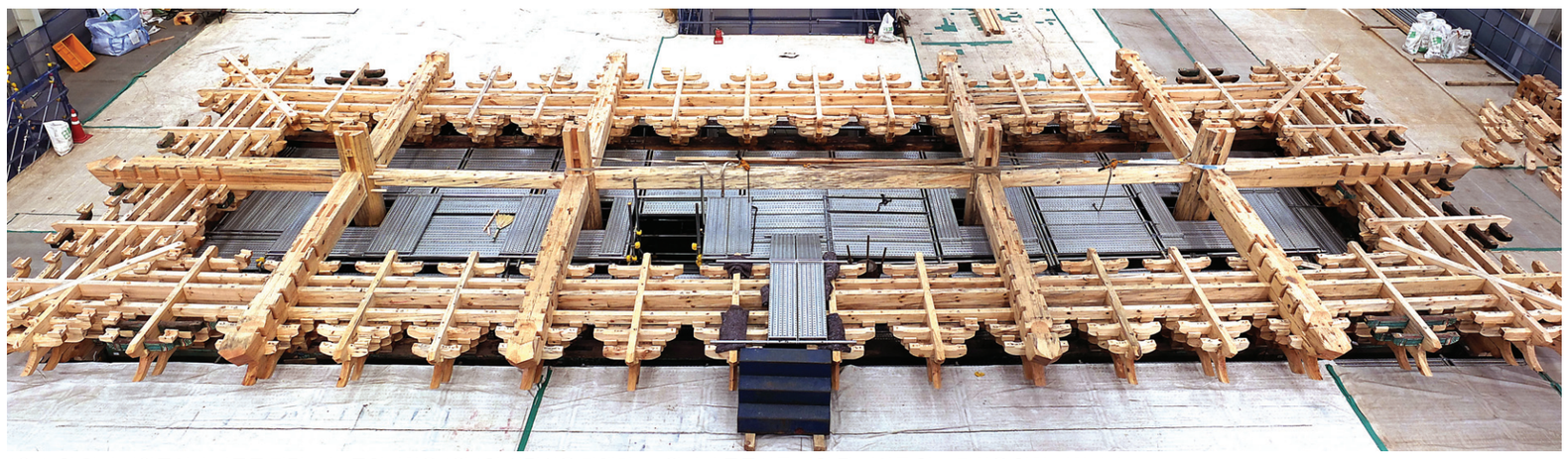
중국의 당송(唐宋) 시대에 유명한 문필가의 집에 한 부자가 찾아와 '물 수(水)' 한 자를 써받아 가면서, 천금(千金)의 돈을 내고 가자, 시문(詩文)을 받지 않은 것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 마지않았다. 그런데, 그 부자가 사는 마을에 큰 불이 나서 마을의 대부분 가옥들이 다 불타서 쓰러졌는데, 오직 그 부자의 집은 화마(火魔)를 면하였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집에 가보니, 마루에 '수(水)' 자가 쓰인 족자가 걸려 있었다 한다. 다시 말하면, 수(水)자의 물기운으로 불을 이겨냈다는 말이다.

불자(佛子)들이 바닷가 기도처에서 즐겨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파도소리이다. 파도소리는 범어(梵語)의 원만(圓滿) 성취(成就)의 기도후렴구인 Svaha(스와하)와 발음이 거의 같은 소리를 낸다. '솨아아' 하는 파도소리와 '스와하'의 소리가 거의 발음이 같아 바닷가 기도처의 기도성취의 영험함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스와하의 해조음(海潮音)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은 실로 비밀의 가피가 있는 법이다.

오늘도 강원도의 하늘은 하얀 눈발이 내리고 있다고 한다. 낙산(洛山) 해수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홍련암(紅蓮庵)에 가서 파도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드리고 싶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숭례문을 복원하는 불자 장인들


2월 10일 현재 복원중인 숭례문루 전경모습. 문화재청은 3월 8일 상량식을 진행하고 5월까지 목공사를 마친 뒤 기와를 얹고 단청을 입힐 계획이다.

숭례문 75% 복원 … 12월 완공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지 4년이 지났다. 숭례문 복원 현장에서는 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석공들이 석재를 다듬고, 대목들은 문루 2층 조립에 분주하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에 따르면 현재 복원율은 75%. 오는 5월까지 목공사를 마친 뒤 기와를 얹고 단청을 입혀 12월에는 늠름한 모습을 찾을 예정이다. 3월 8일에는 상량식도 진행된다.

숭례문 복원에는 6인의 장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응수 대목장, 홍창원 단청장, 이재순 석장(석조각), 한형준 제와장, 이의상 석장(석구조물), 이근복 번와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전통기술에 의한 원형 복원 원칙에 따라 기존 부재 중 사용할 만한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고증과 발굴조사를 통해 근대기 성벽 철거·변형 이전 모습으로 성곽과 지반을 복원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불자인 숭례문 복원 장인들은 12월 13일에 막을 내릴 복구공사 작업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황룡사 9층 목탑 복원 하고파"

신응수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70)은 1942년 충북 청원서 출생해 17살의 나이에 목수일을 시작했다. 고생 끝에 1970년 불국사 복원 공사 때 부편수로 발탁되고, 1975년 수원성 복원 때 도편수(대목 분야 총지휘자)로 참여했다. 이후 경주 안압지 내 건물을 복원했으며, 창경궁과 창덕궁,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의 주요 전각 보수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등 100건이 넘는 복원 작업을 주도해왔다.

2002년 만해예술상을 수상한 신응수 대목장은 조계사, 불국사, 쌍계사, 봉정사, 뉴욕 한마음선 등 다수의 사찰 복원과 신축사업도 진행했다.

신응수 대목장은 최원식-조원재-이광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대목장 계보를 잇는 장인으로 손꼽힌다. 그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때문에 모든 장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복원작업에 힘 쏟고 있다"며 "숭례문 복원 후에는 전설 속에 묻혀 버린 황룡사 9층 목탑을 생전에 복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심으로 붓공양 올릴 터"

홍창원 단청장(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57)은 15살 무렵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손에 이끌려 봉원사에서 작업을 했던 단청장 만봉 스님(1910~2006) 문하생으로 단청에 입문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청 공부를 했지만 그에게 단청 배우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홍 단청장은 20세를 넘기자 만봉 스님을 보좌하며 서울 보문사 일주문 단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일했다. 1981년에는 만봉 스님의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됐고 1986년에는 이수자로 선정됐다. 그는 창경궁 문정전(1986년), 경복궁 경회루·강녕전·사정전·교태전(1994~1995년), 덕수궁 중화전(2001년), 경복궁 근정전(2003년) 등 국내 주요 궁궐과 사찰의 단청을 도맡아 이름을 얻기 시작했으며 2009년 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 됐다.

5월부터 본격적인 단청작업을 시작하는 그는 현재 숭례문 단청문양을 모사(模寫)하고 있다.

홍 단청장은 "만봉 스님께서는 항상 단청작업을 할 때 불심을 갖고 붓공양 올리듯 정성들여서 하라고 강조했다"며 "국보 제1호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스님 말씀을 새기며 최선을 다해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응수 대목장


홍창원 단청장


이재순 석장


한형준 제와장

불자 장인 숭례문 복원 위해
혼신의 힘 다해 작업 진행 중
고증과 발굴조사 통해 근대기 이전
성곽과 지반 복원에 전력



"석굴암 같은 세계적 석조물 만들고파"

이재순 석장(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56)은 우리나라 최초의 중요무형문화재이다. 1956년 충북 단양출신인 그는 한학자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어 팽이깎기, 썰매 만들기 등 전통 놀이기구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러던 중 12살 석공인 외삼촌에게 돌을 고르고 만지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재순 석장은 스승인 김진영 선생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석공의 길로 들어섰다. 김진영 선생은 조선시대 경복궁 석조물을 조각한 이세욱 선생과 김맹주 선생의 맥을 잇는 석조각계의 대가다. 이재순 석장은 김진영 선생으로부터 전통기법과 장인이 지녀야할 정신을 배운 뒤 두 번째 스승 김부관 선생을 따라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보수작업을 했다. 덕분에 불교미술 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해 석조각 공예가의 길에 들어섰다. 또한 그는 백제 최초불교 도래지인 영광 마라난타사에 사면불상을 조성하는 등 불교와 인연이 깊다.

이재순 석장은 "불국사 석굴암의 놀라운 조형미를 보면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며 "석굴암 같은 세계적인 석조물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숭례문, 생애 마지막 작품"

한형준 제와장(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83)은 '조선 기와의 맥'으로 통한다. 2011년 여름부터 지하 100m에서 길어 올린 고운 진흙을 장흥의 안양면 모령리에서 가져와 밟고 다진 후 흙 판으로 기와를 만들어 가마에 굽는 방식으로 전통 기와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형준 제와장은 "몸이 다소 불편하지만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는 일념으로 이번 숭례문 복원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30년 화가 인생을 돌아보며

한국화가 임효…13일까지 한가람미술관서 전시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영문판인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의 삽화작업을 맡았던 한국화가 임효(57)씨가 개인전을 연다.

3월 1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여는 이번 전시는 60세를 앞둔 임효 작가가 실험성 강한 청년작가 시절의 화업(畵業)을 마감한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임효 작가

어린 시절 각종 사생대회의 상을 휩쓸 정도로 예술적 재능이 있었던 임효 작가는 법관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교시절 무작정 상경했다. 홍익대 미대를 졸업한 그는 금남여중 미술교사로 3년 동안 일하다 그만두고 이대역 주변에 미술학원을 차려 큰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작업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1988년 전업작가로 변신했다. 학원 경영을 통해 번 돈으로 유럽 미술 여행을 떠났다. 임 작가는 스페인에서 고야의 '거인'을 보고나서 귀국해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다. 이때 임효 작가는 주로 7~8m짜리 대형작품들을 그렸다. 두어번 전시를 하고 나니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이 다 떨어졌다. 목동에 집까지 장만했던 그였지만 집을 팔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기 광명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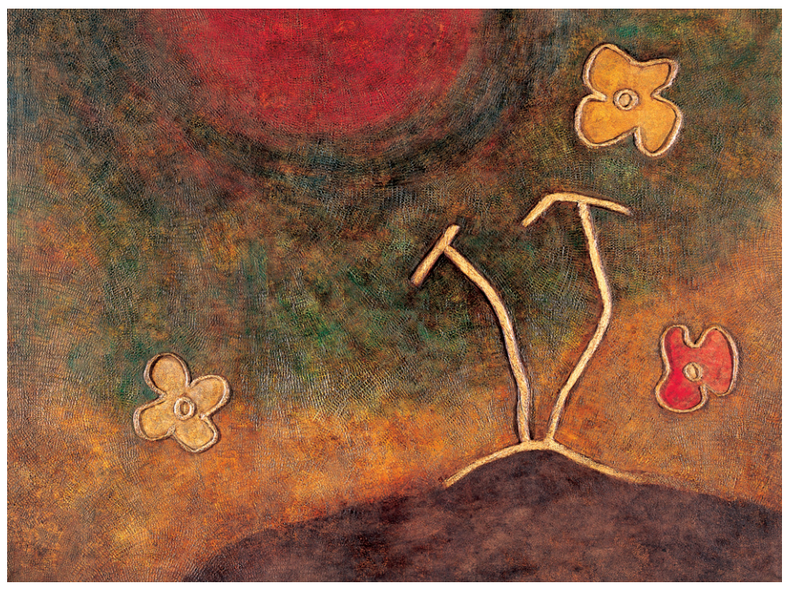
그러던 중 1994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다. 유엔 에스캅(UN ESCAP ·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정부 간 고위급회의) 건물에 들어갈 작품으로 그의 작품 '일월도'를 넣자고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지금도 태국 방콕의 유엔 에스캅 건물 로비에 걸려 있다.

임효 작가의 작품에는 한지가 단순한 소지(素地)가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지에서 출발해 한지로 끝난다고 할 만큼 그의 작품에서는 한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1995년부터 도판 표면에 한지원료를 압착시킨 부조판화를 선보인 작가는 압인한 한지원료 위에 다시 채색을 함으로써 입체감을 강화한 독특한 작품을 제작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린다기'보다는 '만든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시각적인 면보다 촉각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

몇 년이 흐른 뒤 임효 작가는 수묵 재료를 활용한 '생성과 상생'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2000년대 선보인 작품에서 임 작가는 재료와 채색, 아크릴, 석채 구분없이 마음속의 형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2009년 독일로 그림공부를 떠난 그는 함부르크에서 1시간 거리의 메클렌부르크주 바드 도버란의 레지던스에서 그림을 그리며 추운 겨울을 보냈다. 폭설이 내려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그의 작업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동반자 218×290㎝ 수제한지, 수묵, 석채, 옻칠 2012

임효 작가를 안쓰럽게 여긴 레지던스 주인은 매일 그의 식탁에 서양란 한 송이가 담긴 화병을 올려놓았다.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낯선 땅에서 고독과 싸우던 작가에게 안주인의 따뜻한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꽃은 그의 작품 '교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모든 것을 걷어내고 저의 내면으로 들어가니 비로소 본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외로워 문득 쳐다본 하늘은 바로 고향 하늘이었어요."

임효 작가는 "타향에서 본 하늘과 달에서 우리 삶의 애환도 다 하늘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에서 시작된 교감과 내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늘' '연기(緣起)' 시리즈 등으로 이어졌고 형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독을 담아내려니 작업도 추상으로 옮겨갔다. 손수 만든 한지에 옻칠을 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 임효 작가는 2009년 독일로 그림공부를 떠났을 때 경험한 교감과 내면 세계를 담아낸 '하늘' 시리즈와 추상작업 '연기' 시리즈 등 화폭 2~3m의 대작 60여 점을 선보인다.

임효 작가는 "60대에는 '청년 작가'를 벗고 70대에는 많은 사람이 바라봐주는 그런 예술세계를 갖고 싶다. 80대까지 삶이 허락된다면 '우리다움'을 치열하게 추구한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070)7404-827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상월쇄봉 선사의 '솔바람이 밤의 현을 울리다. [松風鳴夜絃]'

달만 하늘에 떠 있네

潤瑟誰彈曲 (윤슬수탄곡) 시내 비파 누가 곡조 튕기나
松琴自奏絃 (송금자주현) 솔 비파 스스로 현을 연주하네.
鐘期何處在 (종기하처재) 종자기 어느 곳에 있는고
惟有月當川 (유유월당천) 달만 하늘에 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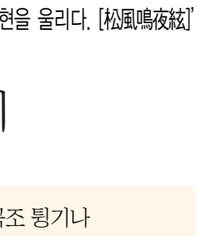
조선 상월쇄봉(霜月璽封; 1687~1767)스님은 평소 후학들에게 유가와 석가의 구별이 없으니 안팎의 학문에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실다운 마음과 실다운 행으로 치문들의 의지처가 되었고 문도들은 스님의 지혜와 덕을 취해 평진(平眞)이라 칭했다.

겨울바람이 부는 날, 솔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고 차갑게 들리는 것은 산사의 심상한 일이다. 찬 달이 하얗게 비치는 밤이면 더욱 그러하다. 스님은 특히 이 밤, 이 자연의 울림이 아까웠나 보다. 아! 이 울림[鳴]. 분명 백아가 타는 거문고 소리일레라. 갑자기 종자기를 생각한다. 백아는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자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더 이상 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밤 백아가 연주한다. 그렇다면 분명 종자기가 있을 것이다. 스님은 종자기를 찾는다. 옳거니! 바로 저 하늘에 둥실 걸려 있는 달이로구나. 저 달은 곧 스님 자신이다. 백아가 타는 거문고 소리를 알아듣는 자신은 이미 종자기이다. 솔바람은 백아의 거문고요 종자기는 달이다.

달빛이 창호를 훤하게 밝히는 야반, 고요 속에 울려오는 솔바람 소리는 무겁게 일렁거리며 후끈 달아오르는 생각의 꼬리를 베어버리는 날 선 칼날이다. 이날 스님은 한 경계의 문을 부숴 버린 것은 아닐까? 그 기쁨을 알아주는 이를 기다리는 간절함인지도 모르겠다.

시냇물 소리와 솔바람소리가 더욱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음(無音)의 달빛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달빛이 더욱 고요하고 맑은 빛을 발하는 것도 시냇물 소리와 솔바람소리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은 깨닫는 데 전부를 얻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 서로가 있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어우러짐' 때문이기도 하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경주 화강암에 새긴 聖과 性

오채현 조각가 3월 12일까지 개인전

성모마리아를 조선 여인으로 묘사한 조각을 세계 가톨릭 본산인 로마 바티칸으로 보내 눈길을 끌었던 조각가 오채현이 서울 청담동 'Able Fine Art NY Gallery Seoul'에서 개인전을 연다.

'Saint and Sex'를 주제로 3월 12일까지 전시를 여는 작가는 기존의 함박 웃음을 짓는 호랑이, 천진난만한 표정의 불상 등의 표현을 탈피한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다리를 벌린 채 음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여인상과 간다라적인 풍취가 물씬 풍기는 부처조각도 고정관념을 부순다.

사실 오채현 작가가 2005년 보낸 한국적 성모자상도 가슴을 드러내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조선 여인의 모습이었다. 때문에 근엄한 종교계에서 작품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성모상과 여인상은 세속적인 음란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오히려 예의 그 평온함이 가득하다.

오채현 작가는 "성(sex)은 인도 밀교에서 말하는 탄트라, 즉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성"이라며 "유교적 관습과 종교적 근엄함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구도자가 고된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나 쾌락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채현 작가는 화강암에 새긴 불상

밀교적 입장에서의 수행은 이질감이 들기에 충분하지만 오 작가의 작품에서는 자아성찰과 깨달음을 향한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음이 느껴진다.

작가는 경주 화강암 특유의 질감과 색에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길을 입혔다. 그의 조각들은 성(聖)과 성(性) 이라는 무거운 선입견에 가득 차 긴장한 우리를 피식 웃게 만든다.

경북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 미술 아카데미 조각과를 졸업한 오채현 작가는 종교인이 아니면서 종교작품을 만든다. 지극히 한국적인 작품만을 만드는 그이지만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놓치고 있던 본질을 그의 작품을 통해 꿰뚫는다. 그는 자신만의 조각을 통해 고상한 종교가 아닌 우리 생활에 녹아있는 종교와 터부시되는 성이 아닌 인간 모두의 근원의 성을 작가만의 색깔로 풀어내고 있다. (02)546-3057

이나은 기자

법정 스님 생각하며 지은 노래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음반 발매…9일 공연

불교적 정서가 담긴 노래를 발표해온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법정 스님의 글을 노랫말로 담아낸 음반 〈무소유의 노래〉를 발표했다.

〈무소유의 노래〉에는 가수겸 작곡가이자 시인인 김현성(사진) 씨가 법정 스님의 대표작인 〈무소유〉를 비롯해 〈아름다운 마무리〉 〈홀로 사는 즐거움〉 등의 책을 읽고 노랫말을 만들어 곡을 붙인 노래 12곡이 수록됐다. 특히 '홀로 사는 즐거움'의 가사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노랫말을 직접 보고 허락해 만든 노래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앨범에는 가수 김현성 씨가 직접 지은 가사 뿐 아니라 정호승, 도종환, 문태준 시인들의 작품에서 따온 노랫말들도 가득하다.



김현성 씨는 〈이등병의 편지〉 등으로 KBS아름다운 노랫말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서정적이며 의미 있는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무소유의 노래〉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이 3월 9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법정, 나를 물들이다〉의 저자 변택주씨가 초대손님으로 출연한다. (02)2052-5988

이나은 기자

대원공덕성취케하는 상서로운 팔길상다라니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이루게하는
제불보살 자비손과 제천선신 옹호, 대천세계 항마조복, 문수보살 멸정업, 보현보살 멸죄, 관세음보살 멸업장, 선망부모 왕생정토, 해원결, 보시주은, 친족화합, 몸 속의 모든 병고소멸, 제병퇴치, 재물은 부족함없이 마음대로 얻어지는 여의주인 팔길상다라니 액자를 걸어두는 곳에는 모든 공덕성취, 일체공덕 회향, 사대강건 육근청정이 절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팔길상(八吉祥)다라니는 티벳불교와 밀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여덟가지 상서로운 문양으로서 법륜, 법라, 일산, 산개, 금어, 보병, 연화, 인연의 문양고리를 합쳐 만들어진 부처님의 장엄 법구입니다.

사찰 불법력 성황원활 기원할 때 • 불사 신도번창을 발원할 때
사업, 장사 성공을 기원할 때 • 재물운, 금전운이 좋아지길 바랄 때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랄 때 • 부부가 화목, 가정이 평안하길 원할 때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길 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 완치되기를 바랄 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고 뒤숭숭할 때

사이즈 | 가로 26cm×세로 33cm×두께 3cm, 제조원 | 티벳, 수입처 | 룽다원, 가격 | 180,000원(사찰스님 20%할인)

입금계좌 농협 302-4233-7099-14 전화 010-4233-7099

옴마니반메훔 연꽃 윤장대&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요!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팔만대장경전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윤장대, 또는 법륜대라고도 하는 이 법구는 한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윤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기수련원,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윤장대는 1.5V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왕래재수가 원할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찰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윤장대 사이즈 | 높이 17×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찰스님20%할인)
제조원 | 티벳 / 수입처 | 룽다원

입금계좌 농협 302-4233-7099-14
전화 010-4233-7099

“문화재는 우리의 혼”

혜문 스님, 문화재 제자리찾기 중요성 강조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혜문 지음
작은숲
1만4000원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해 해외 강탈 문화재 환수 운동에 앞장서 온 혜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이 우리나라가 되찾아야할 문화재에 대한 비밀을 밝힌 책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를 최근 펴냈다.

책에는 저자가 지난 5년간 빼앗긴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을 추진하면서 수없이 던졌던 “우리는 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잡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했던 흔적을 3부로 나누어 담고 있다.

제1부 망각의 역사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명성황후를 절명시킨 칼이 아직도 신사에 기념물처럼 보관돼 있다는 사실, 일제 경찰이 만든 ‘조선 여성의 생식기 표본’이 최근까지도 국과수에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들을 적고 있다.

제2부 환국의 그림자는 우리가 되찾은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문화재 환수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반환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홀한 우리 인식을 살피고 있다. 1965년 짚신과 막도장을 돌려받고 ‘문화재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 미군 병사가 훔쳐간 문화재를 되돌려 받았지만 60년 동안 그 행방을 모르고 있었던 정부의 무능함, 〈조선왕조실록〉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대의 태도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3부 빼앗긴 문화재의 꿈은 앞으로 되찾아야 할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문화재들은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질곡의 역사를 증언할 ‘역사성’이 담긴 것들 중에서 엄선된 것들이다. 저자는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 구조를 직접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책에서 저자가 적고 있는 목록들은 앞으로 우선적으로 환수돼야 할 우리 문화재들이다.

저자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단순히 빼앗긴 문화재를 제자리에 돌려 놓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조상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정신을 찾는 과정이자,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문화재는 교과서 속에서 외워야 할 지식이나 관광상품이 아니다. 우리의 살아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역사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되뇌인다. “혼이 담긴 계란은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45명의 2막 인생이야기



앙코르 내 인생
조선일보
앙코르 내 인생팀
더숲
1만3500원

인류의 평균 수명이 100세에 근접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d)’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 후의 삶 · 준비된 노후의 삶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처럼.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경제적 불안, 더 이상 사회 중심에 있지 않다는 심리적 공황 등 사회적인 뒷받침 없이 온전히 개인 문제로 귀착된다.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재앙이자 공포에 가깝다.

〈앙코르 내 인생〉은 고단한 밥벌이로서의 첫 무대를 마치고 당당히 인생 두 번째 무대에 오른 45명 2막 인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 안의 45명은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흐뭇한 웃음을, 때로는 깊은 감동을, 때로는 작은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고교 영어교사에서 보디빌더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웃음 짓게 만든다. 갑작스런 아내의 암선고에 잘 나가던 대기업 건설사 임원을 마다하고 작은 공방에서 기타를 만드는 주인공의 가슴 울리는 이야기도 있다.

조동섭 기자

서재탐방 | 유필화 교수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부학장

“경영인은 문사철 소양 겸비해야”

우리는 경영학에 대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라 알고 있다. 어찌보면 인간과 만물의 가치를 강조하는 불교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은 접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부학장 · 59)는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치열하게 현실과 부딪히는 삶의 현장인 기업경영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자리이타(自利利他), 수처작주(隨處作主) 등 불교적 사상이 현대 기업의 고객만족과 비전제시, 주인의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경영 원리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 교수는 1997년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라는 책을 펴내 21세기 경영이념을 인간중심의 전통 불교정신 속에서 찾고자 했다.

유필화 교수는 기업경영 본질을 고객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활동에서 찾는다. 때문에 그는 “경영인은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문학작품과 인문학 서적을 읽음으로써 쌓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연구소에는 유필화 교수가 강조하는 문사철 지혜의 보고가 가득했다.

부인 이기향 교수(한성대 예술대학원 대학원장 · 의류패션산업전공)가 꾸민 연구소는 그리스와 석굴암 양식이 한데 어우러져 동 · 서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유 교수의 서재는 2층에 있었다. 서재에는 불교서적, 서양철학서, 각종 문학서 등 3000여 권이 소장돼 있었다. 북한에서 편찬한 〈한글팔만대장경〉과 독일 빌레펠드대학 초빙교수 시절 배운 독일어로 읽기 시작한 독일 역사 · 철학서, 〈토지〉 〈혼불〉 〈태백산맥〉 염상섭의 〈삼대〉 등이 눈에 띄었다.

유필화 교수는 정독형 독서가이다. 책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필요한 책만 골라서 읽는다.

“현재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일본어 원서로 읽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시각에서 아주 잘 쓴 책이죠. 역사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데 훌륭한 저서입니다.”

역사서를 좋아하는 유 교수는 〈삼국지〉와 〈열국지〉를 훌륭한 경영전략과 리더십의 교과서로 손꼽았다.

유 교수는 “서양을 이해하려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이해해야 하고 동양을 이해하려면 불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삼국유사〉를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삼국유사〉는 다른 역사서에는 보기 어려운 단군 신화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신화 · 설화와 방대한 양의 불교와 민속 신앙 자료가 한데 아우러져 있습니다. 일연스님이 발로 뛰면서 작업한 〈삼국유사〉를 통해 당시 삼국의 지도층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 제가 매우 좋아하는 책입니다.”

한국문학 중에는 벽초 홍명희(1888~1968)의 〈임꺽정〉을 추천했다. 백정 출신 도적 임꺽정의 활약을 통해 조선시대 민중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린 대하역사소설이다. 유 교수는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나 문장의 솜씨 및 비유가 탁월하다”며 “기업경영인이 이 책을 읽는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길러진다”고 설명했다.



정독형 독서가 유필화 교수. 저술과 강연을 통한 포교가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 기업경영에 사상기반 제공
선불교 지혜 경영학에 접목한 책 집필 계획
‘삼국유사’ 등 추천… ‘로마인 이야기’ 읽는 중

유필화 교수는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불자였던 모친의 영향으로 그는 어릴적부터 불교와 친숙했다. 중학교 시절 도선사 청담 스님과 보문사 정진 스님을 친견하기도 했다.

1972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MBA를,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로라 하는 국내 · 외의 명문대학을 단 한 번의 늦춤도 없이 직선상으로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

유필화 교수는 1981~1986년 하버드대 유학시절 한국사찰에 다니면서 불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 불교와 경영을 연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귀국 후 그는 평소 존경해오던 원효 · 일타 · 법정 스님의 저서들 중 웬만한 것은 다 읽었다. 사찰 주지스님, 고위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불교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다수의 강연도 진행했다. 저술과 강연을 통한 포교가 그에게는 큰 기쁨이다.

마케팅과 경영학 서적의 저술 외에도 평소 문학에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습작을 해온 유 교수는 2006년에는 사랑과 참나[眞我], 세계관 등을 진솔하게 담아낸 시집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도 펴냈다.

유 교수는 올해 연말까지 경영학술서 두 권을 펴낸 뒤 2013년 부터는 인문학, 불교와 경영을 접목한 책을 집필할 계획이다. 특히 선시를 즐겨 읽는다는 그는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선시에 녹아있는 지혜를 경영학을 통해 현대사회에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선사들의 어록을 수집하고 있다.

한국기업인들이 가져야할 불교적 덕목이 무엇인지 유 교수에게 묻자 그가 늘 강조해오던 것들이 대답으로 돌아왔다.

“삼성 · 현대 ·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이제 예전과 달리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경제적 부(富)를 따지자면 근본적으로 고마워할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업인들 스스로가 공인의식을 갖고 깊은 경영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유 교수는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하는 상대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는 것이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불교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마인드가 약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직원을 쉽게 해고하죠. 우리나라 지식층의 8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광복 후 엘리트 층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반면 일본 국민 대부분이 불자이다 보니 불교 경영이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교세라 그룹의 초대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 같은 성찰이 있는 경영자가 나올 수 있던 것도 바로 불교덕분이죠.”

유 교수는 불자들에게 “본인이 불자라는 것을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홍법해 달라”며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탱화, 건축 등 불교를 토대로 한 문화는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불교공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2~2/2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5	마음수업	이광정	휴
6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7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8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9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10	무문관 참구	장휘옥, 김사업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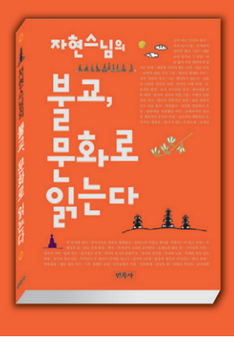
불자들을 위한 품격 있는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외형은 콘사이스, 내용은 대백과사전!
핸드백에 쏙~ 들어가는 불교사전
불교의 모든 지식이 한 권의 사전 속에 들어 있다

부산불교대학교 명예교수 김승동 편
1,216쪽 | 4,950여 항목 수록 | 38,000원 | 고급양장 특수제본

사회적 현장을 떠난 불교,
그것은 이미 불교가 아니다!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
7년만에 탈고한 학술서!
수십 년 동안 젊은 불교운동에 앞장선 김재영 법사님의 신간
초기불교의 역사적인 전법 개척과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통찰해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불교의 역동적 에너지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 책에 들어 있다.

김재영 | 488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민족사

자현스님의 불교, 물과 무화로 읽는다
글 · 자현스님
400쪽 | 13,000원
150×210mm

맨발로 법당에 들어가면 어때!
승려도 고기 먹는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자현스님의 유별난 불교 이야기가 시작된다

간화선 수행의 교과서, 무문관
무문관 참구
10년 전,
두 사람은 수행을 위해
잘나가던 동국대학교 강단을 떠나
외딴 섬 오곡도로 들어갔다.
…
번쩍, 몽둥이가 날아오고
물컵에 담긴 물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
선방에서
화두를 뚫다.

제창 · 장휘옥, 김사업 | 416쪽 | 22,000원 | 175×230mm 양장

부처님 핫이슈에 답하다

현대사회의 딜레마에 전하는 붓다의 메시지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우리는 왜 명성을 얻고 싶어 하나?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섹스에 매달릴까?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어쩌다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었을까?
생명공학은 행복을 가져다줄까?….

법(法)은 진리이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지만, 법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상주(常住)한다.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법은 오늘을 사는 중생의 저 질문들에 어떤 해답을 줄까.

데이비드 로이(前 日 분코대 교수)는 저 질문들에 대한 불교석 해설을 저서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에 담았다.

저자는 "불교의 핵심이 '사람들의 고(苦)를 줄이는 것' 이다"라고 말한다. "불교가 지금 의미 있으려면 '현대의 고' 를 줄이는 데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문제내고 해답을 구한 것들은 돈, 섹스, 시간, 음식, 명성, 전쟁 등 인류문명사에 있어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스테디한 이슈들이다. 저자는 불교는 이것들이 우리 삶과 구체적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학에서 철학을 배웠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불교 수행을 해 법사인가도 받은 불자이다. 경전과 역사를 넘나들며 우리시대와 통하는 살아 있는 불교를 찾아 헤맨 끝에 저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

불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생각거리들을 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오늘날 불교가 전개되고 있는 바탕에는 생태적 · 경제적 · 사회적 위기에 빠져 있는 지구 문명이 있다. 불교는 우리가 이런 도전을 견뎌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돈과 명성에 목을 매는 이유

논의의 출발점은 불교의 '무아' (無我)이다. 무아는 우리가 보통 변치 않는 '나' 라고 인식하는 게 실제로는 없다는 개념으로, 우리의 상식에 정면 도전한다. 그럼 불교에서는 왜 '나' 가 없다고 하는 걸까?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맺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영양을 주는 음식, 생명을 준 부모, 기쁨을 주는 친구, 숨 쉴 공기를 주는 나무 등을 비롯한 세상 모든 것으로 꽉 짜여 있는 그물의 어느 한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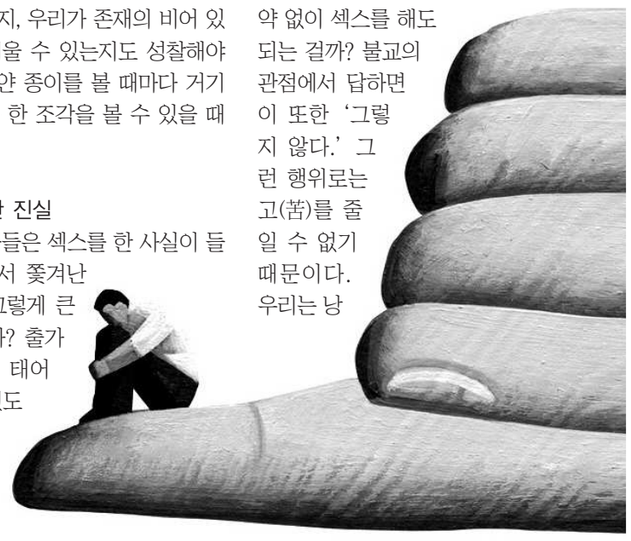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이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나' 로 여긴다. 이렇게 스스로를 왕따시킨 결과 마음에 구멍이 뚫린다.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데서 오는 극심한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 있지만 죽은 목숨"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돈과 명성에 목을 매는 건 이 둘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위에서 돈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부자나,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 유명인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수단들이 진정한 치유책이라면 어째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걸까? 혹시 이런 노력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우리는 '나' 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나' 가 없는데 어떻게 '구멍' 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존재의 비어 있는 곳을 과연 메울 수 있는지도 성찰해야 한다. 우리가 하얀 종이를 볼 때마다 거기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섹스의 불편한 진실

불가의 출가자들은 섹스를 한 사실이 들통 나면 승가에서 쫓겨난다. 왜 섹스는 그렇게 큰 잘못이 되었을까? 출가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섹스 덕분인데. 저자는 이를 알기 위해선 불교의 역사적 전



불교의 핵심은 중생의 苦 해소
돈 섹스 시간 음식 명성 등 고민
불교적 해답에 대중은 눈떠야

개 과정을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섹스가 승가에 초래할 두 가지 위험을 주목한다. 하나는 섹스의 결과 태어난 아이 문제이다. 아이가 생겨나면 출가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가 일본 불교에서 볼 수 있는 가족 사업화된 사찰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가자들은 돈이 되는 장례식과 추도식을 뺀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스님과 신도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승가는 신도의 공양에 크게 의존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신도들이 출가자에게 더 큰 순결성을 요구한 결과 출가자의 순결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출가하지 않는 재가자들은 제약 없이 섹스를 해도 되는 걸까? 불교의 관점에서 답하면 이 또한 '그렇지 않다.' 그런 행위로는 고(苦)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신화에 빠져든 나머지 섹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적 친밀감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곤 한다.

저자는 말한다. "섹스는 자연의 속임수이고, 낭만적 사랑이란 그 속임수 위에 덧칠해놓은 정서적 광택이다"라고. 낭만적 사랑이 끝난 자리에 자녀 양육과 같은 책임만 남았을 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고 저자가 섹스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저자는 섹스의 장점을 인정한다. 다만 '섹스는 행복에 이르는 길' 이라는 신화에 감춰진 '섹스의 불편한 진실' 을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자고 제안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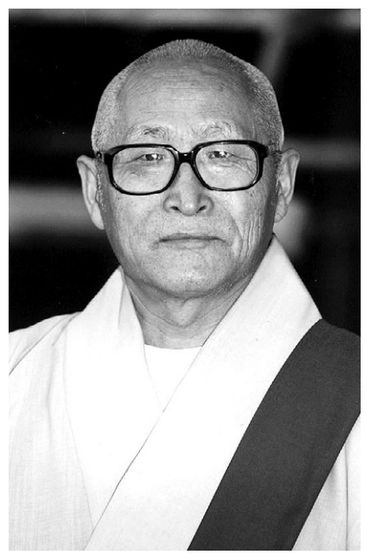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데이비드 로이 지음
허우성 옮김
불광출판사

마음을 깨우는 죽비소리

우담토굴 무불 스님 일상에세이



병환에도 키보드 두들기던
무비 스님 보고 인터넷포교 시작
칠곡 토굴서 홀로 정진하며
천일 기도 · 법문 모아 펴내

살기 힘든 세상이다. 참고 살아야 하는 곳이 우리네 살고 있는 사바세계라지만 좋은날은 언제였는지 하루하루 견디기를 힘들어 하는 이들이 많다.

칠곡 우담토굴에서 10년 넘게 정진 중인 무불 스님은 "인생에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항상 비례한다. 공(空)에서 보고 무(無)에서 들어라"라고 조언한다.

〈마음의 꽃을 피워라〉는 다음카페 인터넷 법당(cafe.daum.net/mubul)을 연 무불 스님이 1000일 기도를 하며, 1000일 일상에세이 법문한 것을 추려 엮는 책이다.

저자는 두메산골 토굴에서 정진 중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법향을 나르는 일 또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움막집 토굴에서 홀로 수행 중이지만, 경봉 · 성철 · 서암 · 법정 · 고우 · 무비 스님을 스승 삼아, 벗 삼고 지낸다고 말한다.

저자는 "경봉 노스님은 승속으로 할아버지다. 다음 생에도 꼭 노스님 문하에 태어나겠다"고 말한다. "성철 큰스님은 열반송으로 나의 인생 수행법을 바꾸신 스승이고, 서암 큰스님과는 법거량을 나눈 사이이다"라고 설명한다. "법정 스님은 스님의 글을 읽고 언젠가 나도 스님처럼 글 쓰는 스님이 되고 싶어 했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고우 스님은 한 치의 부정이 없는 청정하고 고고한 스승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들 스님과 함께 토굴서 수행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불교 가훈 '성향(聲香)' 말이 향기로운 세상 만들기 100만호 운동도 저자가 정진 삼아 전개 중인 일이다.

"경봉 노스님은 누가 찾아와 글씨를 부탁하면 성향무진(聲香無盡)이란 글씨를 자주 써줬습니다. '소리(말씨)의 향기가 다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 는 뜻이지요. 사람의 말에 향기가 나면 참보살이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인터넷 포교를 시작한 것은 무비 스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봉림불교대학에서 무비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었고, 이를 정리해 〈금강경 이야기〉(운주사 刊)를 펴냈다.

어느날 무비 스님이 주석하는 범어사 염화실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컴퓨터를 보았다. 당시 무비 스님은 허리 수술로 몸을 겨우 가누면서도 컴퓨터 강의를 하고 있었다. 저자는 무비 스님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스님처럼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겼다. 인터넷 카페 법당을 만들어 일상에세이 법문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병마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자는 묵언수행으로 이를 이겨냈다.

저자는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갈 스승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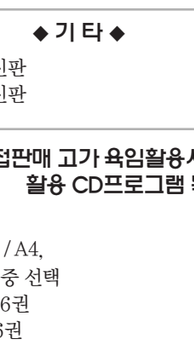
그리고 당부한다.

인생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고.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네잎 클로버의 행운보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만족하는 세잎 클로버가 행복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강조한다.

"원력홍심(願力弘深).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가 인생의 가장 큰 부자이다."

조동섭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라
무불 스님 지음
한가람
1만2000원

팔순 작가, 청각장애 부모와 대화하다



미국의 아동작가인 마이런 얼버그는 청각장애를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얼버그의 가정환경은 그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책 〈아버지의 손〉은 마이런 얼버그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책이다.

책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와 간질로 고통 받는 동생 사이에서 생활했던 저자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다.

그 안에는 무척이나 평범한 아프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 대목에서 배꼽을 잡게 만든다. 책에 녹아 있는 이야기들을 읽다보면 슬픔과 기쁨 속에 자리한 정(情)을 만나게 된다.

아버지의 손 | 마이런 얼버그 지음 | 송제훈 옮김 | 연암서가 | 1만3000원

조동섭 기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자전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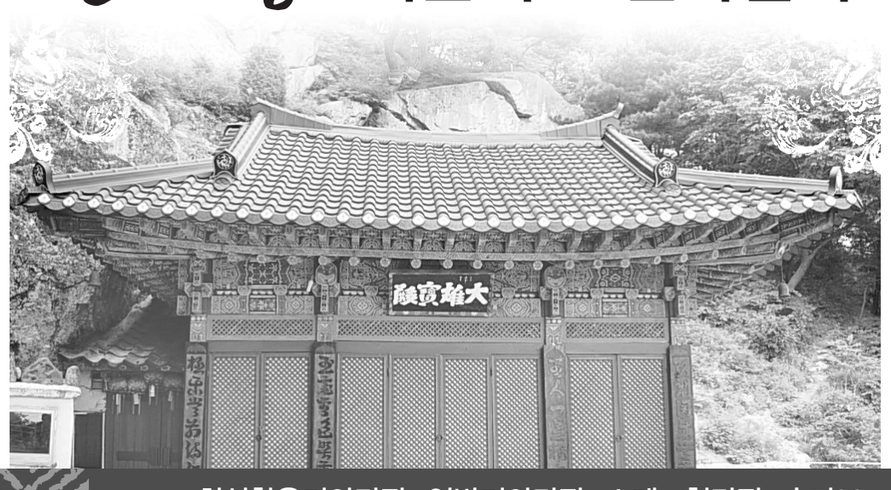


유카와 히데키는 일본 최초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다. 유카와의 노벨상 수상은 세계제2차대전 직후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과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였다.

책 〈보이지 않는 것의 발견〉은 유카와 히데키의 학문과 인생 이야기이다. 1949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저자는 동양적 세계관과 현대물리학이 접목된 그만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회, 자신의 인생과 학문을 관조적으로 기술했다. 책에는 겸손하고 성실한 학자이자 핵무기 폐기를 위해 노력한 인간적인 과학자이기도 했던 저자의 학문과 인생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의 발견 | 유카와 히데키 지음 | 김성근 해제 · 옮김 | 김영사 | 1만4000원 조동섭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 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정가 350만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띠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화와 설화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도깨비들이 하룻밤에 지은 영묘사



황룡사 구층탑에 버금가는 영묘사는 선덕여왕 때 양지 법사가 아닌 비형이라는 신이한 인물에 의해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사진은 현 흥륜사로 옛 영묘사 터이다.

1. 신화이야기

흔히 신들의 이야기를 신화라 하고, 인간의 이야기를 설화라고 한다. 그런데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과 그 이전에 이미 선재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과연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니면 '선재하는 존재'일까. 선행하는 전제나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신에도 자연신이 있고 인공신이 있다. 자연에는 모두 신성이 내재해 있다는 데서 자연의 신이 존재한다. 반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로서 인공의 신이 존재한다. 신에는 사람이 죽어 혼비(魂飛) 백산(魄散)한 뒤에 음덕을 준다는 조상신을 비롯해서 천신과 지신 및 동물신도 있고 식물신 등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이들 신들은 생명체와 연루된 귀신들이 대부분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건국시조들은 모두 신이한 탄생을 전제로 한다. 신이한 탄생은 인간과 변별되는 가장 큰 기제가 된다. 중국 고대의 제왕인 복희(伏羲)는 무지개와 신모(神母) 사이에서 태어났고, 역시 중국 고대 제왕인 염제(炎帝)는 용과 여등(女等)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중국 고대 황제인 소호제(小昊帝)는 스스로 백제(白帝)의 아들이라는 신동과 황아(皇娥) 사이에서 태어났고, 상나라의 시조인 설(契)은 알과 간적(簡狄) 사이에서 태어났다. 주나라의 시조인 기(弃, 后稷)는 거인의 발자취와 강원(강원 사이에서 태어났고, 한고조 유방(沛公, 劉邦)은 용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 건국시조들은 모두

건국시조는 모두 기이한 탄생 지녀
신 · 귀신의 삶이 인간과 공존함 시사

남성인 엑스(X)로 표현할 수 있는 '무지개'와 '용', '백제자(白帝子)'와 '알', '거인의 발자취'와 인연을 맺어 탄생했다. 여기서 '엑스'는 신들의 메타포이자 심볼일 것이다. 반면 여성인 어머니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일연은 "옛날의 성인(孔子)이 예악(禮樂)으로써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仁義)로써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이함[怪]과 용력함[力]과 패란함[悖]과 신이함[神]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이 제왕이 될 사람에게 상서를 주어 수명을 징험하는 부명(符命)과 천신이 주는 부신인 도록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보다 다른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래야만 능히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고 했다. 불교의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신화를 신화로서 이해할 줄 아는 합리적 사유를 지니고 있었다. '신화를 신화로서 이해하는' 이러한 태도는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전제가 된다. 때문에 이 책에는 무수한 신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이 책의 이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하늘님의 서자인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고(고조선), 귀신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도화녀 비형랑), 귀에 대나무잎을 꽂은 원군이 미추왕릉에서 나타나 적군을 쳐부수고(미추왕과 죽엽군), 문무대왕이 승하하여 동해의 용이 되고(만파식적), 33천의 한 아들이었던 김유신이 인간으로 내려와 대신이 되고(만파식적), 옥대의 왼편 둘째 눈금을 떼어 시냇물에 넣자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는(만파식적) 등 신이한 일들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즐비하다. 이 이야기들은 신 혹은 귀신의 삶과 무대가 인간의 삶 속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미신(迷信)'이니 '맹신(盲信)'이니 '광신(狂信)'과 같은 언어로 매도할 수 없다. 그 안에도 나름대로의 정신(正信)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설화이야기

일연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사가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사실(팩트)을 압축하고 절략하여 빼어난 이야기꾼으로서 재미있게 재구성해냈다. 이 때문에 '팩트'(사실)에 대한 가감을 허용하지 않는 실증주의사학에서 볼 때 〈삼국유사〉를 사서로 수용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가 시간이자 의식의 흐름의 기록이라면 그 시간에 참여하는 인간의 시간과 흐름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보는 사람의 각도와 시선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관점을 내올 수 있다. 그 팩트가 나의 주관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술하는 나의 의식 속에서 이미 취사선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연의 〈삼국유사〉가 편집적 성격이 강한 저술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료를 취사선택하고 그것을 자신의 편제에 따라 기술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관의 투영이 〈삼국유사가〉가 단순한 편집적 저술을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해서 〈삼국유사〉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재적인 사실 중심으로 기록한 〈삼국사기〉에는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문학적 상징과 비유로 수놓아져 있다. 때문에 〈삼국유사〉에는 왕실 안팎의 즐비한 정치적 사건들을 자신의 사관에 맞춰 없애버린 많은 '진실들'을 고도의 비유와 상징으로 담아내고 있다. 즉 승자의 편에서 기술한 〈삼국사기〉가 제거해 버린 것과 달리 〈삼국유사〉는 승자의 편뿐만 아니라 패자의 편에서까지 기술해 냄으로써 우리 역사를 보다 풍성하게 복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편향된 시각에 서서 주요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생략해 버린 〈삼국사기〉와 달리 균형적 감각 위에서 이루어진 〈삼국유사〉는 인간 삶의 극단을 치우침 없이 놀랍게 복원해 놓고 있다.

이를테면 일연은 '도화녀 비형랑' 조목을 통해 신라문명의 르네상스를 구축한 진흥왕 이후 신라 왕실의 정치 지형도를 보여주고 패자와 승자 사이의 균형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진지왕과 도화녀 사이, 즉 사람과 귀신의 결합[人鬼交媾] 이야기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비형(鼻荊)의 남다른 출생과 신이한 능력을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람과 귀신의 결합으로 임신된 것을 '귀태'(鬼胎)라고 한다. 귀태설화는 중국의 〈태평광기〉의 '염수'(苒遂)설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설화는 도화녀 설화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귀신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 혹은 귀신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귀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하나의 사료가 될 수 있다.

일연은 '도화녀 비형랑' 이야기 통해
패자와 승자 사이의 균형을 밝혀

'도화녀 비형랑' 설화의 이면에는 역사적 진실이 투영되어 있다. 비형이 진지왕의 사후에 태어났다면 그는 진지왕의 유복자(遺腹子)일 수밖에 없다. 일반 사서들에 근거하면 진지왕의 아들로는 용춘(龍春)이 있다. 반면 근래 발견된 필사본 〈화랑세기〉에 근거하면 진지왕에게는 용수와 용춘 두 아들이 등장한다. 이 둘의 관계를 형제로 보는가 하면 용수는 단순히 용춘와 음이 서로 비슷할 뿐[音相似]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설화는 용수와 용춘이 형제간이든 아니면 용춘의 다른 이름이 용수이든 간에 사륜계의 후손이었던 용춘이 왕위 다툼에서 동륜계(진평-선덕-진덕여왕)에 밀려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후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륜의 손자인 춘추가 무열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설화는 역사적 진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사가의 관점

설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륜(舍輪)계와 동륜(銅輪)계의 갈등과 공생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이 설화의 주인공인 비형은 용춘을 상징하고 있다. 용춘은 진평왕 51년(629)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 공격 때 대장군으로 출전하였고, 황룡사 구층탑을 총지휘 감독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 진지왕이 폐위되자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 대신 진평왕의 딸인 천명(天明)공주의 남편이 된다. 이 무렵 진지왕은 화랑제도 전반에 대한 유신(維新)을 감행하였다. 왕은 화랑과 미륵신앙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칠부와 김무력의 죽음을 맞았고 동륜계의 위협 속에서 백제의 공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기록대로 그의 '정사는 어지러워졌고[政亂] 주색에 빠져있었으므로'[荒淫嫐] 불명예스럽게 폐위되었다.

기록은 진지왕이 사량부의 서녀인 도화녀에게 통정(通情)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로 보면 이것은 신분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어서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설화의 주인공인 비형이 용춘이라는 전제 아래 본다면 도화녀는 사량부의 서녀일 수 없게 된다. 도화녀는 진지왕의 비인 지도부인은 사량부 기오공(起烏公)의 여식이다. 사량부는 중대 무열왕실의 왕비족이었다. 김유신의 금관가야계도 사량부에 편입되었고 효소왕대의 화랑 부례랑의 어머니 역시 사량부 경정(鏡井)궁주로 봉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설화는 진지왕 폐위 이후 그의 장인인 사량부 기오공의 몰락에 기초한 기록으로 이해된다. 왕이 폐위되면 폐위된 왕비족 역시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이 '정란황음'이란 표현에 담긴 '무능력'과 '부도덕성'으로 공격한 뒤라면 더했을 것이다.

기록처럼 비형이 무리를 이끌고 다니며 나라의 큰 공사(다리-문루)를 지휘했다는 것은 그가 전쟁에 무장으로 나아간 것을 암시한다. 또 그를 '랑'(郎)으로 불렀다는 것과 진평의 명에 의해 비형이 휘하의 유능한 인물로서 길달(吉達)을 천거한 일 등으로 보아 그와 그들을 화랑과 낭도 관계로 볼 수 있다. 14·15~17·18세 미소년으로 구성된 화랑도는 무리를 지어 도의를 연마하고 산수를 유람하며 인품의 호오(好惡)를 살펴 조정에 추천하였다. 〈동국여지승람〉 경주의 불우(佛宇)인 '영묘사' 조에 의하면 신라의 불교 사찰들이 다 무너졌지만 영묘사만큼은 완연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 속설에 전하기를 이 절터는 본디 못이었는데 두두리(도깨비)의 무리가 하룻밤 사이에 그 못을 메우고 절을 지었다고 한다. 황룡사 구층탑에 버금가는 영묘사의 창건이 선덕여왕 대의 양지(良志)법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형이라는 신이한 인물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진평왕-선덕여왕의 동륜계는 석존의 종족임을 내세우는 진종설(眞種說)을 원용하여 권위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라의 불국토설을 제창하였다. 결국 왕권이 동륜계로 넘어가자 당시의 안홍과 자장 등과 같은 고승 대덕 역시 왕과 왕실의 편에 섰다. 반면 사륜계인 비형은 비록 왕권 계승에서는 밀려났지만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언중(言衆)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 신라가 흥하려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는 무언의 암시가 있었다.

왕권이 동륜계로 넘어 갔지만 여전히
사륜계인 비형을 지지하는 존재 있어

이들은 용춘(비형)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사유와 가치를 존중하는 부류였고, 이 설화는 '신라 도깨비 시조에 대한 본풀이(시조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은 영묘사를 양지법사의 선정(禪定) 속에서 이루어냈다고 풀이했지만, 또 다른 전승에서는 두두리(도깨비)의 솜씨라고 적고 있다. '도화녀 비형랑' 조목은 신라문명의 반석이 불교라는 신사조(新思潮)에 의해서만 아니라 전통적 사유와 가치를 존중하는 또 다른 흐름에도 의지했음을 은유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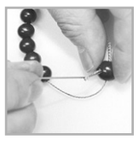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의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연말정산 발급 사찰로 등록
사암, 신행단체
신규 등록 접수
단체명은 한학학원(사)로
등록됨
010-3310-0004
도평 스님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000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 송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우주 기(氣) 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 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전통불교의식 무료수강
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출가행자 수시모집, 모든 의식
출장 집전해 드립니다
스님 달마 저렴하게 드립니다.
임진년 윤달 묘지 탈봉 회향 문의바람.
055)323-3569
010-2553-8827

종무소 부부 사무원 및 사무장
1. 숙식가능한 부부환영
2. 보 시 : 200만원(부부)
※컴퓨터가능자
3. 근무처 : 양산 신불산 신불정사
4. 주 소 : 경남 양산시 어실로 602-1
055)363-4669
010-3599-3124

역학 승도
스님 되시고자 하는분
역학 병행
친절 개인지도
02)856-7749
지 장 사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영동)
043)742-2057

신심있는 비구니 (30~40대) 스님 모십니다
(삼척 대덕사)
011-9416-774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해 보리암)
010-5360-6663

삼 혼 칠 백 기 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기도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 불교의식(전통소리 안정사) ◆ 사물 ◆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작법무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연수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2563-5550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60세 이상 가능)
010-3746-8887

비 구,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비 구,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거제)
010-5579-0404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종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행자 (출가자) 모집
출가 하여 자기완성과 더불어 중생제도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무문총림 영평사
한국불교 원융교단 무문총림 . 중앙불교대학원
문의처 : 본산중앙협의회 서울 (02) 496-3951-3
총 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영평사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 교육과목 :
기초 - 도량석, 아침종송, 사시마지, 저녁예불, 각단예불, 목탁, 요령, 북,태징, 동광쇠, 타법
기본 - 천도재의식 : 1. 시련,대령,관욕,39위,
2. 봉청짖소리,대령소(고혼소)복천게, 향화청(짖소리),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짧은소리
3. 상단, 관음시식, 상용영반
4.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화의재바라
5. 나비춤(도량게,다게)
고급 - 생전예수재,수륙재,방생,시다림. 종사영반 , 다비식, 종사이운, 쾌불이운
2. 개강일시 : 2012년 3월 3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토요일 오후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보살님 모십니다 법당도 보시고, 포교도 하실 분
(숙식도 가능)
부산 사하
051)204-8494

신심이 돈독한 기도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부산 도선사)
011-579-6444
051)721-0449

3년 동안 숙성한 진짜 100% 효소 145가지의 약초가 들어간 백초 효소
백초효소는 불가에서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기간 토굴에서 참선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위해 먹던 약초입니다.
< 백초효소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 >
- 목과 어깨가 뻐근함, 일어설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를 인한 제반증상과 경년기 장애 등
- 각종 암, 당뇨병 등 만성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할 경우 최고의 자연식품.
시중시세 절반 스님들에게 보급가액 1병 5만원 (2병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보급처 신도불이 영농조합
cafe.daum.net/jijangsw.8899
경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번지 부처골 지장선원 ☎ 054) 383-8553 , 011-9585-4908
입금계좌 :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 3/10(토), 3/11(일) 특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60세 전후)
010-9506-5706

부전스님, 기도스님,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영천 개원사)
010-2828-066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원진사
• 법 명 : 자 신 (김두수)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1-2번지
위 본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7일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신비의 예지법 강좌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 (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ttp://cafe.daum.net/cheonbu6

안양과학대학 평생교육원
명리학 초,중고급과정 육임 실전과정반
오천년의 문화유산 동양역학을 습득하여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사주명리학 초,중고급 과정 및 신규 육임실전반을 개설하였습니다.
< 모집안내 >
명리학 초 급 과정 20명 학기당 30만원
명리학 중고급 과정 15명 학기당 30만원
육임학 실전반 과정 20명 학기당 30만원
문의처 031)441-1090
www.ianyang.ac.kr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22-1 (평생 교육원)
명리담당자 h 010-9804-8801(이종인)
명리담당자 h 011-791-8222(윤석정)
육임담당자 h 010-4471-6410(공 념)

명당풍수지리
최고령인 118세를 좌탈하신 탄공선사와 182세로 입망하신 대도인 개운조사께서는 在世時 '인걸은 지령(地靈)이야' 라고 하시며 풍수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탄공선사로부터 비전된 풍수지리를 계승한 '야은당(野隱堂)' 이 명당풍수지리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양택 음택 수맥 출장감정
기업체 풍수컨설팅
※사찰포교당은 보시차원에서 풍수컨설팅 해드립니다.
윤달이장
118세 벽사도인 탄공선사의 동영상을 보세요
www.ungong.com
02)515-4415 / 011-724-6690
대한풍수지리연구원

불자정보 26 | 878호 | 전면광고

2012년 3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10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남
- 법당 : 64평
- 요사 : 10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6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6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창 원

- 대지: 200평(국유지 500평)
- 법당 20평, 원통전10평, 지장전 20평
- 용왕당 6평, 삼성각 6평, 요사방 3칸
- 전통한옥으로 전각 다수
- 가액: 6억 (은행 2억 포함)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주인직접 011-372-7744

절 터 (급) 안 내

소백산 정취에 흠뻑 젖는 곳, 깨끗한 물,
명상쉼터, 절터, 별장지.
된장공장 적합 現 장뇌산삼 농원 시설 하우스
100평 전1600평
충북 단양

주인직접 010-9220-3385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스님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송현동
- 4층건물에 4층, 전체 80평
- 법당: 삼존불 모셔져있음, 방2, 창고방1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관리비 1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436-34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파티마병원 옆
- 평수: 2층 34평
- 3층 공양간 33평
- 최고시설, CCTV완료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주차장, 현법회중
- 보증금 1500만원, 월 75만원
- 시설비 2800만원(상담후 결정)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역 지하철 도보 5분거리)
- 7층 건물 3층. 지하주차장 有
- 총평수 83평, 법당 약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 지장, 삼존불 칠성, 신중, 영가단
- 방3개, 주방, 거실, 실내 화장실 도시가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없음

010-9376-5633

포교원(급)안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5분거리
- 종교부지 300평, 국유지600평
- 법당 25평, 요사31평, 산신각
- 문화재급약사석불
- 가액: 1억 8천만원

011-677-8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소재 (역에서 자편 약 20분)
- 대지: 도지 사용, 연 35만원
- 건물 : 1층 독채 약 28평 개인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4천 5백만원(시설비포함)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 평수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4만원
- 시설비 480만원

010-5042-100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약 50여평
- 법당 2층건물, 요사1채
- 양도가액: 1억 4천만원
- 현재 운영중. 시내에 있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양도

019-305-9138
051)466-04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명동 산 3-1번지
- 평수 : 4천평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체 : 방 4칸)
- 대중공양 거실 큼, 좋고물종은 곳 마당까지 주차 100대 가능 (여름 피서객 많음)
- 가격 : 상담 후 가격절충

010- 3737-73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 3층건물에 3층
- 도심포교원 최적지
- 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마당포함)
- 월세 1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보증금 합 5500만원 (절충가능)

011-496-641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구봉산 사찰
- 내용: 전망 좋은 도심 산자락
- 80년된 청정기도 도량
- 대지 50평, 국유.사유지 50평
- 1층 요사채 50평 (방4, 공양간1, 관음전)
- 2층 법당 35평 옥탑, 해수관음입상
- 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이 좋으며, 공영주차장 100여대 완비되어 있음
- 3억 5천만원(절충가능)(대출1억 가능)

010-8660-581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소재 (역에서 자편 약 20분)
- 대지: 도지 사용, 연 35만원
- 건물 : 1층 독채 약 28평 개인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4천 5백만원(시설비포함)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포천시 송우리 근교
- 1층 50평, 위패단
- 2층 법당 35평
- 요사채, 공양실20평, 선방 6개
- 산신각, 휴게실 20평
- 가액: 14억(상담 후 절충)

010-7130-7246

명 당 사 찰 터

경주 남산 풍수와 환경 완벽함
뒤산에는 큰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건축허가 토목공사
돌담장까지 완성
등기면적 623평 실제사용 850평됨
평당 63만원

010-5014-145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도심속 조용한 산밑
- 남향 , 지하수 사용
- 대지 186평, 법당 건평 목조 25평
- 요사 26평, 주차 10대가능
- 가액: 4억 9천만원

010-6554-619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 찰 안 내

- 위치: 물 좋고 공기 좋은 옥천
- 충북옥천군동이면옥천 TG 10분거리
- 눈 앞에 대청호반 50m 관음성지
- 평수: 대지 192평, 건평 30평
- 실사용 60평
- 대웅전, 요사채, 임법당
- 시설비 포함 1억 7천만원
- 협의가능, 법회가능

016-234-792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구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30평, 방2, 주방,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 1050만원 (가격절충가능)

010-2208-7749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만촌동
- 총평수 42평
- 법당22평,방3
- 삼존불, 지장보살
- 즉시 법회가능
- 전세금 5천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사정상 급히 인계함

010-3506-2282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
- 비구니 스님이나 수행정진하는 신심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8620-88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 제물포
- 4층 33평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약간

070-8910-516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사거리 (금모선원)
- 평수 : 50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 시설비 : 1,300만원(조정가능)

010-2370-545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
- 서원시장근처
- 평수 : 37평
- 시설비 : 1500만원
- 보증금 :500백만원 월세 : 55만원

010-6480- 32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평가량
- 법당, 방2,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삼존불, 맞춤탱화 등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1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창원시 도계동
- 평수 40평, 법회즉시가능
- 스님 개인사정상 급 양도
- 시설 최상
- 가액: 전세 1,500만원 (시설비포함) 월 50만원

010-3118-117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 법당1채, 요사채1채, 평수 50평에 가까움
- 가액: 6천 5백만원

010-6394-7350
017-552-7350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55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1 ,방4 ,화장실2(실내외 화장실 각1개)
- 창고1,큰 주방 ,거실, 삼존불 후불탱화, 인등 230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
- 전세5천 월30, 시설비 답사후 결정
- 현대식 시설,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부근 • 부지 527평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40평 (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 가액: 2억 8천만원 (답사후 조절가능)

054)336-4848 / 010-5488-333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해남 터미널에서 3분거리
- 법당 1동, 약 25평, 목조
- 요사채2동, 심야보일러
- 공양간1동, 방총 7개, 종각, 관음전
- 도량 약 1천 6백평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양도
- 가액: 1천 9천 5백만원(대출 7천 4백만원있음)

010-8675-338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과 부곡온천중간, 영산IC에서 7분거리
- 평수 : 532평, 법당 30평(목조단청),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60평, 화장실2개)
- 석탑, 주차장, 창고, 텃밭, 용궁못
- 가액: 3억 7천만원, 시세이하양도,
- 시설완벽, 몸만 오세요

010-8664-8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남부동
- 법당 삼존불, 신중, 영가단
- 방2, 거실1, 공양간 1, 다용도실, 해우소
- 60평, 시설비무료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0-8669-5665

암 자 터 안 내

- 구례 토지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가액: 4천 3백만원
- 대출 30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0-9393-496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 법당1채, 요사채1채, 평수 50평에 가까움
- 가액: 6천 5백만원

010-6394-7350
017-552-735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남부동
- 법당 삼존불, 신중, 영가단
- 방2, 거실1, 공양간 1, 다용도실, 해우소
- 60평, 시설비무료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0-8669-5665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이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 숫타니파타 –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업의 이론 · 선정 등 불교는 최고의 심리학

삐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마음이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마음이 뇌신경 작용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마음이라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선지식으로 추앙받던 삐야닷시 스님(1914~1998)이 1972년 2월 13일 콜롬보 불교청년회(YMBA)에서 제5회 바론 자야띨라까 경(卿)을 추모강연한 법문이 〈마음, 과연 무엇인가-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이라는 책으로 출간돼 널리 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요한 소리'에서 번역 소개했다.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본질을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규명한 법문 내용을 금주부터 연재한다. 〈편집자〉

〈1〉 삶을 혁신한 인류의 스승 부처님

바론 자야띨라까 경은 불교청년회의 초창기부터 경이 돌아가신 1944년까지 46년간 청년회에서 회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설립 초기의 온갖 고난 속에서도 경은 후원자나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 거의 혼자 힘으로 협회를 키워내다시피 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사람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일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걸쳐 종횡무진으로 활약한 경의 생애를 회고하는 모처럼의 이 기회에, 우리는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사람 마음의 힘에 관해 하신 말씀들을 한 두 시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냉철한 자세로 초기 불교에 관한 서적들을 신중히 탐독하던 불교학도 자야띨라까 경은 활력 넘치는 인물, 종교적 스승 한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은 도덕적, 지성적, 정신적 완성을 통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지고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성과 강철같은 결의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널리 펴신 분이었습니다. 그 활력 넘치는 인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고따마 싯닷타, 우리에게 부처님으로 알려진 그분이었습니다.

이 스승은 인간 이상의 특별한 존재를 자처한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결코 수많은 여느 철학자들 중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삶의 방식[道]을 가르쳤으며 저 비길 데 없이 훌륭한 '진리의 수레바퀴[法輪, Dhamma-cakka]'를 굴리시어 인류의 사고(思考)와 삶을 혁신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적 열의와 크나 큰 사랑, 깊은 배려, 관용은 그분의 뛰어난 인격과 결합되어 당시의 인도인들을 무지의 잠에서 일깨우고 고무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과 시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인 법(法, Dhamma)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언어가 무엇이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나라에 살든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진리를 언어로 쓰셨고, 진리의 옷을 입으셨고, 전 세계가 그의 조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디에나 항상 있어서 누구든지 개인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보편성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심리학과 불교심리학

진리는 개념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말이나 그 밖의 상징에 의해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깨달은 분'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 중심적 종교
행동청정 · 자기 성찰 등
苦와 윤회 종지부 찍기 위한
도덕적 · 지적 단련 '삶의 진로'

그러나 마음의 숨은 작용을 밝혀내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내면의 힘에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불교에서 명상이라 부르는 자기 탐구의 방법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가르치신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어서 학자들은 불교를 종교라고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하고, 윤리적 강령, 종교 철학적 체계, 또는 윤리적 이상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불교처럼 심리학이 중하게 여겨지는 종교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학문적 연구분야에서처럼 일반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정적(靜的)인 면에서 정의하는 데 반해, 불교 심리학에서는 정신생활을 동적(動的)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많은 시련과 끈질긴 노력 끝에 마음의 정적 측면만을 고집하던 전통적인 학파들의 낡은 주장에서 벗어나 옛 학설인 역동적 심리 이론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원리는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 마음의 역동적 성질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대 심리학 교과서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을 마침내 버리고 심리학을 인간 행동에 관한 학문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학이 모처럼 찾아낸 올바른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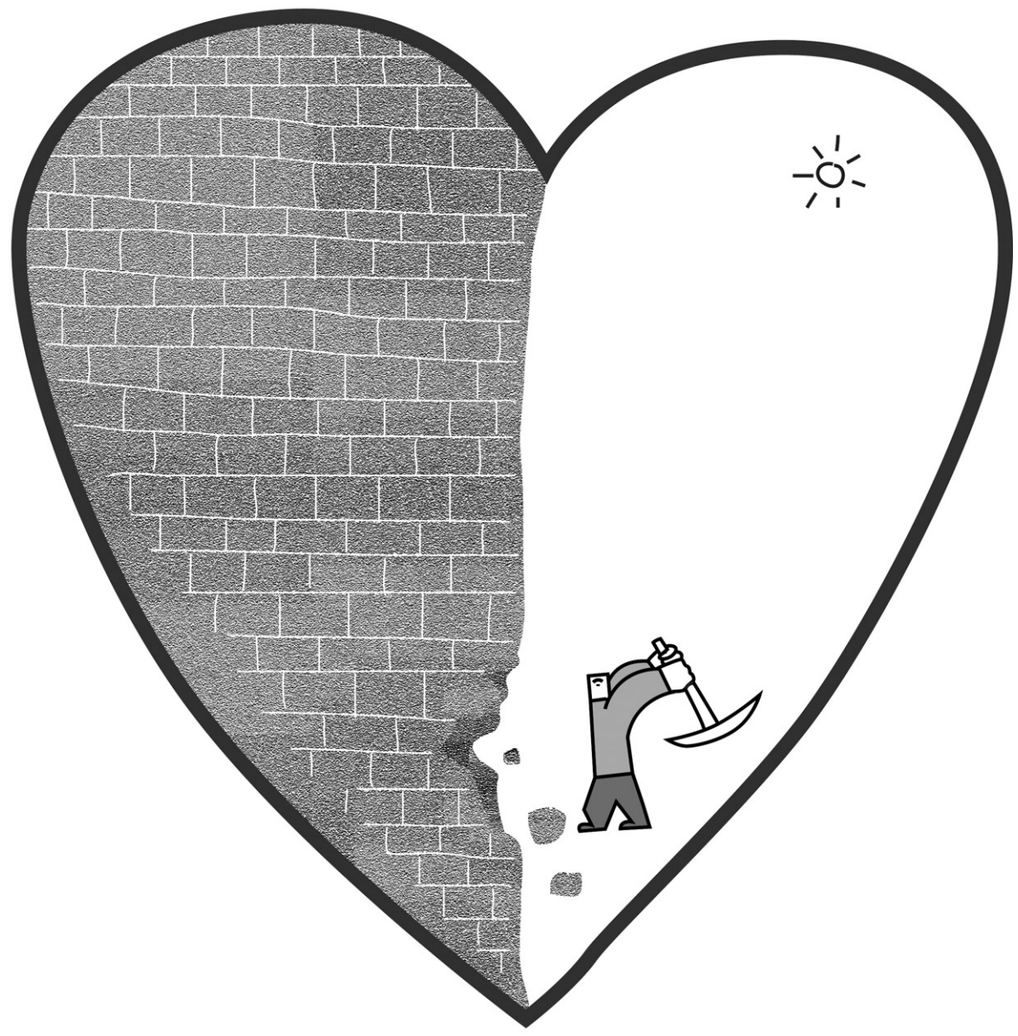
불교도는 종교가 과연 무엇이며, 종교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마저도 형이상학적으로 다루지 않고 심리학적이며 지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불교도에게 종교는 단순한 신조도, 하늘이 내린 율법도,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도 아니며, 피조물의 선행 · 악행을 상벌하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러한 신학적 관심이 아니라, 둑카[苦]의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학적이며 지적인 관심인 바, 여기에서 고(苦)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속성 바로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괴로움, 갈등, 불만 상태인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적 내용을 고찰해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창조주로서의 신의 개념을 골자로 하는 다른 종교 체계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도 종교성이 짙은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인류학자들이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뜻에서라면 불교는 오늘날 흔하디흔한 그 종교 속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개념은 신 또는 초자연적 힘을 중심으로한 체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규정된 의식(儀式) 체계나, 천인(天人) 또는 신들에 대한 예배와 기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어떤 높고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력이 거둔 결과로 봅니다. 결국 불교는 인간 중심적 종교이지 신 중심적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도에게 있어서 종교란 완전한 마음의 자유, 통찰의 구극적 성취에 이름으로써 일체 고와 윤회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덕적, 정신적, 지적 단련을 닦아나가는 노정이라는 의미에서 삶의 진로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이 침묵하신 이유

철학적 견지에서 볼 때, 부처님은 유사 이래로 동서양을 막론하여 모든 철학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혼란시키고 정신적 평형을 어지럽히기만 할 뿐인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인류가 고(苦), 즉 삶의 만족스럽지 못한 성질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같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기를 꺼려하시고, 또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경우에 따라 삼가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유한(有限)한가 무한(無限)한가, 세상에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그분은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은 종종 침묵을 지키셨으니, 침묵이야말로 그와 같은 사변적이며 무의미한 질문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의문과 이의(異意)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먼저 행동을 청정히 하고 이러한 청정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올바른 명상을 바탕으로 하여 깊이 자기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불교의 그 주요 교리들, 즉 의도적 행위 또는 도덕적 인과율을 가리키는 업의 이론이라든지 윤회, 선정, 그리고 선정이 가져오는 정신적 성취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인간 마음의 작용으로서 더할 나위없이 훌륭하게 연구,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야말로 최고 수준의 심리학 연구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 아비담마[論藏]에서는 마음과 마음에 부수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요소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 되어 있어서 불자의 삶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문답이나 법문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볼수록 심리학은 논장뿐만 아니라 경장(經藏)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본성에 관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에 관해,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이 되는 기법에 관해, 부처님께서 꼭 해주셔야 할 말씀들이 경장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삐야닷시 스님(1914~1998)은 … 스리랑카 태생으로 출가 전 印 나란다대학과 스리랑카 대학에서 수학했다. 20세에 득도, 스리랑카의 저명한 고승인 와지라냐나 상가 나야까(Vajiranana Sangha Nayaka) 스님에게서 수행했다.
삐야닷시 스님은 스리랑카 지도급 승려로서 힘 있는 설법과 라디오 전파를 통한 포교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서양을 널리 여행하면서 불법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한편, 여러 국제 종교회의와 문화적인 모임에 남방불교 대표자로 참여했다.
또한 스리랑카 불자출판협회(BPS) 간행시리즈의 싱할리어본 출판물 〈Damsak〉의 편집자이기도 했다. 저술 가운데 '고요한소리'에서 출간된 책으로는 법륜 하나, 〈부처님, 그분-생애와 가르침〉과 법륜 열여섯 〈칠각지〉가 있다.

암자 부지 안내

자아를 찾고 불타이념을 홍포하시던
스님들의 노후 무료 쉼터를
마련 하고자 마복산 아래
청정 암자 부지를 양도 합니다

위치 : 전남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산58
임양 9800평, 바다인접, 면소재지 근접
☞ 항공사진으로 살펴보세요 ☜

사)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 도 모 집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기에 사암 주지
권한으로 운영합니다

총 무 원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총무원장 : 011-677-8525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서 울 범 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현우경' 이야기 (10)

진정 가난을 팔고 싶다면…

하늘사람이 된 노파



삽화 · 강병호

아리제 나라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욕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했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 줄도 몰랐다. 그에게는 늙은 여자 노비가 있었다. 그는 노파에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다.

그는 노파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매질을 하고 밥과 옷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노파는 강에서 물을 긷다가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전연이란 스님이 보고는 노비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피 우는가?"

"저는 매우 늙었음에도 아직까지 노비로 살면서 온갖 노동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 가진 재산도 없고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가난이 싫다면 왜 가난을 팔지 못하는가?"

"스님, 어떻게 가난을 팔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가난을 사겠습니까?"

"가난을 파는 방법이 있다. 진정 그대가 가난을 팔고 싶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먼저 목욕을 깨끗이 하시오."

노파가 깨끗이 목욕을 마치자 스님이 말했다.

"이제 보시를 해야 하오."

"스님, 저는 갖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물병이 전부입니다. 이것 또한 주인댁의 것이옵니다."

노파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자 스님은 노파에게 바루를 주며 깨끗한 물을 떠오라고 말했다. 노파는 깨끗한 물을 바루에 담아 스님에게 가져갔다. 가전연이 노파에게 물었다.

"잠은 어디에서 잡니까?"

"제가 잠을 자는 곳은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엔 부엌에서 자고, 쓰레기 더미에서 자기도 합니다."

"그대는 지금 주인집으로 가 모두가 잠든 때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자는 앞마당 모퉁이에 깨끗한 풀을 깔고 앉아 부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시오. 그리고 나쁜 생각을 버리시오."

노파는 집으로 돌아가 스님이 일러준 대로 실행했다. 잠든 노파는 새벽 무렵 목숨을 다했다. 주인은 마당에 노파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

"노비들은 절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찌 이 노파가 여기에서 죽어있는 것인가? 어서 이 노파의 시신을 치워라."

주인은 사람을 시켜 노파의 시신을 숲속에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때 도리천에는 한 천자가 매우 화려한 궁전에서 500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천자는 목숨이 다해 결국 죽고 말았다. 죽은 노파는 천자의 자리를 대신해 하늘 사람이 됐다.

노파는 하늘사람으로 태어나자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생활을 즐기기에 바빴다. 어느 날 도리천에 왔던 샤리푸트라가 이런 노파의 모습을 보고 물었다.

"당신은 어떤 복을 지어 하늘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노파는 몹시 당황했다. 노파는 자신이 하늘에 태어난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샤리푸트라는 노파의 어리석은 모습을 가엾게 여겨 하늘에 태어나게 된 인연과정을 보여줬다. 노파는 그제야 자신이 왜 하늘사람으로 태어난 것인지 깨닫게 됐다.

노파는 500명의 하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의 시신이 버려진 숲속으로 내려왔다. 하늘 사람들이 내려오자 마을과 숲은 온통 빛으로 가득했다.

노파의 주인은 이 광경을 보고 곧장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파의 시신에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노파는 더러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노파가 살아있을 때에도 더럽다고 싫어했다. 그런데 왜 노파의 시신에 공양을 올리는 것인가?"

하늘 사람들은 주인에게 노파가 하늘에 태어난 사연을 들려줬다. 그때 가전연 스님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법문했다.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며, 욕심을 버리면 하늘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법문을 듣고 욕심 없이 살았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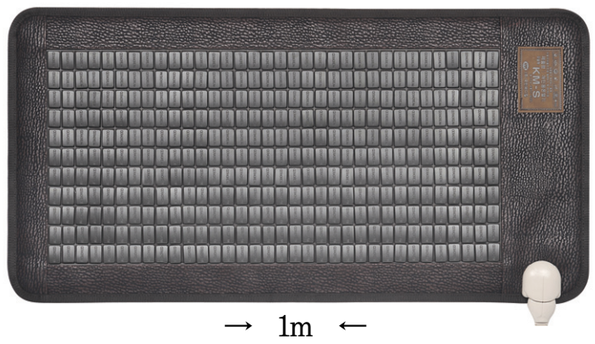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 50cm ↓

→ 1m ←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炆石)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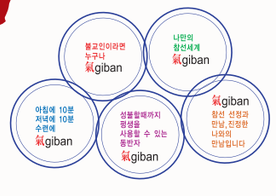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대행 스님

여러분의 근본을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초심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야 마음공부에 입문하려 하는데 저 같은 초심자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으면 일러 주십시오.

답)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사실, 바로 이 대뇌를 통해서 소뇌와 중뇌를 통해서 책정을 내리면 정수에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대로 현실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현실로 나오는 것을, 나쁜 것이 나왔든 좋은 것이 나왔든 나오는 대로 그 컴퓨터에 그냥 다시 입력을 해라. 그냥 거기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바로 재빨리 입력이 된다. 그러면 앞서 입력이 돼서 구정물이 나오려고 했던 것을 바로 새 물로 다가 입력을 한다면 현실에 새 물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는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다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된 게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진행되게 할 수 있고 연구가 잘되게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는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왜냐? 둘이 아닌 까닭이죠. 뿌리가 둘이 아니요, 불성이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불,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둘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것도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설이 된 거니까요.

우리는 그냥 어떠한 이름으로다가 신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신이요, 여러분이 다 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관습에 얽매이고 집착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이고 모두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게 나오든지, 밝지 못한 게 나오든지 밝은 게 나오든지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는 대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소임을 맡은 자에게 즉, 위장의 소임을 맡은 자, 방광 또는 콩팥, 척수, 척추, 이 대장, 소장 이런 데로 다 통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임 맡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모든 세계죠. 이 몸뚱이도. 세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 정수에서, 대뇌에서 사대로 딱 통신이 된다면 그 소임자들한테 전부 통신이 되는 거예요. 전부 통신이 돼서 그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넘치고 그러는 거를 다 알게끔 되고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너무 넘치는 거는 줄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화가 없고 냉장고가 없다면 아주 편리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다가 컴퓨터가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컴퓨터를 짊어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짊어지고 다녀 봤던들 그거를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자동적인,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자 우리의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물론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둘째는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나무들이 뿌리 없이는 못 살듯이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야죠. 셋째는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하고 놓고 산다면 모든 게 부자 부럽지 않게 영묘하고 자유스럽게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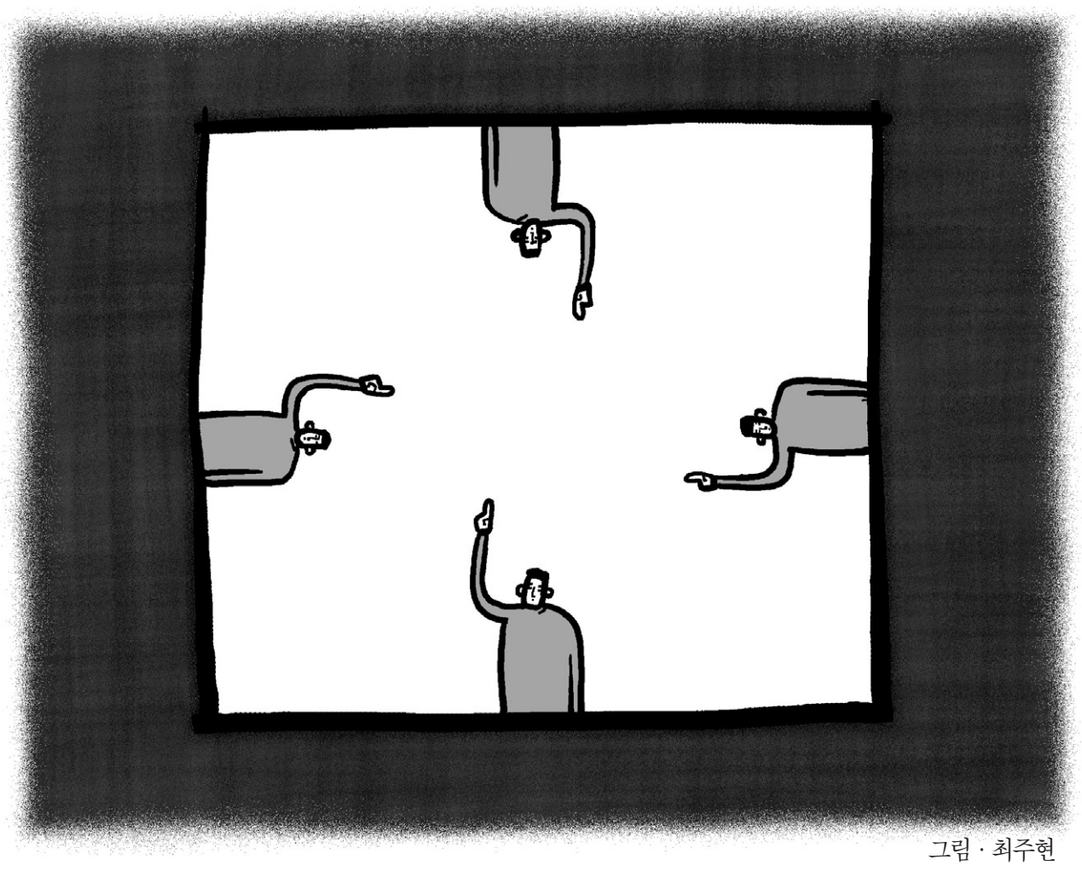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법망에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문) 공부하다 보니 법망에 걸린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법망에 다 걸린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법망이라는 말이 알 듯 알 듯 하면서도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거꾸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붙어 돌아다니니까 보는 게 올바로 보입니까, 걷는 데도 올바로 걷게 됩니까. 듣는 것도 올바로 듣지 못합니다. 보고 듣고 다니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이상, 모든 하는 것도 올바로 못합니다. 한 발짝도 에누리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왜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많지? 아하! 이게 법망이로구나. 야, 내가 한생각 하는데 이 법망을 통해서 온통 내 몸뚱이 구석구석 아니 닿는 데가 없이 통신이 되는구나.'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몸으로부터 지금 나가는, 돌고 도는, 내가 아는 것을 모든 생명들이 다 알고 있구나.' 또 이 지구 자체도 전부 법망에 있거든요. 허공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물질이 법망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하고 한 번 긋고 이러는 대로 내 법망을 통해서 전부 나가는 거예요. 발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이 '야, 저 사람은 아예 모르고 나만 아는 거니까.' 하시지만은 벌써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법망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로 잘못됐다고 앨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내 마음 하나 가지고서 안으로 굴려서 활용을 한다면은 모두가 전체가 알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발사가, 통신이 되는데 어째서 말로 그렇게 해 가지곤 불(佛)을 이루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듯이 내 몸의 법망도 있거니와 지구나 또는 이 허공이나 어디에고 법망이 다 있음으로써 어느 물질이고 다 법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 산도 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고 물맥이 있고 사람들도 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의 모든 힘줄들이 어떡해서 생긴 겁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한생각에 모두가 대뇌로 해서 전부 통신이 됨으로써, 내가 통신이 됨으로써 딴 데도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생각 한생각이 전부 우주법계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찌 인공위성으로서의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그게 첨단이냐 이 겁니다.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한생각을 한다면 벌써 우주 전체의 삼천대천세계의 세 바퀴 반을 돌아요, 찰나에. 그런데 지금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아니, 수 달이 걸리고 이러는데도 그 바로 찍어오는 거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얼마큼 차이가 있겠습니까. 빛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빠르지는 못할 겁니다. 이러한 광대무변한 법이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법이 다 주어져 있고 무한의 그 진리가 한 사람의 한 마음의 한 점에 있는데, 정말이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하나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모든 자기 중생들이 지금 몇억 마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 중생이 몇억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구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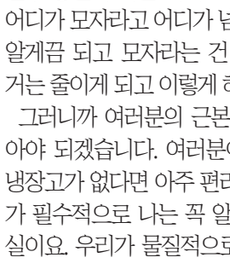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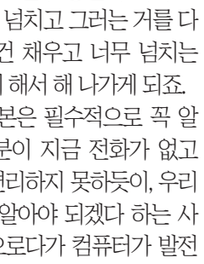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 29면에서 계속

우리가 이 망사를 씌워 놓고선 그 안에서 기르는 폭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망사 속에서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하는 인간들이기에 중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법망에 걸리고 인과에 걸리고 윤회에 걸리느냔 말입니다. 안 걸린다 해도 아니 되지만, 그것은 자유스럽기 때문에 안 걸린다 걸린다도 없어요. 두 가지 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놓을 수가 없기는, 놓고 가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곤 싸 버리고, 하곤 없어지고 이러는 거를 항상 허면서도 그것을 놓을 수가 없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생각으로 자기가 업을 지어 놓고 담을 싸 놓고 만날 걸리고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자기 생각이 좀더 공했다는 이치를 알아서 지혜를 넓힌다면 그 모든 걸 여여하게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할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천장은 발이 닿고 머리는 땅 밑으로 대어 있으니 어떻게 그걸 자세히 알 수가 있겠느냐.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사량으로 알려고 앨 쓰지 마시고 안으로 놓는 공부를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죽 끓듯 끓어요

문) 어떤 사람만 보면 마음이 죽 끓듯 펄펄 끓는데 그것도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봐야 되나요?

답) 그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게 전부 문수라고 그러죠. 요놈! 이게 주자거든요. 주걱이 아니라 주자예요.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주걱이 주자고 바로 이 방울방울 나오는 것이 요놈,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전부 고놈이거든요. 아, 팥죽 속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팥죽 방울이. 그러니까 내가 살림살이하는 게 이게 팥죽 끓듯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생명들이요, 아주 간략하게 쳐서 15억이라고 해도 되고 16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의식 하나가 수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여러분이 된다면 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구름을 타고 연애를 걸러 다니거든요. 사형이 보니까 아, 요놈이 또 연애 걸러 가거든요. 그런데 몸뚱인 놓고 그게, 진짜가 가는 거죠. 가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고 그냥 연애 걸러 가니까, '요놈 또 봐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탁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그냥, 인젠 안 그럴 테니 살려 달라고 그래서 놔 줬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죽 솥에 죽 끓듯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뭉쳤기 때문에 고덩어리니깐요. 거기서 그 방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방울마다 나오는 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울을 바로 그 마음으로서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는 나오는 대로 그냥 말도 해 버리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급살을 맞아라." 뭐 어쩌고. 그러고 미우면 "그거 차에도 치여 죽지 않나?" 그러고,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요. 아이, 사실이에요.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외려 죄업이 벗어져서 잘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니까 '이 둥우리는 냉랭한 둥우리구나.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고는 거리로 나돌다가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자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박을 한다 하더라도 "얘, 너 어디 가서 뭐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때는 "덥지나 않았니? 뭐라도 좀 먹었니? 얘, 너를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해 놓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주인공에다 맡기고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종이에다가 그렇게 뽀뽀 한번 해 놓고 "당신을 사랑해." 또 "너를 사랑해." 그러고 냉장고에다 붙여 놓고 나가면,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력을 가지고 넓게 쓴다면 그 보금자리가 따뜻해서 바로 화목해지고 딴 데로 이탈이 되질 않아요.

맷돌에 심봉을 딱 끼고선 맷돌을 돌리고 거기다가 물건을 넣으면 잘 갈려 나오지만 심봉을 잘 꽂질 않고 하면 그냥 그게 맷돌이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도 갈리질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면 이탈이 되고 잘 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네 사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봉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뭐라도 넣어서 갈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는 게 어딨습니까. 그 대신 안되는 게 어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법이요, 중용입니다. 좀 인간이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보람도 가져야만이 인간이 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펄펄 뛴다 하더라도 펄펄 뛸게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 '에이, 죽는 것도 너로 인해서, 사는 것도 너.' 이런다면 펄펄 뛸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두 여러분을 공부 가르치려면 주인공이 외려 딴 사람을 시켜서 쿡쿡 찌르게 만들고 일을 벌여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가지고 바깥으로 온통 야단이 나죠. 그럭하지 마시고 '아하, 이게 거기서 나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온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이구, 알았구나.' 그러고선 그냥 없어져요. 팥죽 솥에 팥죽 끓는 것 탁 치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울이 올라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오는 대로 거기다가 그냥, 그 주자로 쳐서 거기다 놓으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 무명을 벗고 또 남도 동시에 무명을 벗겨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 **첫째, 물론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 **둘째는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나무들이 뿌리 없으면 못 살듯**
>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살아야 합니다.**
> **셋째는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하고 놓고 산다면**
> **모든 게 부자 부럽지 않게 영묘하고**
> **자유스럽게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쉽게 매료됩니다

문) 스님께서는 기복신앙에 대해 누누이 경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복신앙에 쉽게 매료당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도 근본 가르침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복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기복으로 구하지 않고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이 불교라는 것은 진리인 까닭에 어느 한 군데 종교로 이 불교가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버스라면 그걸 공기주머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기주머니가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습니다.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종교 가지고 네 종교가 어떠니, 내 종교가 어떠니 하고 탄압하고 말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 나가는 마음이라면 어찌 한세상을 폭넓게 위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인생뿐만 아니지마는 생명체란 고교한 겁니다.

이 기복으로 믿다 보면은 전부 헛다리짚는 셈이에요. 이쪽 나무가 이쪽 나무한테 에너지를 좀 보내 달라고 기도를 해 보세요. 이쪽 나무가 이쪽 나무로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나요? 그 나무는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하겠죠. 그러니깐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고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깨달으면 이 허공 가운데 연꽃이 핀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전에는 대법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돈 버리고 왜 이 법회를 하느냐고 이런 스님네들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죠. 나를 내가 건지는 데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던 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그 모습을 다 버리고 가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잡고 가려고 돈을 아낍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컵에 물 한 잔을 남을 줬다면 반드시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것대로 돌아옵니다. 바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에.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돈 안 주고 물건 그냥 주는 거 못 보셨죠? 또는 돈을 안 주면 물건도 안 내놓죠. 그런 거와 같이 주는 사이도 없고 받는 사이도 없이 우리는 그 생각을, 한생각을 항상,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보시했다 이런다면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보시한 대가는 벌써 나한테 오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거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로부터 모든 게 세상도 벌어지고 가정도 있는 거고 자식도 있는 거고, 모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모습, 내 나무는 내 뿌릴 믿어야만이 아주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건강해지느냐. 거기에 관하니까. 믿으니까. 어디가 아파도 내 마음이 더 잘 알죠? 아프다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입력이 돼서 벌써 거기서 작용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고교하고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뭘 좀 달라고, 뭘 좀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옳겠습니까? 자기는 쑥 빼놓고, 자기 운전수는 쑥 빼놓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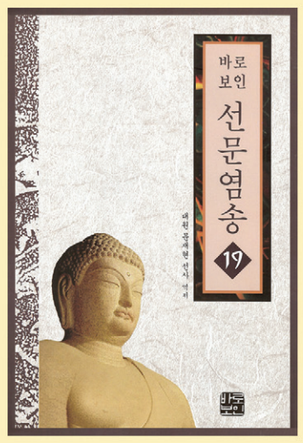
결과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요

문) 얼마 전 취업하기 위해 시험을 쳤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자니 두렵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는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시간들이 힘듭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도 담담할 수 있는지요.

답)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정말 오직 종교가, 이 스님네들이 있든지 없든지, 이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는 자신을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네들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아이구!' 해 놓구도 이게 불안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벌써 '야! 영원한 친구야,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뜻으로 다가 그냥 자기가 마음이 스스로 안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설 믿고 그냥 믿다가도 말아 버리고 '이게 주인공이라는 게 뭐 말라빠진 거야?' 하고 내던지면 그렇게 일러주지도 않죠.

그것이, 즉 말하자면 전 우주로의 통신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신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가고 오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알게도 만들고 그러는 그 보배처거든요. 거기서 너무 내가 불안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얘! 주인공이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고 거기서 뜻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 예!' 이렇게 저절로 그냥 든든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듬직하지가 못해요. 아주 바깥으로 방황하게 되죠.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저절로 든든하게 돼 있어요.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흥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지관(止觀)은 염불 · 간화선 · 위빠사나 등
모든 수행의 핵심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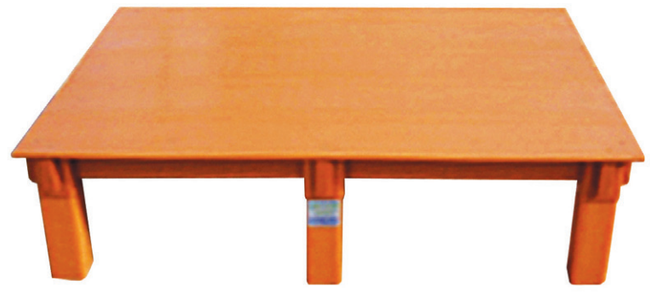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교재 채택!

지관수행
수습지관좌선법요
(修習止觀坐禪法要) 강의
천태지의 저 | 송찬우 역해
신국판 | 흑백 | 456쪽 |
2011년 11월 25일 발행
18,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모든 남 · 북방 수행법의 이론과 실제 곁들인 수행 지침서
'지samatha'를 통해 선정을,
'관vipassana'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는 처음 발심한 사람이 수증(修增)하고 입도(入道)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책. 천태종을 창종한 천태지의(538~597) 대사의 저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 탄허 스님으로부터 교(敎)를, 명예원로의원 성수 스님 문하에서 선(禪)을 닦은 동현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가 이론과 실제를 곁들여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수행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불자 세상보기

풍요속의 빈곤



정병조
금강대 총장

가끔 너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 민망해 지곤 한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절대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사회면은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 복어 알 먹고 죽은 이들의 기사가 흘러 넘쳤다. 가난했던 시절의 겨울은 어찌도 그렇게 음습하고 길었던지….

그러나 요즘의 한국 사회는 풍요가 철철 흘러넘친다. 배고팠던 시절의 아픔을 저 멀리한 채 다이어트와 성인병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

또 하나의 놀라운 발전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 할 만하다.

모든 생명은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 또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백두산만큼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히말라야의 정상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다는 사람도 있다. 혹은 인생의 반려를 구한다던지 도를 이루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물질적 만족에서 찾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정신적 행복이라는 것이 지극히 애매모호한데 비해 물질적인 만족은 분명히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데 있다. 〈금강경〉 가르침처럼 풀섶의 이슬처럼 무상한 것이 세속의 부귀영화이다. 가난해도 불편하고 많이 갖고 있어도 불안하다. 따라서 근심조차도 삶의 일부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고독의 그늘은 있기 마련이고 삶이란 그 그림자를 안고 사는 여정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빈곤과 갈등을 느끼는 까닭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상대와의 비교우위를 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한국인은 집 한 칸 갖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었다. 그 꿈은 이제 더 큰 집, 더 큰 차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갖고자 하는 욕심은 채울 길이 없다. 언제나 욕망의 갈증 속에서 헤매일 따름이다.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자명해진다. 지족(知足)하는 인생, 스스로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행복의 첩경이다. 인간은 빵 없이도 못살지만, 빵만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물질적 탐닉을 죄악시하기보다는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풍요는 행복의 조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풍요자체가 행복은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교는 '버림의 미학' 이다. 소유를 위한 욕구보다는 무소유의 진실을, 다툼의 윤회라기보다는 지는 것을 배우는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이 이치를 공(空)으로 설명한다. 공은 비웠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뜻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공을 허무적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의 참 뜻은 그 허무마저도 극복하려는데 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동시에 꽃이 떨어진다고 하는 허무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즉 공의 종착역은 중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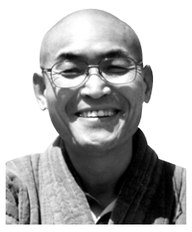
우리는 여태까지 선진국의 기준을 경제적 지표만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선진국의 으뜸가치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우리나라의 품격을 유지시켜온 가치 기반은 불교였다. 인과응보적 윤리의식을 통해 국민정신을 계도하여 온 것은 고대 한국불교의 큰 장점이었다. 보이는 세계와 그 밑바닥을 형성하는 가치로운 세계를 응시토록 한 힘도 불교였다. 가진 자에게는 무상의 도리를 일깨웠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응어리진 한의 정서를 풀어주었다. 즉 불교는 민족의 정신저변을 이루면서 관용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삶의 질(質)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경제 10위권에 드는 나라로서는 다소 창피한 통계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경제 발전만이 목표가 아닌 좀 더 내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랄뿐이다.

사부대중 칼럼

오로지 '보시·공양' 으로만 살자



송암 스님
안성 도피안사 주지

며칠 전, '나가수' 와 '나꼼수' 의 인기가 천정부지라는 기사를 봤다.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모처럼만에 세종로를 거닐었다. 책을 사러 나갔다가 여유를 부려봤던 것이다. 인기 높은 이 둘은 같은가, 다른가? 이 둘 중에 나는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생각해 보고 싶었다. 우리사회가 삶에 진지하거나 건전하지 못하고 자못 풍자적으로 가는 데는 각계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한다. 정치지도자들, 경제계의 인사들…, 예외가 없다. 물론 우리불교계도 역할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광속도의 빠르기로 변화하는 것 같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불교의 현실적 존립기반은 취약하다. 그렇지만 변화의 때일수록 구성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원칙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불사를 이루는 일까지, 철저하게 불교는 불교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원칙이란? 바로, 신도들의 '보시와 공양' 이 우리불교의 현실적인 존립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사찰경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시와 공양' 은 불교의 핵심적 가치이고 목숨과도 같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이다. 참선이나 염불이나 간경이나 그 어떤 수행보다 못하지 않는 실천적인 증오행(證悟行)이고 무아의 성스런 불행(佛行)이다.

오로지 이 힘으로 불교는 존재해야 하고, 이 정체성을 면면히 유지해 나가야 하며, 인류사회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결코,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비법이나 탈법, 무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당히 해석하여 아전인수해서는 안 된다.

작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메주니 차니 물이니 등을 다수의 절에서 특산품처럼 팔고 있다. 절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함이란다. 그러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되레, 절에서 아껴 쓰고 아껴먹고 절약하여 이웃에게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 사회로 되돌려 주면 절은 부의 분배자가 된다. 세간이 못하고 자본주의가 못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산다면 어찌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집단의 정통한 가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저 신흥귀족일 뿐이다. 이러해야 함에도 언제 누구로부터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상행위가 절에서 버젓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분명, 잘못 끼워진 단추의 볼썽사나운 모양이다.

이제 절 안의 가게를 절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절 밖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손대서는 안 된다.

옛날 선비나 군자들도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삶이 힘들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출격장부들인 출가자가 선비나 군자보다 뛰어나진 못할지언정 나란하지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절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오늘날 대그룹의 빵집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절도 마냥 이대로 가다간 세간의 풍자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나꼼수' 의 인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두렵지 않은가? 이런 불교집안은 방치한 채 밖에 있는 사람들만 줄곧 나무라고 야단치는 사람들도 있다.

절이 바르면 사회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개인에게도 염치가 있고 체통이 있으며 위엄이 있다. 하물며 유서 깊은 수행집단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비로소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여기서 구분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오로지 신도들의 '보시와 공양' 으로만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수행이고 신앙이고 원칙이다.

'보시와 공양' 의 부처님 말씀 속에는 계정혜, 삼학이 원만구족하다. 무엇보다 그 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 대원칙에서 불교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절에서 상행위를 하는 시간에, 관리들을 만나러 다니는 시간에 신도들에게 '보시와 공양' 을 가르쳐야 하고, 그 공덕을 당당하게 설파해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칙을 지키려는 굳센 각오로 설법해야 한다. 불교에는 사찰경영의 방법이니 포교의 효율적인 방법 등은 따로 없다. 오로지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부처님을 따라서 말이다. 비로소 '보시와 공양' 은 불교를 되살리고, 나라의 국민성이 되며, 인류공존의 무문대로(無門大路)가 될 것이다.

社說

탈핵운동에 힘 모으자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이다. 1주기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사고현장을 매스컴에 공개했다. 처참했다. 쓰나미에 떠밀려온 배는 원전에 그대로 있었다. 물난리를 겪으며 한바탕 난리가 났던 원전 부근은 1년 전 모습 그대로이다. 앞으로도 그 배와 쓰레기들은 40년을 넘게 더 그곳에 있어야 한다.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동식물들까지도.

합천 평화의집에는 원폭피해자들이 산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내려진 형벌을 평생 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을지 모른다. 원전과 핵폭탄은 그것이 담긴 용기만 다를 뿐 같기 때문에.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다. 오계의 불살생(不殺生)계가 말해주듯 생명존중의 종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의 존재가 위협되는 원전은 분명 반대해야 할 물건이다. 물론 모든 것이 상대적이듯 문명의 이기에도 양날이 존재한다. 하지만 원전은 다르다.

원전은 일단 가동되면 '끌 수 없는 불' 이다. 인간의 삼독(三毒)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지멸(止滅)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만다. 원전이 그렇다.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수행을 통해 번뇌의 불길을 끄는 연습을 해왔다. 부처님의 성도 역시 이러한 과정과 다르지 않다. 지구촌 생명을 위협하는 '끌 수 없는 불' 에도 불교계의 담론이 모아지고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황룡사는 관광자원 이전에 사찰

우리 민족문화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손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라시대이다. 신라에는 삼보가 있었다. 황룡사 대종과 황룡사 9층 목탑, 장육존상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황룡사 대종은 몽고군이 바다에 빠뜨렸다고 전해져 현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황룡사탑은 당시에 존재하던 가장 큰 목탑이었다. 추정되는 높이는 80.18m이다.

경주시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2006년부터 진행한 황룡사 관련 기초연구성과를 공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7년까지 3300억원이 투입돼 9층 목탑과 장육존상 등 구체적인 황룡사 복원계획이 소개됐다. 2035년까지 진행되는 '역사·문화환경정비' 단계에서는 인근 역사·문화환경 정비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 시기 황룡사 인근에는 명상센터, 불교미술공예관 등이 들어서고, 쇼핑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복원이 끝나면 관람객들은 황룡사 9층 목탑에 올라 80m 높이에서 경주시내를 둘러보게 된다고 한다. 황룡사탑이 '경주타워' 가 되는 것이다. 경주시 등의 복원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복원이란 유실되거나 손상된 과거의 것을 똑같이 재현해서 만든다는 의미이다. 재현할 수 없다면, 기능을 더한다면 그것은 복원이 아니다. 불교계는 황룡사 복원이 가시화되면 종교적 경건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년 3월 1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악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봄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점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정상적으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점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지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은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꾸준히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혈도 확 좋아져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제품은 만나기 힘들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몸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읍니다.

하지 정맥에 있어 굵은 정맥이 튀어 나왔고 심했었이 수술하게 여겨 였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읍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丸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